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이 연 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음주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세계보건기구는 2008년부터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인 「과량새 플랜 2010」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치료·재활·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우리문화에서는 이러한 종합대책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월간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 또한 2014년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였지만 제주지역의 음주실태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미비한 편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음주실태를 파악하여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음주문화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의 음주행태, 음주상황, 음주결과, 절주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향, 음주에 대한 인식,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다섯 분의 자문위원들과 세 분의 연구평가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조사방향에 도움을 주셨던 관련 기관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이연화 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연구가 청정제주, 살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혜 순**

연구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전국비교 고위험 음주율이 제주가 20.9%로 3위를 기록함. 201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자체 음주기인 사망수준 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관련성」에서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음주기인 사망자 수는 2009년 33.8명에서 2012년 37.6명으로 증가함. 반면, 전국은 31.5명(2009)에서 29.0명(2012)으로 줄어듦
-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음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제주지역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도 2010년 6.3%, 2011년 9.1%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6.2%로 감소, 2013년 8.7%, 2014년 9.5%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의하면, 제주지역 알코올 중독자 수는 약 17,438명으로 추정됨. 과음이나 폭음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지장 및 경제활동 저해, 각종 사고, 가족갈등, 폭력 등의 원인이 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의해 지자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제8조에 의해 과다한 음주의 문제점을 교육·홍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해 음주의 원인과 개인·가정·사회적 음주폐해를 파악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조성과 개선할 음주문화·가족정책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음주실태조사 관련 통계, 법령 및 조례, 정책 현황 파악
 - 제주지역 음주현황 및 정책, 제도 분석
 - 기존 음주관련 실태조사 및 음주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문문항 개발

- 제주지역 성인남녀의 음주실태, 음주원인, 음주로 인한 피해, 음주에 대한 인식, 정책인지도 및 정책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건전한 음주환경조성과 개인·가정·사회적 음주폐해 감소 위한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연구

- 통계청 사회조사, 보건복지부 지역건강통계, 한국음주문화센터 자료 등 음주 관련 통계 수집·분석
- 음주실태, 음주폐해, 음주 측정 도구 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음주관련 법령, 타 지자체 사례 등 문헌 연구
- 중앙, 국외의 음주 관련 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 제주지역 음주문제 관련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 방법 :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할당 표집 후 가구방문 면대면 조사
- 조사내용 : 음주실태(음주량 · 음주빈도 · 최초음주시기, 폭음 등), 음주로 인한 가족생활피해(정서적 어려움, 가정폭력, 경제활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비행과 가출, 각종 사고와 범죄 등), 음주원인(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원인), 음주에 대한 인식(음주행동에 대한 인식, 음주로 인한 가족피해인식),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음주관련 정책인지도, 음주 및 가족정책 관련 욕구), 사회 인구학적 특성 등
- 조사기간 : 2015. 5.1. ~ 5.8.

4. 연구절차

○ 연구의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연구절차 〉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제주특별자치도, 국외 음주관련 법과 관련 정책, 사업 및 통계 수집 검토
	▷ 자문회의(1차)		·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2015. 3.13)
2단계	▷ 자문회의(2차)	⇔	·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논의
	▷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5. 4.24~4.27)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5. 4.24~4.27) · 사전조사(2015. 4.6~4.21)
3단계	▷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조사 실시」 (2015. 5.1~5.8)
4단계	▷ 자문회의(3차)	⇔	· 조사결과 및 정책제안 의견 수렴(2015. 9.22)
	▷ 수정·보완 후 완료		· 의견수렴 반영하여 보고서 수정·보완 · 최종 보고서 집필 완료

제2장 선행연구

1. 음주관련 개념

-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음주문제(alcohol problem) 또는 음주관련 문제(alcohol related problem)로 명명하기도 함. 음주문제란 문제음주자의 음주로 인해 자신,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자를 문제음주자로 정의하기도 함. 그러나 문제음주자를 김남초 외(2004)는 고위험음주군까지 문제음주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 천성수(2002)도 과음과 폭음은 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음주를 마신 결과로 다른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음주자로 봄. 최윤영(2007)은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를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 정신,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행동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도 문제음주를 alcoholic, non-alcoholic으로 범주화 시키지 않고 과도한 음주, 폭음, 고위험음주로 인해 자신,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가족갈등, 대인관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2. 음주실태관련 연구

- 음주관련 실태조사를 직장인, 청소년, 대학생, 성인, 국제사회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직장인 음주실태

- 이희종 외(2002)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월 2~4회 음주를 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며, 음주량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5-6잔 정도 마신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과음자가 70%를 넘으며, 실제로 과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적정음주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수영(2006)에 따르면 직장인의 대부분인 97.2%가 음주자이며,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음주량과 과음비율이 높고 음주를 할 경우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1차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향 때문으로 봄

나. 청소년 음주실태

- 김성천 외(2005)는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은 28.6%이며 남자 28.8%, 여자 27.2%로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자주 마시며,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음. 폭음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폭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정상 외(2012)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이 20.6%이며, 청소년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48.8%임을 밝힘. 평생음주율은 51.0%로 청소년 2명 중 1명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접근성 규제, 판매자처벌, 대리구매자의 처벌강화를 강조하였음

다. 대학생 음주실태

- 한국음주문화센터(2010b)는 대학생들의 월간음주율은 85.4%이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월간음주율의 차이가 5% 내외로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학생 못지않게 높으며, 폭음율에서 남학생 42%, 여학생 42.7%로 여학생들의 폭음율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음
- 천성수(2002)에 의하면 음주관련사고의 원인을 폭음으로 규정하고 대학생의 폭음율이 56.9%로 처음 음주권유한 사람이 부모나 집안어른일 경우가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 처음 권유받은 경우보다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5.2배나 높아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1.8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라. 성인 음주실태

- 한국음주문화센터(2010a)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여성과 노인에게서 음주율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폭음율 증가 폭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층의 음주율 증가를 강조하면서 노인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류지수·강경화(2012)는 한국음주문화센터(2010a)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데이터의 2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AUDIT 측정결과 남성이 여

성보다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으며 여성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의 경우는 직장인인 경우가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남성 직장인의 음주문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마. 국제사회 음주실태

- 「OECD Health Data 201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의하면, 2012년 OECD 회원국 34개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1인당 주류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량은 OECD 평균인 9.0ℓ 에 근접한 9.1ℓ 로 나타남.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12.3ℓ), 오스트리아(12.2ℓ), 프랑스(11.8ℓ) 등이며, 평균보다 적은 나라는 미국(8.6ℓ), 스웨덴(7.3ℓ), 일본(7.2ℓ), 이탈리아(6.1ℓ), 이스라엘(2.7ℓ), 터키(1.6ℓ)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주류판매 제한 연령기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 제한연령기준을 19세로 제한했고, 우리나라보다 연령제한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이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 16세에서 18세로 제한함(정영호, 2014)
- OECD국가 중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주류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적은 나라들은 주류판매 제한 연령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음

3. 음주의 원인에 대한 연구

- 지금까지 음주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음주의 원인을 유전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가. 유전적 원인

- 과도한 음주의 원인을 생물학적 견해에서 찾음. 가족력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설명함(김광일, 1989)
- 음주문제의 원인을 유전적·가족력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음주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켜 사회구조적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심리적 원인

-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는 견해임. 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된 것과 가정 일 또는 개인 신상 관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Greenberg(1995)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소외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과음·폭음을 유발한다고 봄
- Perreia(2001)는 가정 일 또는 개인 신상 스트레스는 생활사적 사건(Life event)이 발생하면 개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긴장감의 감소를 위해 과음을 한다고 설명함
- 문제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직장이나 가족 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남성들이 왜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하며, 음주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 사회문화적 원인

-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직장 내 회식문화, 취미나 여가활동의 부재, 관련 법규제의 미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직장문화는 음주가 주를 이루는 회식과 접대문화임(양정선, 2012). 이러한 직장 내 음주문화는 30대·40대의 음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전통적으로 일상 속에서 여가생활의 하나였으며, 오순환·김대우(2004)는 별다른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주 의존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음주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로 보기도 함(우석균, 2012). 우리나라의 음주규제정책은 크게 주류판매 면허제도, 음주연령제한, 가격 및 세금부과, 주류광고제한, 음주운전통제, 절주교육과 홍보, 치료 및 재활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예산부족과 규제관련 법의 부실이 음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4. 음주관련 부정적 영향

-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개인 피해, 가족생활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함

가. 개인 피해

- 음주로 인한 개인 피해로는 장기적인 알코올 소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자살시도(김상대 외, 2001:2), 건강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17), 사건사고 등임

나. 가족생활의 피해

- 음주문제로 인한 가족피해는 부부갈등(김상대 외, 2001:2), 자녀가 부모의 음주행동 학습(조덕임, 2013), 가족의 역기능과 자녀와의 갈등(장수미, 2001),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Black, 1986:213-231) 등으로 나타남

다. 사회경제적 피해

- 음주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로는 직장에서의 사고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김상대 외, 2001: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임(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제3장 음주현황과 국내·외 정책동향

1. 국외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 OECD국가 34개국(평균 9.0ℓ)중 우리나라보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이 가장 적은 5개국 중 특정 종교로 인해 음주를 통제하고 있는 터키, 이스라엘을 제외한 멕시코,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음주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함

가. 멕시코

1) 음주현황

- 멕시코는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과 농업, 종교에 부합된 의식에서 공동체가 음주를 하는 문화임

- 그러나 2002년 멕시코 내 질병 총 부담의 9.0%가 알코올 사용이며, 알코올 관련 사망의 비율이 남자 15.3%, 여자 2.4%로 나타남
- 2007년 알코올 일일 소비량은 드물게 보고되지만, 각 행사 때마다 높은 수준의 사용량을 보임

2) 음주관련 정책

- 멕시코는 국경지역인 티와나주에서 알코올 통제정책을 실시해 영업시간제한, 알코올 판매사업장 제한, 알코올 광고·배너·사인들을 없애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행함
- 영업시간의 경우 티와나주 bar들은 새벽 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음. 알코올소매점과 문제 사업장 수를 없애고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관광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시행하고 있음

나. 이탈리아

1) 음주현황

- 이탈리아의 15세 이상 국민 중 23%는 금주를 하며, 15%는 간헐적인 음주를 함
- 이탈리아의 경우도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 중 30-50%가 알코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응급실 환자 중 약 20%가 알코올 관련사고로 내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음주관련 정책

- 이탈리아의 음주정책은 음주나이를 제한하고 특정장소에서 음주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젊은이의 음주율을 낮추고 있음
- 음주허용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서 젊은이에게 음주판매를 제한함. 고속도로 주변 상점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1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증류수와 와인·맥주의 부과세를 높이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한달간 구금과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로 정지됨. 재범자의 경우는 더 오랜 기간의 구금형에 처해짐. 2001년에 혈중알코올농도(BAC)제한 수치는 0.05%로 확정되었음

다. 노르웨이

1) 음주현황

- 노르웨이는 금주율이 높고 음주자의 음주빈도와 음주 소비량이 낮아 음주소비율이 전형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함
- 과거 1830년대 개인이 자유권의 하나로 술을 제조하면서 노르웨이의 음주 소비 수준은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음주문제가 심각했음
- 노르웨이는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럽국가중 강력한 음주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음주관련 정책

- 음주 소비 정책의 주된 목적도 알코올과 관련된 보건문제와 사회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임
- 노르웨이의 음주정책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한 음주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행하고 알코올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가격정책 실시, 알코올 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형사상 처벌을 활용, 음주운전 및 청소년 음주와 같은 특정 음주문제를 엄격하게 다룸

라. 미국

1) 음주현황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음주를 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음주는 점점 줄어듦.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마시며, 계층별로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이 마심
- 미국 내 사고 중 알코올 관련 사망은 60%거의 40%는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들임. 알

코올과 관련 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남성들이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77.4%가 청소년과 젊은 성인임

2) 음주관련 정책

- 미국은 알코올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의 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조정하고 있고, 엄격한 주류 판매면허제도, 주류종사자에 대한 교육,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는 제도, 신분증 확인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소매점에서는 1인이 1회당 살 수 있는 술의 양을 규제하고 있음
- 알코올을 구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를 미국은 최소 연령 21세로 하고 있음

2. 국내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가. 음주실태

-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군·구 단위별 월간음주율의 중앙값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 54.1%, 2009년 55.7%, 2010년 56.5%, 2011년 58.3%, 2012년 58.5%, 2013년 59.5%, 2014년 60.8%임

나. 음주관련 법령

-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법령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제6조),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광고 금지(제7조),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대한 교육·홍보(제8조),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원(제8조),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 표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세법

- 주요내용으로는 주류의 정의(제3조), 전통주의 정의(제3조), 주류의 종류(제4조)를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제6조)와 주류 판매업면허(제8조), 주세의 과세표준(제21조)과 세율(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 청소년에게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44조)

□ 청소년보호법

-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제2조 4항)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출입·고용 금지(제2조 5항), 가정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약물 등에 접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못하도록 노력해야하며(제3조),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출입 금지 및 유해한 약물의 유통·고용피해·학대 등을 신고·고발해야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함(제4조)

□ 도로교통법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1항), 강제 음주 측정 명시(제44조 2항·3항),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44조 4항)

□ 산업안전보건법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 등의 정부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으로는 금주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지정·표지판 부착, 절주교육 지원, 주류광고 및 후원행

위 제한, 청소년 음주예방 및 교육·홍보관 설치, 알코올 사용 장애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 개최, 절주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32개 시·도,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음주관련 정책

-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정책은 주류판매 면허제도, 음주연령제한, 가격 및 세금부과, 주류광고제한, 음주운전통제, 절주교육과 홍보, 치료 및 재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주류판매 면허제도는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를 판매·중개하고자 할 때 면허를 취득해야함을 의미함
- 음주연령제한이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음주를 마실 수 없으며 주류판매업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할 수 없음
- 가격 및 세금부과의 경우 주세체계는 종가세이지만,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류광고제한의 경우 음주를 미화하거나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내용변경 및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기에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통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미만인 경우에도 적발시 형사입건 면허정지 등 강력하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 절주교육과 홍보의 경우 보건교육 내용에 절주에 관한 내용을 실고 있으며, 보건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정부 및 공익단체, 종합병원 및 의료보험자 등임

3.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현황

-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의 월간음주율은 64.6%로 1위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충북 21.7%, 강원 21.1%, 제주

20.9%로 3위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는 제주지역 남녀 월간음주율이 각각 78.4%, 44.2%로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음주율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1%, 여성 9.5%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3.5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관련 조례는 없으며 도민의 건강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 관련 정책은 크게,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절주교육 및 홍보임
- 치료 및 재활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
- 절주교육 및 홍보의 경우 사업유형을 교육 및 홍보와 조기선별 및 상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교육 및 홍보: 사업주체는 보건소이며, 협력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단체, 학교이며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청소년, 임산부, 직장인, 노인) 등 대상자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조기선별 및 상담: 사업주체는 보건소이며 협력기관은 지역병원(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며 대상은 지역사회 고위험음주자로 조기발견 및 상담 등 개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조사모집단으로 함

나. 표본설계

- 표집방법 : 지역(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할당 표집
 - 표본할당 : 읍면동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인구의 성,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층화할당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표본이 모집단인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함
- 최종 응답자 선정 :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함(1,000명)

다. 조사방법

-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 면접원에 의한 가구 방문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1일 ~ 5월 8일까지임

라. 조사내용

- 조사 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고향, 직업, 개인소득,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가구구성, 종교, 건강상태
음주행태	음주율(월간, 연간, 평생, 고위험 등)
	음주량(폭음, 과음, 주량, 만취 정도)
	음주횟수(음주차수)
	음주시작 연령(나이, 음주시작 이유)
	음주습관(한달 술값, 누구와 어디서 먹는지, 주간적 생각)
	객관적 음주습관 평가(알코올 사용 선별검사도구 AUDIT-K)
	여성음주습관(임신 중 술을 마신 경험)
음주의 영향	개인 경험(문제음주 진입단계, 가족문제, 경제적 손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사건사고 경험)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경험(공공장소에서의 문제, 가정폭력, 가족경제의 어려움, 가족해체의 위기, 자녀양육의 어려움)
	음주원인(가족친밀도, 우울, 자살, 스트레스, 회식문화, 가족력, 상담경험, 친구, 주변인, 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정책 서비스 경험여부)
	음주이유(마시는, 끊지 못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음주피해에 대한 인식)
음주관련 정책	정책인지도(관련 법인식, 관련 서비스인식 등)
	정책수요(조례제정, 예방교육강화, 복지강화 등)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지역	제주시 동	563	56.3	직업	전문/관리직	98	9.8
	제주시 읍면	167	16.7		사무직	126	12.6
	서귀포시 동	147	14.7		서비스/판매직	350	35.0
	서귀포시 읍면	123	12.3		농림어업직	97	9.7
성별	남성	496	49.6		기능/기계/조립	58	5.8
	여성	504	50.4		단순노무	43	4.3
연령	20대	168	16.8		무직/기타	228	22.8
	30대	178	17.8	월 가구 소득	소득없음	18	1.8
	40대	228	22.8		100만원미만	96	9.6
	50대	195	19.5		100-199만원	142	14.2
	60대 이상	231	23.1		200-299만원	216	21.6
혼인 상태	미혼	222	22.2		300-399만원	246	24.6
	기혼	676	67.6		400-499만원	141	14.1
	이혼	30	3.0		500-599만원	53	5.3
	사별	72	7.2		600-699만원	29	2.9
학력	초졸이하	108	10.8		700만원이상	59	5.9
	중졸	65	6.5	맞벌이	맞벌이	435	43.5
	고졸	401	40.1		외벌이	263	26.3
	대졸	400	40.0		합계	698	69.8
	대학원	26	2.6	가구 구성	1인가구	105	10.5
고향	제주	828	82.8		부부 가구	97	9.7
	비제주	172	17.2		부부+미혼자녀	517	51.7
종교	없음	471	47.1		부/모+미혼자녀	105	10.5
	개신교	97	9.7		부부+자녀+부모	47	4.7
	천주교	119	11.9		조부모+손자녀	11	1.1
	불교	313	31.3		기타	8	0.8

3. 음주행태

가. 음주율

- 응답자의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은 각각 63.7%, 80.3%, 89.8%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 30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며 특히, 20대의 연간음주율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간음주율(67.7%), 연간음주율(84.8%), 평생음주율(92.6%)이 가장 높았으며,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아 도시에서 주류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다른 직업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별로는 월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은 핵가족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연간음주율은 한부모가구에서 높았음
- 고위험음주율은 34.8%로 남성 35.1%, 여성 8.1%로 남성이 여성보다 4.5배나 더 높게 나타남
- 조사결과 제주지역 월간음주율이 63.7%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나타난 전국의 월간음주율 중앙값 6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음주율도 조사결과 34.8%로 전국의 고위험음주율 중앙값 18.7%보다 높게 나타남.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월간음주와 고위험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음주량

- 응답자들의 19.9%는 한 번에 술을 마실 때 7-9잔을 마시며 성별로 남성 32.7%가 7-9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들은 1-2잔이 27.6%로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7-9잔은 30대에서 28.7%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한 번의 술자리에 서 5잔 이상을 마시는 연령대는 20대·30대·40대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한 번에 7-9잔을 마시는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마시지 않음’은 제주시 읍면지역(22.2%)과 서귀포시 읍면지역(33.3%)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7-9잔은 대졸에서 27.0%로 가장 높았고,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대학원졸(69.2%)이 가장 많아,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량도 많게 나타남
- 직업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기능/기계/조립직이 각각 36.2%, 70.7%로 가장 많았음. 종교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종교없음’ 이 각각 25.5%, 55.8%로 가장 많았음
- 가구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핵가족·3세대가구·한부모가구에서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음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음주량 조사결과 한 번 술을 마실 때 음주량은 7-9잔이 1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 7-9잔(32.7%), 여성 1-2잔(2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2010)에 나타난 전국의 음주량은 3-4잔이 24.0%로 가장 많음. 성별로 남성 7-9잔 23.5%, 여성 1-2잔 38.2%임.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한 번 술을 마실 때 더 많은 잔을 마시며, 성별로 남성의 경우는 한번에 7-9잔을 전국보다 제주지역 남성이 더 많이 마시며, 여성의 경우는 한번에 1-2잔을 전국보다 제주지역 여성이 더 적게 마심을 알 수 있음

다. 음주빈도

- 응답자들이 음주를 하는 횟수는 월1회 미만(26.4%)이 가장 많았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2-3회(29.0%), 여성은 월1회 미만(37.1%)이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20대·30대·40대는 월2-4회가 각각 36.9%, 28.1%, 30.3%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40대(11.0%)가 타 연령대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이 월2-4회로 각각 27.7%, 22.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서귀포시 읍면지역(9.8%)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 월 2-4회(29.3%)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대학원(11.5%)이 가장 많았음. 직업별로 월2-4회는 단순노무직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기능/기계/조립이 22.4%로 다른 직업에 비해

매일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음

- 종교별로는 ‘종교없음’ 이 월 2-4회와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별로 핵가족(29.8%)과 3세대가족(36.2%)은 월2-4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한부모 가구에서 13.3%로 가장 많았음
- 음주빈도 조사결과 월1회 미만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주2-3회 (29.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1회 미만(37.1%)이 가장 많았음. 전국의 음주빈도도 월1회 이하(41.6%)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 월 2-4회(43.3%), 여성 월1회 이하(57.0%)가 가장 많이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월1회 미만 음주횟수가 낮고, 성별로도 남성의 경우는 전국보다 제주지역 남성이 더 자주 마시며, 여성의 경우는 월1회 이하 음주빈도수가 제주지역 여성이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라. 폭음율

- 남성과 여성의 폭음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57.5%)이 여성(1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여성의 경우 20대의 폭음율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의 폭음율이 2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응답자의 38.1%가 폭음을 하며, 남성(57.5%)이 여성(1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폭음율은 27.6%로 성별로 남성 41.9%, 여성 12.5%임(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폭음율도 높으며 남녀모두 폭음율이 높음. 특히,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20대 폭음율이 34.2%로 전국 20대 여성의 폭음율 15.9%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 음주상황

가. 음주시작연령 및 최초음주동기

- 응답자의 최초음주나이는 평균 21.9세이며, 남성은 만 19.8세, 여성은 만 24.3세임
- 전국 최초음주나이는 19.76세이며, 성별로 남성 17.83세, 여성 21.73세임(한국음주문

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최초음주 나이가 높으며 남녀모두 음주를 늦게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초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많았음(28.8%). 남성의 경우는 또래집단의 영향(38.1%)이 여성의 경우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32.9%)로 가장 많았음
-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05)에서도 최초음주동기가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30.0%로 가장 많았음. 제주지역의 경우도 처음 음주를 접하는 동기가 비공식적인 또래집단인 친구로 나타나 10대부터 건전한 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나. 음주상대와 음주장소

- 응답자의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1위는 38.8%로 ‘친구/동창’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장소는 1위가 ‘식당’ (37.6%)으로 나타남
- 음주상대의 경우 전국조사결과도 ‘친구’ (56.8%)가 가장 많았음. 그러나 전국의 경우 배우자/애인이 17.3%로 3위인(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배우자(7.6%)와 애인(1.8%)이 5위, 9위로 나타나 배우자·애인과 음주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 음주장소의 경우도 전국조사결과 ‘식당’ (50.2%)이 가장 많았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대체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경향이 전국이나 제주지역 모두 높음을 알 수 있음

다. 음주차수 및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 음주차수는 1차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2차(44.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1차(47.4%)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20·30대·40대는 2차가 많으며 특히, 20대의 2차(44.0%)가 가장 많았음
- 음주차수 전국조사결과도 1차가 62.3%로 가장 많았음(남성 51.1%, 여성 73.6%)(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 남성의 경우 전국 남성보다 음주차수가 더 높고 2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번 마실 때의 술값은 평균 41,153원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평균 48,407원을,

여성은 평균 31,523원을 지출함. 연령별로 50대가 48,369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조사결과는 평균 91,000원이며, 성별로 남성 139,000원, 여성 43,000원임(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한 번 마실 때 지출하는 평균 술값이 전국보다 낮고, 남녀모두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5. 음주결과

가. 음주행동 결과

○ 음주관련 문제 - 개인

-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전날 밤일이 기억나지 않음)’ 횟수의 경우 월1회 미만 127명(12.7%), 월1회 58명(5.8%), 주1회 19명(1.9%), 거의매일 17명(1.7%)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의 경우 월1회 미만이 20.8%로 여성(4.8%)보다 많았으며, 거의매일도 남성(2.6%)이 여성(0.8%)보다 많았음
- 응답자의 12.0%는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가족, 친구, 의사에게 걱정 또는 술 끊기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28.6%, 여성 5.8%)
- 응답자의 1.8%가 노상취침 경험이 있음(남성 3.4%)
- 술로 인한 ‘카드·현금분실’ 경험은 8.5%로 나타남(남성 14.5%, 여성 2.6%)
- 술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 어려움 경험은 6.0%로 나타남(남성 10.9%, 여성 1.2%)

○ 음주관련 문제 - 가족

-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한 부부싸움/갈등 경험은 응답자의 13.1%로 나타남(남성 22.0%, 여성 4.4%)
- 자녀갈등은 응답자의 4.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8.3%, 여성 1.6%)
- 가정생활 위기 경험도 응답자의 3.9%가 경험했으며, 남성 7.1%, 여성 0.8%로 나타남

○ 음주관련 문제 - 직장생활

- 음주 때문에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응답자는 월1회 미만이 99명(9.9%),

월 1회 59명(5.9%), 주1회 15명(1.5%), 거의 매일 5명(0.5%)으로 나타남. 성별로 월 1회 미만의 경우 남성(15.7%)이 여성(4.2%)보다 많았음

- 지난 1년간 직장생활 문제발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직장생활문제를 경험했으며, 남성 5.6%, 여성 0.8%로 나타남. 실직경험은 0.5%가 경험했으며, 남성(1.0%)만 경험함

○ 음주관련 문제 - 사회

- 지난 1년간 본인의 음주로 인한 타인과의 언쟁 경험을 조사한 결과 4.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8.5%, 여성 0.8%)
- 본인의 음주로 가정·사업장·공공장소의 기물파손을 한 경험은 응답자의 1.8%로 나타남(남성 2.8%, 여성 0.8%)
- 음주운전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0%로 남성 18.8%, 여성 5.4%로 나타남

○ 성별 음주행동 결과

- 남성의 경우는 부부싸움 또는 갈등(22.0%)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 다음이 음주운전(18.8%), 카드·현금·지갑분실 14.5%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음주운전(5.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부싸움 또는 갈등(4.4%), 자녀와의 갈등(1.6%)로 나타남

○ 자신의 음주로 인한 음주행동 조사결과 응답자의 26.7%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41.5%, 여성 12.1%로 나타남. 전국조사결과에서는 전체 35.6%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48.4%, 여성 22.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자신의 음주로 인한 음주관련 문제경험이 적으며, 남녀모두 전국보다 적음을 알 수 있음

나.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 공공장소

- 응답자의 69.2%는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의 노상취침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성적행동의 경우는 21.1%가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언어폭력과 성희롱경험은 각각 29.6%, 4.1%로 나타남

- 성별로 노상취침은 남성 74.4%, 여성 64.1%가 목격함. 성적행동은 남성 27.0%, 여성 16.7%가 목격함. 언어폭력은 남성 38.3%, 여성 21.0%가 경험함. 성희롱은 남성 2.8%, 여성 5.4%가 경험함
- 공공장소에서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상취침과 성적행동을 남성이 더 많이 목격했으며 언어폭력은 남성들이, 성희롱은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

- 응답자의 4.7%는 강제적 성관계, 가정폭력 5.7%, 경제적 곤란 4.5%, 가정·결혼생활 위기 5.7%, 자녀갈등 5.7%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강제적 성관계 경험은 남성 2.6%, 여성 6.7%,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 5.8%, 여성 5.6%, 경제적 곤란 남성 4.2%, 여성 4.8%, 가정·결혼생활 위기는 남성 6.5%, 여성 5.0%, 자녀와의 갈등은 남성 5.8%, 여성 5.6%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여성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정·결혼생활 위기와 자녀갈등도 남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인의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에서의 피해조사결과 응답자의 72.6%가 경험했으며, 남성(78.2%)이 여성(67.1%)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정에서의 피해조사결과 응답자의 13.8%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여성(14.9%)이 남성(12.7%)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조사결과에서는 전체 46%가 타인으로부터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56.7%, 여성 35.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공공장소에서의 피해경험은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다. 음주이유

□ 마실 때의 상황

- 응답자들은 ‘회식’ (30.4%)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들보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의 고단함을 음주로 해소하고 있음. 반면, 여성의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좋아도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술이 여성들의 기분전환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
- 응답자의 음주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술 마시는 문화(27.8%), 직장회식(21.0%)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술 마시는 문화(28.0%), 직장회식(22.8%)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도 술 마시는 문화(27.6%), 직장회식(19.2%)으로 나타남
- 음주이유 조사결과 회식(30.4%)으로 음주를 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음주를 하는 주된 이유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27.8%로 가장 많았음. 제주지역의 음주원인은 회식 및 음주문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제주도민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

- 응답자의 26.6%는 제주도민의 높은 음주율은 ‘권당이라는 친밀한 문화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지역이 좁아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 (22.9%),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 (13.9%),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11.3%)로 응답함
- 권당의 친밀한 문화와 좁은 지역으로 인한 이동의 간편성, 다른 여가문화의 부재가 제주도민의 음주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직장인의 음주 이유

- 직장 내 회식의 33.8%가 회식을 할 때마다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즈니스 접대로 인한 음주는 전혀없다가 60.6%로 가장 많았음
- 전국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직장인의 음주이유는 직장 회식이 77.4%가장 많으며 비즈니스 접대는 24.2%(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로 직장회식이 중요한 음주원인임을 알 수 있음

6. 절주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향

- 절주의향이 ‘없다’가 46.9%로 ‘있다’(3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31.0%로 가장 많았음
- 전체 응답자들에게 만약 본인에게 음주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 의료기관,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가 63.4%로 가장 많았음. 성별로 남성의 58.5%, 여성의 68.3%가 상담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도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절주할 생각이 없다’가 68.7%로 많았으며(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대체로 전국이 제주보다 절주의향이 없음을 알 수 있음

7. 음주인식

가.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관한 인식

- 현재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결과 한국인의 음주행동에는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2.4%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 남성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47.4%)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들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8.7%로 가장 많았음
- 전국 조사결과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여성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가장 많았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제주지역이나 전국이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문제음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

- 문제음주로 인한 가족피해 정도가 약간 심각하다(48.8%)한 것으로 인식하고,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0점으로 나타남(여성 3.26점, 남성 3.13점)
- 사회피해 정도도 약간 심각하다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3점으로 나타남(여성 3.33점, 남성 3.13점)

다. 본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

- 77.8%가 자신의 음주습관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습관인식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의 63.8%가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는 73.2%가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8. 절주관련 정책인지도 및 정책욕구

가. 홍보 및 예방교육 경험

- 응답자의 절반이상(54.0%)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절주 캠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모두 절주 캠페인 경험 ‘없다’가 각각 53.6%, 54.4%로 나타남. 절주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응답자의 94.7%가 예방교육 경험 ‘없다’로 나타나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의 경우도 절주캠페인 경험이 ‘없다’가 57.2%로 남성은 54.6%, 여성은 59.8%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전국이 제주지역보다 절주 캠페인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서비스 이용경험 및 관련 기관 인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모른다’가 79.5%로 나타남. 보건소의 경우는 ‘모른다’가 35.2%, 알코올 남용·의존자 관리서비스 내용도 ‘모른다’가 85.6%로 나타남

- 알코올 관련 자조모임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모른다’가 82.9%,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의 경우 ‘모른다’가 73.2%,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 서비스 내용의 경우도 ‘모른다’가 78.4%로 나타남. 관련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다. 정책욕구

- 응답자들은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는 1순위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35.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27.6%),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공장소 지정’ (22.6%)을 원했음.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1순위로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않는 업소 처벌 강화’ (62.3%), ‘도내잡지, 신문, 방송, 옥외광고에 청소년의 음주를 유도·권장하는 광고규제’ (17.4%),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후원 금지’ (13.0%)를 원했음
- 음주예방교육정책의 경우 응답자들은 1순위로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 (47.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도민 참여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23.2%), ‘음주 예방교육내용에 스트레스해소 및 관리 프로그램 포함’ (21.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정책의 1순위로 응답자들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치료·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 (49.9%), ‘문제음주자 가족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확대’ (19.8%),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 더욱 확대’ (19.4%),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10.9%)을 원했음

제5장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¹⁾

가. 음주행태

-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 고위험 음주율의 증가
 - 조사결과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 고위험 음주율이 2014년 「지역 사회 건강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보다 높고, 고위험음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연간음주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20대 여성들은 폭음을 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량과 음주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들과 대학생들 대상의 절주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전문직과 기능/기계/조립직의 음주율, 음주량, 음주빈도, 폭음을 높음
 - 직업별로 전문직일수록, 생산현장의 기술직일수록 음주량과 음주빈도, 폭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실과 작업장에서의 개인 안전 확보 및 일의 능률을 위해 전무직과 생산직 대상 절주교육이 필요하며 직장 내 음주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음주상황

- 고등학교 대상 음주문제예방교육 필요
 - 제주지역 남성들의 음주량, 음주빈도, 고위험음주율이 여성보다 높음. 남성 응답자의 최초 음주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로 나타남
 - 남성들의 최초 음주동기 또한 또래집단의 영향이 높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1) 조사결과 요약내용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시사점 중심으로 요약함

○ 식당에서의 음주량 규제 필요

- 응답자들은 식당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1인이 1회당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을 규제함으로써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1차만 마시는 음주문화 조성 필요

- 음주차수를 조사한 결과 남자들은 2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음주를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하는 20대·30대·40대도 2차가 가장 많았음

다. 음주결과

○ 개인의 음주문제로 개인의 건강문제, 가족갈등, 직장 내 어려움 경험

- 17명의 응답자는 매일 ‘블랙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12%는 가족 또는 친구·의사에게 술 끊기를 권유받고 있음
- 응답자의 1.7%는 노상취침을 경험했으며, 카드와 현금을 도난(8.5%)당하기도 했으며 음주로 직장생활문제(3.2%)와 실직(0.5%)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로 인한 부부싸움/갈등/자녀갈등과 친구관계/타인과의 언쟁 등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부부싸움/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여성은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여성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가정·결혼생활의 위기를 응답자의 5.7%, 자녀와의 갈등 5.7%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문제자에 대한 치료 외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가족친밀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음주관련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이 필요함

라. 음주이유

- 술 마시는 문화를 대체할 가족, 모임 등 유형별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필요
 - 제주지역의 높은 음주율의 이유는 친밀한 권당문화, 좁은 이동거리,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로 나타남
 - 모임·단체 회식 때도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개발이 필요함
- 직장 내 회식 문화를 다른 여가 문화로 대체할 필요성 제기됨
 - 직장 내 회식을 10번 정도 할 때 음주를 하는 경우는 9-10회(33.8%)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의 경우도 9-10회(44.9%)로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음주를 마셨을 때의 상황도 ‘회식’ (30.4%)이 가장 많았음
 - 직장 내 회식문화를 다른 여가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마. 음주인식

- 고위험음주자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남성 고위험 음주자(63.8%)와 여성 고위험 음주자(73.2%)도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들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20대 여성들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필요
 - 고위험음주자의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을 남성보다 더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 여성들의 34.2%가 폭음을 하고 있음
 - 20대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바. 절주관련 정책인지도 및 정책욕구

○ 알코올 관련 기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 필요

- 응답자의 절반이상(54.0%)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절주 캠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79.5%가 모르고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는 3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코올 남용·의존자 관리서비스 내용(85.6%), 알코올 관련 자조모임과 지원 프로그램(82.9%),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73.2%),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 서비스 내용(78.4%) 등 응답자의 70%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

○ 예방교육의무화 필요

- 응답자의 94.7%가 예방교육 경험 ‘없다’ 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응답자들이 음주예방교육을 위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책은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 (47.1%)임
-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함

○ 건전 음주문화 조성 및 청소년·문제음주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응답자들은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는 1순위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35.2%)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1순위로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않는 업소처벌 강화’ (62.3%)를 가장 원했음
-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정책으로는 1순위로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치료·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 (49.9%)를 원했음

2. 개선방안

○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개선방안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개선방안
인식개선 분야	▶ 대중매체를 활용한 음주피해에 대한 홍보강화 ▶ 음주관련 기관 및 지원 정책 홍보 확대
절주 홍보 및 예방 분야	▶ 사회지도층의 절주캠페인 참여를 통한 홍보강화 ▶ 공공기관과 고등학교 내 절주 교육의무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분야	▶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소 연계방안 마련 ▶ 1차만 마시는 음주문화 조성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분야	▶ 음주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쉼터마련 ▶ 문제음주자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가족여가활동지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절차	7

제2장 선행연구

1. 음주관련 개념	11
2. 음주실태관련 연구	13
3. 음주의 원인에 대한 연구	16
4. 음주관련 부정적 영향	19

제3장 음주현황과 국내·외 정책동향

1. 국외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25
가. 멕시코	25
나. 이탈리아	26
다. 노르웨이	27
라. 미국	29
2. 국내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31
가. 음주실태	31
나. 음주관련 법령	33
다. 음주관련 정책	36
3.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37
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 현황	37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39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40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5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9
3. 음주행태	52
4. 음주상황	70
5. 음주결과	78
6. 절주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향	101
7. 음주에 대한 인식	107
8.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110

제5장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9
2. 개선방안	130

참고문헌	135
------------	-----

표 목 차

〈표 1-1〉 연구절차	8
〈표 2-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주관련 용어	12
〈표 3-1〉 2008-2014년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전국)	32
〈표 3-2〉 2009-2012년 253개 시·군·구의 성별 음주기인 사망자 수	32
〈표 3-3〉 2013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비중(전국)	33
〈표 3-4〉 2014년 제주지역 남녀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38
〈표 3-5〉 2013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비중(제주)	39
〈표 4-1〉 제주지역 읍·면·동, 성, 연령별 만 19세 이상 모집단 인구분포(2014. 12.)	46
〈표 4-2〉 조사표본	47
〈표 4-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48
〈표 4-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0
〈표 4-5〉 성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3
〈표 4-6〉 연령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3
〈표 4-7〉 지역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4
〈표 4-8〉 학력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5
〈표 4-9〉 직업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5
〈표 4-10〉 가구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56
〈표 4-11〉 고위험 음주율	57
〈표 4-12〉 성별 음주량	58
〈표 4-13〉 연령별 음주량	59
〈표 4-14〉 지역별 음주량	59
〈표 4-15〉 학력별 음주량	60
〈표 4-16〉 직업별 음주량	61

〈표 4-17〉 가구별 음주량	62
〈표 4-18〉 성별 음주빈도	63
〈표 4-19〉 연령별 음주빈도	64
〈표 4-20〉 지역별 음주빈도	65
〈표 4-21〉 학력별 음주빈도	65
〈표 4-22〉 직업별 음주빈도	66
〈표 4-23〉 가구별 음주빈도	67
〈표 4-24〉 성별 폭음빈도 및 폭음을	68
〈표 4-25〉 연령별 여성 폭음을	68
〈표 4-26〉 연령별 남성 폭음을	69
〈표 4-27〉 최초음주 시작연령	71
〈표 4-28〉 성별 최초음주동기	72
〈표 4-29〉 음주 상대	73
〈표 4-30〉 음주 장소	74
〈표 4-31〉 성별 음주차수	75
〈표 4-32〉 연령별 음주차수	76
〈표 4-33〉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77
〈표 4-34〉 1년간 음주 시 통제불가 횟수	79
〈표 4-35〉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일 중단 횟수	80
〈표 4-36〉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	82
〈표 4-37〉 성별 음주걱정 및 금주 권유 경험	83
〈표 4-38〉 성별 음주행동결과 경험을	84
〈표 4-39〉 성별 지난 1년간 개인안전 및 건강피해 경험 여부 (노상취침/성적행동/치료,약물 장기복용)	85
〈표 4-40〉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부부싸움또는갈등/자녀와 갈등/가정생활위기)	86

〈표 4-41〉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직장생활 문제발생/하는 일에 문제발생/실직경험)	87
〈표 4-42〉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카드,현금,지갑 분실/사회생활,친구 간 문제/타인과의 언쟁)	88
〈표 4-43〉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기물파손/음주운전) ...	89
〈표 4-44〉 성별 공공장소에서의 피해 경험을	90
〈표 4-45〉 성별 지난 1년간 타인의 음주 행태 목격 경험 여부 (노상취침자 목격/ 성적행동 목격)	91
〈표 4-46〉 성별 지난 1년간 타인의 음주 행태 목격 경험 여부 (언어폭력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경험)	92
〈표 4-47〉 성별 가정에서의 피해 경험을	93
〈표 4-48〉 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 가족의 음주행태 경험여부 (배우자의 성관계강요/가정폭력발생/경제적곤란함)	94
〈표 4-49〉 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 가족의 음주행태 경험여부 (가정·결혼생활 위기/자녀와의 갈등)	94
〈표 4-50〉 성별 지난 1년간 음주를 마실 때의 상황	96
〈표 4-51〉 성별 모임 또는 단체 내 회식 시 음주빈도	97
〈표 4-52〉 성별 주된 음주 이유 1순위	98
〈표 4-53〉 성별 제주도민 음주율 높은 이유 1순위	99
〈표 4-54〉 성별 직장내 회식 시 음주빈도	100
〈표 4-55〉 성별 비즈니스 접대음주 빈도	101
〈표 4-56〉 성별·연령별·지역별 절주의향	103
〈표 4-57〉 성별·연령별·지역별 절주의향 없는 이유	105
〈표 4-58〉 성별·연령별·지역별 상담의향	106
〈표 4-59〉 성별 한국인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	107
〈표 4-60〉 문제음주의 가족피해 심각성 인식	108
〈표 4-61〉 문제음주의 사회적 피해 심각성 인식	109

〈표 4-62〉 성별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습관인식	109
〈표 4-63〉 성별 절주 캠페인 경험 유무	110
〈표 4-64〉 성별 음주관련 피해예방교육 경험여부	111
〈표 4-65〉 성별 알콜 관련 서비스 및 기관 인지여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보건소(상담,치료,재활)/ 알콜 남용,의존자 관리)	111
〈표 4-66〉 성별 알콜 관련 서비스 및 기관 인지여부 (알콜관련 자조모임 및 지원프로/ 알콜문제 예방 및 교육/알콜 남용 및 의존자재활) ..	112
〈표 4-67〉 성별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정책 1순위	113
〈표 4-68〉 성별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1순위	114
〈표 4-69〉 음주예방교육 정책 1순위	114
〈표 4-70〉 문제음주자 및 가족위한 정책 1순위	115

그 립 목 차

〈그림 4-1〉 고위험 음주율	57
〈그림 4-2〉 여성의 연령별 폭음율	69
〈그림 4-3〉 남성의 연령별 폭음율	70
〈그림 4-4〉 최초음주 시작연령	71
〈그림 4-5〉 성별 음주차수	75
〈그림 4-6〉 연령별 음주차수	76
〈그림 4-7〉 성별 1년간 음주시 통제불가 횟수	79
〈그림 4-8〉 연령별 1년간 음주시 통제불가 횟수	80
〈그림 4-9〉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일 중단 횟수	81
〈그림 4-10〉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	82
〈그림 4-11〉 성별 음주걱정 및 금주 권유 경험	83
〈그림 4-12〉 성별 지난 1년간 음주 결과	89
〈그림 4-13〉 지난 1년간 공공장소에서의 피해경험	92
〈그림 4-14〉 지난 1년간 가정에서의 피해경험	9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전국비교 고위험 음주율¹⁾이 제주가 20.9%로 3위를 기록함. 2008년 대비 +3.8%p 증가함
- 제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음주기인 사망자 수는 33.8명(2009)에서 37.6명(2012)으로 증가. 전국 31.5명(2009)에서 29.0명(2012)으로 줄어듦(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 성별로 인구 10만명 당 음주기인 사망자 수는 제주와 전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정도 많음. 특히, 제주 남성 51.3명(2009)에서 61.6명(2012)으로 증가함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전체 사망자 3,189명 가운데 1,326명(42%)은 음주관련 질환 사망자임. 10명중 4명이 간암 등 술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음
-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음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2008-2014)에 의하면 제주지역 여성의 월간 음주율²⁾은 2008년 31.1%, 2009년 31.6%, 2010년 38.5%, 2011년 41.6%로 증가했으며 2012년 35.7%로 감소, 2013년 41.6%, 2014년 44.2%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같은 자료에서 제주지역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도 2008년 8.3%, 2009년 6.2%, 2010년 6.3%, 2011년 9.1%로 증가했으며 2012년 6.2%로 감소, 2013년 8.7%, 2014년 9.5%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에서 알코올 중독자 수는 각 지역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4.4%로 추정됨. 제주지역 알코올 중독자 수는 약 17,438명으로 추정됨
- 과음이나 폭음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지장 및 경제활동 저해, 각종 사고, 가족갈등, 폭력 등의 원인이 됨

1)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1년(365일)동안 한달(30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신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2012년 한국사회보건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정영호 외, 2012)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으로 질병(의료비, 간병비, 소득손실, 생산손실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83.0%(6조 1200억원)이며, 사고(산재, 음주운전, 화재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7.0%(1조 2499억원)로 밝히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과 음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개발」(장수미 외, 2010)에 의하면 음주문제자가 가정폭력의 횡수가 더 빈번하며, 폭력의 결과도 심각한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폭력이 더 만성화 되어 여성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부모의 가정폭력과 음주로 인해 혼동된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은 낮은 자존감, 과잉행동,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주의력 결핍 및 과다행동장애, 신체화 증상 등 다양한 행동장애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음주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만성우울증, 불안감, 괴롭힘, 가정폭력,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비행·가출, 부부생활의 어려움,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등 건강한 가족생활을 저해하고 이혼·별거 등 해체의 원인이 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의해 지자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제8조에 의해 과다한 음주의 문제점을 교육·홍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음주정책의 범위를 개인음주문제자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음주정책을 확대해 음주관련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있음
 - 국내 음주정책의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음주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과 음주판매처와 주류세를 통제하는 정책에 집중됨
 - 따라서 제주지역의 음주율을 낮추고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정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주지역의 음주관련정책을 점검하고 제주지역의 음주원인과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조사해 제주도민의 음주관련 인식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제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음주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알코올 중독자 수는 17,438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발생과 음주로 인한 가족 내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음주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해 음주의 원인과 개인·가정·사회적 음주폐해를 파악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조성과 개선할 음주문화·가족정책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국내·외 남녀 음주실태와 관련 법령 및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음주관련 선행연구 고찰

-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음주관련 개념과 용어를 규정하고 정의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설문문항개발을 위해 기존 음주실태조사 및 음주원인, 음주폐해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2) 음주관련 국내외 현황 검토

- 음주관련 통계현황
- 중앙과 제주 지역관련 법령과 관련 정책, 지원 사업 분석
- 국외 음주관련 현황과 정책 분석

3) 제주지역 성인 남녀 음주실태조사 실시·분석

- 제주 지역 남녀의 음주실태파악
- 음주 원인, 음주로 인한 개인·가족·사회적 피해, 음주관련인식, 정책욕구 파악

4)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도출

- 분야별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개선방안 시사점을 논의함
- 주요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안함

3.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남녀 음주실태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검토, 남녀 음주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연구

- 통계청 사회조사·보건복지부 지역건강통계·한국음주문화센터 관련 자료, 음주문제 측정도구 조사, 음주실태 관련연구, 음주피해관련 선행연구 등
- 음주문제 관련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인구비율로 성별·연령·직업고려 한 할당표집 후 가구방문 면대면 조사
 - 조사내용: 음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실태(음주량 · 음주빈도 · 최초음주시기, 폭음 등), 음주로 인한 가족생활피해(정서적 어려움, 가정폭력, 경제활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비행과 가출, 각종 사고와 범죄 등), 음주 원인(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원인), 음주에 대한 인식(음주행동에 대한 인

식, 음주로 인한 가족피해인식),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음주관련 정책인지도, 음주 및 가족정책 관련 욕구) 등

- 조사기간 : 2015. 5.1 ~ 5.8

4. 연구절차

- 본 조사는 남녀의 음주실태와 음주원인, 가족과 사회 내 음주폐해를 파악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조성과 개선할 음주문화와 가족지원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2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음. 또한, 설문지(안)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직장인·음주문제 당사자 등 6명에 대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반영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했음. 실태조사 후 마지막 자문회의를 거쳐 학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음
-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음

〈표 1-1〉 연구절차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제주특별자치도, 국외 음주관련 법과 관련 정책, 사업 및 통계 수집 검토
	▷ 자문회의(1차)		·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2015. 3.13)
2단계	▷ 자문회의(2차)	⇔	·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논의
	▷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5. 4.24~4.27)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5. 4.24~4.27) · 사전조사(2015. 4.6~4.21)
3단계	▷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조사 실시」 (2015. 5.1~5.8)
4단계	▷ 자문회의(3차)	⇔	· 조사결과 및 정책제안 의견 수렴(2015. 9.22)
	▷ 수정·보완 후 완료		· 의견수렴 반영하여 보고서 수정·보완 · 최종 보고서 집필 완료

제 2 장

선행연구

1. 음주관련 개념
2. 음주실태관련 연구
3. 음주의 원인에 대한 연구
4. 음주관련 부정적 영향

1. 음주관련 개념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할 뿐 아니라 허용적인 문화규범을 가지고 있어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만취 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너그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9)
- 문제는 과도한 양의 음주와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중독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흡연에 의한 사망자수보다 음주로 발생한 사망자수가 더 많음을 밝히고 있음(우석균, 2013)
-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대안 수립과 지방정부에서도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음주규제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와 관련해 음주 시작의 저연령화, 음주를 증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우석균, 2013)
- 이처럼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음주문제(alcohol problem) 또는 음주관련 문제(alcohol related problem)로 명명하기도 함. Straus(1984)는 음주문제란 술을 적당한 정도로 조절하여 마시지 못하여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과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또는 알코올 중독(alcoholism)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자신,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함.
- 허은정 외(2001)도 음주관련문제는 음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과 같은 병리적 문제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음주자의 건강, 가정문제, 직장문제 및 법적문제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특히, 알코올 남용·알코올 의존·알코올 중독자를 문제음주자로 정의하기도 함. 류지수·강경화(2012)는 알코올 문제선별도구인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활용해 비문제 음주집단과 문제 음주집단을 나누어 15점 점수를 기준으로 저위험음주군(0-7점)과 고위험음주군(8-15점)을 비문제 음주집단으로, 총점이 16점 이상인 알코올 남용군과 알코올의존군을 문제 음주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미국의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NCA)도 문제음주를 만성적, 진행성,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내성, 신체적 의존, 신체기관의 병적인 변화가 발현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이경옥, 2001에서 재인용)

- 그러나 문제음주자를 김남초 외(2004)는 AUDIT 10문항의 총점이 8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음주로 분류하고 있음. 즉 고위험음주군까지 문제음주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천성수(2002)도 과음과 폭음은 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음주를 마신 결과로 다른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음주자로 봄
- Sweeney(1998)도 문제음주자(problem drinker)를 다르게 정의하는데 알코올중독자라는 표현이 가지는 알코올 중독자(alcoholic)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non-alcoholic)로 범주화 시키는 용어가 아니고, 과도한 음주소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음(김혜련·최윤정, 2003에서 재인용). 백성희 외(2002)도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를 음주관련 문제를 유발시키는 음주행위로 말하며, 최윤영(2007)도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를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 정신,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제음주를 알코올 중독자(alcoholic),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non-alcoholic)로 범주화 시키지 않고 과도한 음주, 폭음, 고위험음주로 인해 자신,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가족갈등, 대인관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주관련 용어³⁾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주관련 용어

구분	용어의 뜻
음주	알코올성 음료를 한잔 이상 마시는 것을 말함(천성수, 2002:222)
월간음주자	최근 한 달 동안 음주를 한번이상이라도 마신 사람
연간음주자	최근 일 년 동안 음주를 한번이상이라도 마신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2013-2014 「지역사회 건강통계」 참고

평생음주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이라도 음주한 사람
월간음주율	최근 일 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마신 사람의 분율(%)
연간음주율	최근 일 년 동안 한번 이상 음주를 마신 사람의 분율(%)
평생음주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이라도 음주한 사람의 분율(%)
고위험음주율	최근 일 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5캔)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3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분율(%)로 정의할 수 있음
음주량	한 번의 술자리에서 음주를 마시는 정도
폭음율	최근 일 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5캔)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3캔)이상을 주 1회 이상 마신 사람의 분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23)
음주빈도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횟수
음주차수	한 번의 모임이나 회식에서 갖는 1차 2차 3차 등 술자리 횟수

2. 음주실태관련 연구

- 음주관련 실태조사를 직장인, 청소년, 대학생, 성인, 국제사회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직장인 음주실태

- 이희종 외(2002)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월 2~4회 음주를 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며, 음주량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5-6잔 정도 마신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과음자가 70%를 넘으며, 실제로 과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적정음주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지나친 음주 때문에 줄어드는 업무능력에 대해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이 음주 후 겪는 업무 상 부정적 경험에 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직장 내 음주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수영(2006)은 251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의 음주실태조사를 통해 직장인의 대부분인 97.2%가 음주자이며, 한 달에 평균 10일정도 음주한다고 밝히고 있음. 음

주량과 과음비율이 높고 음주를 할 경우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1차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향 때문이며, 이들의 음주는 거의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봄. 따라서 직장내 음주에 대한 강압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음주를 줄 일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함

나. 청소년 음주실태

- 김성천 외(2005)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1,6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지난 한달 간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은 28.6%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남자 28.8%, 여자 27.2%로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자주 마시며,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음주를 하는 것으로 밝힘. 폭음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과반수를 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은 과반수이상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폭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강조함. 이들의 최초 음주시기는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교육이 중학교와 더불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경상 외(2012)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2차로 분석해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이 20.6%이며, 청소년음주자 중 위험음주율(남자-소주5잔이상, 여자-소주3잔이상)은 48.8%임을 밝힘. 2007년부터 2011년 청소년음주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평생음주율이 51.0%로 청소년 2명 중 1명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접근성 규제, 판매자처벌, 대리구매자의 처벌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다. 대학생 음주실태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0b)는 4,106명의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대학생들의 월간음주율은 85.4%이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월간음주율의 차이가 5%내외로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학생 못지않게 높으며, 폭음율에서 남학생 42%, 여학생 42.7%로 여학생들의 폭음율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음. AUDIT 검사 결과 저위험 음주자는 52.5%에 불과해 학교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들은 자신이 위험음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전 음주자나 다른 대

학생들은 위험음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학교 측에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음주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천성수(2002)는 대학생의 1,280명을 대상으로 음주관련사고의 원인을 폭음으로 규정하고 대학생 폭음율과 폭음원인을 규명하고 있음. 대학생의 폭음율이 56.9%로 처음 음주권유한 사람이 부모나 집안어른일 경우가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 처음 권유받은 경우보다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5.2배나 높았으며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1.8배가 된다고 밝히고 있음. 대학사회의 음주문화가 변화되어야함을 제안하고 있음

라. 성인 음주실태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0a)은 만19세 이상 성인 2,105명을 대상(제주도 제외)으로 한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여성과 노인에게서 음주율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폭음율 증가 폭이 남성보다 더 큼을 밝히고 있음. 특히, 노인층의 음주율 증가를 강조하면서 노인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음주관련피해경험이 여성보다 남성이 2배 높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피해를 경험하지만 이들의 54.3%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음주피해예방교육보다는 절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류지수·강경화(2012)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0a)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데이터를 2차로 분석해 AUDIT 측정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으며 여성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직장인의 경우가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남성 직장인의 음주문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마. 국제사회 음주실태

- 「OECD Health Data 201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의하면, 2012년 OECD 회원국 34개국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주류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12.3ℓ, 오스트리아 12.2ℓ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프랑스 11.8ℓ, 체코 11.6ℓ와 아일랜드 11.6ℓ, 헝가리 11.4ℓ와 룩셈부르크 11.4ℓ, 독일 11.0ℓ와 슬로베니아 11.0ℓ, 포르투갈 10.8ℓ, 영국 10.6ℓ, 폴란드 10.2ℓ, 스위스 9.9ℓ, 벨기에 9.8ℓ, 한국 9.1ℓ 등으로 나타남. 반면 OECD 평균 9.0ℓ보다 적은 나라는 미국 8.6ℓ, 캐나다 8.1ℓ, 칠레와 그리스 7.9ℓ, 스웨덴 7.3ℓ, 일본 7.2ℓ, 아이슬란드 6.3ℓ, 노르웨이 6.2ℓ, 이탈리아 6.1ℓ, 멕시코 5.7ℓ, 이스라엘 2.7ℓ, 터키 1.6ℓ 순으로 나타남

- 정영호(2014)의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주류판매 제한 연령기준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제한연령기준을 19세로 제한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연령제한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이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 16세에서 18세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통해 2012년 OECD국가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주류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적은 나라들은 주류판매 제한 연령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음주실태연구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연구가 많으며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성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음주량, 고위험음주율, 음주원인, 음주인식 등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 이들이 폭음자나 위험음주자, 문제음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제안 연구가 많음. 그러나 제주지역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를 제주지역을 제외한 선행연구를 통해 음주실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국제사회 1인당 주류소비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83년부터 회원국들의 알코올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제주지역의 음주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3. 음주의 원인에 대한 연구

- 지금까지 음주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음주의 원인을 유전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 유전적 원인

- 과도한 음주의 원인을 생물학적 견해에서 찾으며 김상대 외(2001)는 천성적으로 알코올을 거부하기 어려운 체질이 있다고 봄
- 김광일(1989)은 가족력에서 알코올 중독의 음주의 원인을 설명함. 즉 알코올 중독은 특정 가족에서 더 많이 존재하며, 가족력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더 사회적 기능과 신체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음주문제의 원인을 유전적·가족력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음주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켜 사회구조적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심리적 원인

-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는 견해임. 스트레스는 업무와 관련된 것과 가정 일 또는 개인 신상 관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소외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과음·폭음을 유발한다고 봄. Greenberg(1995)는 낮은 업무 자율성·능력 활용도·의사결정 참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결과 과음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함
- 반면, Birch(1998)는 직무스트레스로 과음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Conway(1981)도 만성적 음주와 직무 상 스트레스인지는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오히려 Bennett(1998)는 직무스트레스는 음주를 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고 동료들의 음주가 직무스트레스와 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함. 따라서 직장인들의 음주에 대한 규제정책이 개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직장내 음주 규범이나 대인관계적 요인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명함
- 둘째, 가정 일 또는 개인 신상 스트레스는 생활사적 사건(Life event)이 발생하면 개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긴장감의 감소를 위해 과음을 한다고 설명함. Perreia(2001)는 51세부터 61세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생활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Russell(1999)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알코올 사용이 높으며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 분노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개인적 문제로 발생한 부적

절한 정서 상태를 해결 또는 회피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함(김용석, 2001; 이희중·제갈 정, 2002에서 재인용)

- 문제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직장이나 가족 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남성들이 왜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하며, 음주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사회문화적 원인

-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직장 내 회식문화, 취미나 여가활동의 부재, 관련 법규제의 미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직장문화는 음주가 주를 이루는 회식과 접대문화임(양정선, 2012: 6). 직장의 회식자리는 동료와의 단합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정보가 오고가는 조직 안에서의 또 다른 조직을 형성하는 인간관계형성의 자리임. 또한, 술은 초면의 어색함을 깨는 특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고객 또는 사업상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접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됨. 이러한 직장 내 음주문화는 30대·40대의 음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전통적으로 일상 속에서의 여가생활의 하나였으며, 오순환·김대우(2004)는 별 다른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주 의존도는 높다고 밝히고 있음. 음주자들이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음주를 선택한 결과로 보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음주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로 보기도 함(우석균, 2012). 우리나라의 음주규제정책은 크게 주류판매 면허제도, 음주연령제한, 가격 및 세금부과, 주류광고제한, 음주운전통제, 절주교육과 홍보, 치료 및 재활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예산부족과 규제관련 법의 부실이 음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주류접근 제한의 경우 음주허용연령만 제한 할 뿐 주류판매장소 및 시간제한, 지역 인구수에 따른 업소제한은 없음

- 음주를 하는 원인에는 가족의 영향, 직장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직장의 회식문화, 음주를 대신할 여가활동의 부족, 음주관련 정책의 미비 등 개인의 심리·가족문제·사회문화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4. 음주관련 부정적 영향

- 음주문제의 심각성은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 성별, 나이, 학력, 인종, 지리적인 위치,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관계 없이, 의사, 판사, 군인, 경찰, 교수와 학생, 최고경영자, 일반근로자, 가정주부까지 발생함. 생애사적으로 인생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후기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미국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97%가 일, 집, 가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김상대 외, 2001:3)
- 음주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인 피해, 가족생활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함

□ 개인 피해

- 음주로 인한 개인피해에 대해 김상대 외(2001:2)는 장기적인 알코올 소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80%이며, 음주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15배 정도 높은 자살시도 비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17)은 알코올은 적어도 60개 이상의 질병들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질병 원인의 4%정도를 차지하여 개인의 해로운 음주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가족생활의 피해

- 음주문제로 인한 가족피해는 부부갈등, 자녀가 부모의 음주행동학습, 가족의 역기능과 자녀와의 갈등,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등으로 나타남
- 부부갈등의 피해경우 음주벽이나 알콜중독증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별거를 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실제로 이들 중 33-40%가 불안한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김상대 외, 2001:2)
- 자녀의 부모음주행동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는 조덕임(2013)은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면서 음주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음주남용자가 될 확률이 4배 내지 5배가 됨을 밝히고 있음
- 가족의 역기능과 자녀와의 갈등의 경우 문제음주자의 행동으로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혼돈과 긴장, 실망감 등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며 말다

툼, 폭력, 정신적 위협을 경험함. 장수미(2001)는 부부갈등(72.8%), 가정폭력(47.7%), 자녀와의 갈등(39.7%) 등 음주로 인한 가정문제가 심각하며 서로에게 미움과 분노, 청소년자녀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최윤정(2004:55-56)은 문제음주자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반가정보다 더 많이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응집력도 부족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도 낮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 결과 문제음주자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비음주 가정의 자녀보다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제음주자 가정의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해 Black(1986: 213-231)은 문제음주자의 자녀(COAs: Children of Alcoholics)와 비문제음주자녀(non-COAs)의 적응에 대한 비교연구결과를 통해 문제음주자 가정의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 죄의식, 화, 수치심, 괴로움, 두려움 등 격렬한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사회경제적 피해

- 음주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직장에서의 사고 및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망 등으로 살펴보고자 함. 김상대 외(2001:3)는 상습음주 직장인이 육체적, 정신적, 가족적,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음
- 직장에서의 사고 및 생산성저하의 경우 알콜 중독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4배 또는 그 이상 높은 비율로 결근하며, 미국의 경우 알콜오남용으로 인한 미국산업체의 연간손실액은 270억 달러(약35조원)로 추정되고 있음
- 김상대 외(20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0% 이상의 직장인은 음주가 다른 사람과 사교의 기회를 넓혀준다고 믿고 있으며 65-82%의 직장인들은 ‘음주를 통해 근육의 긴장감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함. 70% 이상의 직장인들은 음주를 통해 불안감이나 근심도 떨쳐 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음주를 더욱 촉진한다고 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조직의 인화단결을 위해서도 마셔야하며 많이 마셔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 더욱 친밀감을 주게 되는 직장 음주문화가 문제임을 밝히고 있음
- 알콜 남용으로 인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큰 비중 차지하며 미국의 경우 취중 운전으로 매년 25,000명이 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의

50%에 해당하며 동시에 15-24세 사이의 첫 번째 사망원인이기도 함(김상대 외, 2001:2)

- 우리나라의 경우 삼육대학교 알코올문제연구소(2009)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0년 379명, 1995년 690명, 2000년 1,2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13.0%, 부상자는 14.7%, 사망자는 22.7%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2,30대 남자가 대부분으로 2013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1조 3,3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한 제주지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음주행태, 음주율이 높은 원인,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제외한 개인피해, 가족생활피해, 사회적 관계피해를 포함해 음주인식, 직장에서의 음주행태, 정책욕구까지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함

음주현황과 국내·외 정책동향

1. 국외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2. 국내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3.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1. 국외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OECD 국가 34개국(평균 9.0ℓ)중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이 가장 적은 나라는 1위 터키(1인당 1.6ℓ), 2위 이스라엘(1인당 2.7ℓ), 3위 멕시코(1인당 5.7ℓ), 4위 이탈리아(1인당 6.1ℓ), 5위 노르웨이(1인당 6.2ℓ), 미국은 12위(1인당 8.6ℓ)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13위(1인당 9.1ℓ)로 OECD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이 가장 적은 상위 5개국 중 특정 종교로 인해 음주를 통제하고 있는 터키, 이스라엘을 제외한 멕시코,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들의 음주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함⁴⁾

가. 멕시코

1) 음주현황

- 멕시코는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과 농업, 종교에 부합된 의식에서 공동체가 음주를 하는 문화임
- 그러나 2002년 멕시코 내 질병 총 부담의 9.0%가 알코올 사용이며, 알코올 관련 사망자의 비율이 남자 15.3%, 여자 2.4%로 나타남
- 2007년 알코올 일일 소비량은 드물게 보고되지만, 각 행사때마다 높은 수준의 사용량을 보임

2) 음주관련 정책

- 이와 관련해 멕시코는 국경지역인 티와나주에서 알코올 통제정책을 실시해 영업시간제한, 알코올 판매사업장 제한, 알코올 광고·배너·사인들을 없애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행함
- 영업시간의 경우 티와나주 bar들은 새벽 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음. 알코올소매

4) 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의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2009)에서 요약 발췌함

점과 문제 사업장 수를 없애고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관광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시행하고 있음

나. 이탈리아

1) 음주현황

- 이탈리아의 15세 이상 국민 중 23.0%는 금주를 하며, 15.0%는 간헐적인 음주를 함
- 알코올 소비와 사회적 지위는 반비례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알코올 소비는 감소함.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량의 질 높은 와인을 낮은 빈도로 구입함. 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질이 낮은 와인을 도매상에서 다량으로 구입함
-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알코올 소비량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비해 높고, 특히, 교사는 대부분 여성이며 교사집단은 다른 전문 직업군에 비해 평균 알코올 소비량이 낮음
- 이탈리아의 경우도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 중 30-50%가 알코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응급실 환자 중 약 20%가 알코올 관련사고로 내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음주관련 정책

- 이탈리아의 음주정책은 음주나이를 제한하고 특정장소에서 음주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젊은이의 음주율을 낮추고 있음
- 음주허용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서 젊은이에게 음주판매를 제한함. 고속도로 주변 상점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1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증류수와 와인·맥주의 부과세를 높이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 알코올 광고 금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함
 -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 15분 간 광고
 - 보건당국을 제외한 치료기관과의 알코올 소비와의 연계
 - 미성년자에게 음주 장면 노출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알코올과 증류수에 관한 직·간접적 광고

-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알코올과 증류수에 관한 광고입
- 이탈리아는 두 가지 중요한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나는 Permanent Observatory on Youth and Alcohol이라는 집단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해 알코올 남용의 위험성과 책임감 있는 음주행동에 대한 젊은이를 위한 젊은이라는 캠페인으로 디스코텍의 디제이, 지방과 전국 라디오 방송, 포스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 또한, 지역학교내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음주피해에 관하여 그린 그림을 옥외에 전시하는 행사임
-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한달간 구금과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로 정지됨. 재범자의 경우는 더 오랜 기간의 구금형에 처해짐. 2001년에 혈중알코올농도(BAC)제한 수치는 0.05%로 확정되었음

다. 노르웨이

1) 음주현황

- 노르웨이는 금주율이 높고 음주자의 음주빈도와 음주 소비량이 낮아 음주소비율이 전형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함
- 2000년도에 노르웨이의 음주 소비수준은 유럽국가중 가장 낮음. 과거 1830년대 개인이 자유권의 하나로 술을 제조하면서 노르웨이의 음주 소비 수준은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음주문제가 심각했음
- 노르웨이는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럽국가중 강력한 음주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음주 소비 정책의 주된 목적도 알코올과 관련된 보건문제와 사회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임
- 음주 오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소유의 음주제조 독점회사운영, 알코올 음료의 가격을 높이고 알코올 수입과 관련된 국경수비와 엄격한 여행자 허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귀국하는 노르웨이인들에게 법적으로 증류수 1리터와 와인 2리터, 맥주 2리터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함

2) 음주관련 정책

- 노르웨이의 음주정책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한 음주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행하고 알코올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가격정책 실시, 알코올 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형사상 처벌을 활용, 음주운전 및 청소년 음주와 같은 특정 음주문제를 엄격하게 다룸
- 노르웨이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음주제조와 판매에 대한 도매 및 생산에 관한 면허장의 발급과 감독을 수행하게 함. 또한, 음주광고 금지여부와 음주 중간 판매상에 관한 감독, 정보제공,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류수입에 관한 허가여부도 수행하고 있음. 특정 개인이 알코올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시험 및 감독함. 알코올과 약물 문제예방과 관련된 NGO단체의 공적 자금을 감독 및 배분함
- 도매면허는 공인주류판매상에게 주류의 수입 및 수출과 국내에서의 도매판매를 허가하고 있지만 주류제조는 할 수 없음. 알코올 음료는 허가를 받은 식당과 증류수·와인·도수 높은 맥주를 취급하는 정부산하의 주류판매전문점(Vinmonopolet), 맥주를 취급하는 잡화점이나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맥주독점 업체들에게만 판매됨. 점포 내 소매 판매에 관한 면허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함. 면허기간은 지방자치 위원회가 결정하며 면허의 자동 갱신은 허가되지 않으며, 갱신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심리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주류판매전문점(Vinmonopolet)의 개점시간은 요일별 시간에 의해 엄격히 제한됨
 - 월요일~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일요일: 폐점
- 높은 주세와 가격정책으로 술 한잔의 값이 거의 6천원 이상임. 주류의 높은 가격은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면허세에서 비롯됨. 면허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리 책정됨
- 노르웨이는 1997년에 제정된 알코올 법(Alcohol Act)에 의해 알코올 도수 2.5도 이상의 모든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알코올 광고금지법에 의해 방송, 신문, 주간지, 저널 및 기타 인쇄물, 조명광고, 포스터 광고, 식당 내 설치물 및 기자재 이

용 광고행위를 금하고 있음

- 알코올 문제 예방 정책의 핵심은 알코올 관련 공교육임. 1980년대 이후부터 금주운동이나 절대 금주자 연합과 같은 자발적 기관에 일임되어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금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금주단체와 약물반대단체에게 재정기금을 출자해주고 있으며, 알코올을 판매하지 않는 호텔과 음식점을 위한 펀드는 시세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음주운전 관련 규정 또한 엄격해 1912년 음주운전 관련법규를 제정했으며 자동차관련 법규내에 운전자의 금주운전을 명시해 혈중알코올 허용농도를 2001년 1월에는 0.02%로 낮추었음. 위반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과태료부과, 구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됨
- 노르웨이의 알코올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지역 및 지방자치체에 기반 한 종합적 치료체계구축임. 기본적 치료원칙은 자발적 치료지만, 1993년부터 최대 3개월로 제한한 의무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녀에게서 발생하는 문제가 점차 대두되면서 전가족적 수준에서 알코올 치료가 행해지고 있음

라. 미국

1) 음주현황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음주를 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음주는 점점 줄어듦.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마시며, 계층별로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이 마심
 - 상류층은 비밀리에 음주를 하지만 술에 취하면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갈 수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시 체포되면 변호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항의할 수 있지만 하류층의 경우는 만취하여 길에서 비틀거리다 체포되는 경우가 많음
- 2000년도에 미국의 알코올 소비는 세계 평균 알코올 소비량보다 약 40%나 더 높았음. 그 결과 미국에서는 알코올이 담배를 제치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가 되었음
 - 2002년도에는 알코올로 약 323,000명이 사망함

- 미국 내 사고 중 알코올 관련 사망은 60%임, 거의 40%는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들임
 - 알코올과 관련 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남성들이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77.4%가 청소년과 젊은 성인임
-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과음자들 중 12-14세 사이의 과음자들이 알코올의 92%를 소비함. 알코올의 96%는 15-17세 사이와 한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18-2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음

2) 음주규제 정책

- 미국은 알코올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의 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 조정하고 있고, 엄격한 주류판매면허제도, 주류종사자에 대한 교육, 술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 제도, 신분증 확인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소매점에서는 1인이 1회당 살 수 있는 술의 양을 규제하고 있음
- 알코올을 구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를 미국은 최소 연령 21세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질병관리와 예방센터에서는 음주 허용 나이가 낮아지면 교통사고가 10% 증가, 높아지면 16%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함
-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주정부가 알코올을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주류의 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조정하며, 취급상점도 주정부가 직접 통제함. 나머지 주에서는 지역별 면허수를 정해놓고 엄격한 주류판매면허제도를 시행해 주류소매점(off-premise)과 주점 및 식당(on-premise) 등에서 관련 면허를 심사해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각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판매시간을 두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경우는 2개의 법률 통한 예방정책이 있음
 - 의무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하며 이후 위반 시 벌금을 내야함
 - 2003년 “DRY Law“(밤12시 이후 시설들에서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음)를 실행하고 있음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이 가장 적은 나라를 중심으로 음주현황과 음주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음주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음주판매시간의 제한과 콘서트나 스포츠행사, 고속도로 주변에서 음주판매를 규제하고 알코올 음료의 가격을 높여 미성년자와 20대 젊은이들의 음주접근성을 차단하고 있음. 또한, 공교육에서 음주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음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음주억제만을 강조하고 있어 개인이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국내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가. 음주실태

- 국내 음주실태를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사망수준,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함
- 먼저,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군·구 단위별 월간음주율은 최소 43.7%에서 최대 69.2%로 나타남. 중앙값은 60.8%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월간음주율의 중앙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 54.1%, 2009년 55.7%, 2010년 56.5%, 2011년 58.3%, 2012년 58.5%, 2013년 59.5%, 2014년 60.8%임
 - 지난 7년간 한 달에 한번정도 음주를 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시·군·구 단위 고위험음주율도 최소 9.9%에서 최대 32.8%로 나타남. 중앙값은 18.7%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고위험음주율의 중앙값은 2010년까지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 18.4%, 2009년 16.3%, 2010년 14.9%, 2011년 18.2%, 2012년 16.1%, 2013년 18.6%, 2014년 18.7%임
 - 2014년 음주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 고위험음주자는 대략 6명중 1명 정도임을 알 수 있음

〈표 3-1〉 2008-2014년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전국)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월간 음주율	54.1	55.7	56.5	58.3	58.5	59.5	60.8
고위험 음주율	18.4	16.3	14.9	18.2	16.1	18.6	18.7

○ 또한, 2014년 시·군·구 단위 음주시작연령도 최소 19.9세에서 최대 22.2세로 나타남. 중앙값은 20.9세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시작연령의 중앙값은 21세로 변동이 없는 추세임

- 2008년 21.7세, 2009년 21.8세, 2010년 21.5세, 2011년 21.4세, 2012년 21.3세, 2013년 21.0세, 2014년 20.9세임
-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처음 음주를 한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의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사망수준 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 관련성」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에 기인한 사망자수는 남자는 16,147명(32.6%), 여자는 1,856명(15.2%)이었음. 음주가 간접적으로 기여한 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남자 8,866명(17.9%), 여자 982명(8.0%)으로 나타났으며, 음주가 간접적으로 기여한 해악으로 인한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남자 24,592명(49.6%), 여자 9,403명(76.8%)임

- 음주에 기인한 사망자수와 음주가 간접적으로 기여한 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표 3-2〉 2009-2012년 253개 시·군·구의 성별 음주기인 사망자 수

(단위: 명, %)

성별	질환구분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	음주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질환	음주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해악으로 인한 질환
남자	16,147(32.6)	8,866(17.9)	24,592(49.6)
여자	1,856(15.2)	982(8.0)	9,403(76.8)

- 2014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 3,399억원으로 매일 음주자 생산성 손실비중이 48.7%, 조기사망비중이 26.4%, 교통사고 재산손실비중이 7.8%, 직접의료비비중이 4.6%, 자동차보험지출료비중 4.5%, 입원내원진료 생산성 손실비중이 3.5%, 산재보험지출분비중 1.9%, 간병비·교통비비중 1.3%, 화재사고 재산 손실비중이 1.0%로 나타남

〈표 3-3〉 2013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비중(전국)

(단위: %)

전체	매일 음주자 생산성 손실	조기사망	교통사고 손실	직접 의료비	자동차보험 지출료	원입내원 진료 생산성 손실	산재보험 지출분	간병비·교통비	화재사고 재산손실
21조3399억원 (100.0)	48.7	26.4	7.8	4.6	4.5	3.5	1.9	1.3	1.0

나. 음주관련 법령

-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법령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일부개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제공,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목적이 있음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제6조),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광고 금지(제7조),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대한 교육·홍보(제8조),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원(제8조),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 표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세법

- 「주세법」(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은 주류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징수하고 주류제조 및 판매를 규제할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주류의 정의(제3조), 전통주의 정의(제3조), 주류의 종류(제4조)를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제6조)와 주류 판매업면허(제8조), 주세의 과세표준(제21조)과 세율(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接客업 포함)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4항)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일부개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 도모·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국민보건에 증진할 목적이 있음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44조)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2699호, 2014. 5. 28., 일부개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이 있음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제2조 4항)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출입·고용 금지(제2조 5항), 가정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약물 등에 접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못하도록 노력해야하며(제3조),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출입 금지 및 유해한 약물의 유통·고용피해·학대 등을 신고·고발해야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함(제4조)
-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함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1항), 강제 음주 측정 명시(제44조 2항·3항),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페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44조 4항)
- 또한, 제68조에서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음주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안전·보건의를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 등의 정부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으로는 금주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지정·표지판 부착, 절주교육 지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청소년 음주예방 및 교육·홍보관 설치, 알코올 사용 장애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 개최, 절주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32개 시·도, 시·군·구⁵⁾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

5) 이 조례를 제정한 32개 시·도, 시·군·구를 살펴보면, 가평군, 거제시, 경기도,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김포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

다. 음주관련 정책

-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정책은 크게, 주류판매 면허제도, 음주연령제한, 가격 및 세금 부과, 주류광고제한, 음주운전통제, 절주교육과 홍보, 치료 및 재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주류판매 면허제도란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를 판매·중개하고자 할 때 면허를 취득해야함을 의미함
 - 주류판매 면허의 유형에는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소매업 및 의제판매업 면허, 유흥음식업소 주류판매 면허, 관광지정 업소 주류판매 면허가 있음
 - 주류소매업 및 의제판매면허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자격 요건이 없으며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⁶⁾가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2009:433-434)
- 음주연령제한이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음주를 마실 수 없으며 주류판매업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할 수 없음
- 가격 및 세금부과의 경우 주세체계는 종가세이지만,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 종량세는 주정의 경우 주류제조장의 출고 수량,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수량
 - 종가세란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에 세율 적용. 수입시에는 수입신고할 때의 가격이 기준이 됨
 - 전통주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의 세율, 시설기준, 민속주 제조자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광역시 서구, 목포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종특별자치시, 원주시, 인천광역시 남구, 화성시 임

- 6) 의제판매업자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첫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둘째,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지만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자, 셋째, 독주와 약주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도 포함 됨

- 주류광고제한의 경우 음주를 미화하거나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내용변경 및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기에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TV의 경우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미성년 대상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을 규제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통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미만인 경우에도 적발시 형사입건 면허정지 등 강력하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광질판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고 있음
- 절주교육과 홍보의 경우 보건교육 내용에 절주에 관한 내용을 실고 있으며, 보건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정부 및 공익단체, 종합병원 및 의료보험자 등임
- 국내 음주현황과 음주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자적인 음주관련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음주나이규제, 음주판매업소, 음주운전처벌 등 각 문항들이 흩어져 있는 형편임. 음주관련 정책 또한, 느슨한 면허허가정책, 전통주의 육성 등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제외하고는 미흡함을 알 수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음주관련 정책

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현황

- 제주지역 음주현황을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사망수준,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함
-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의 월간음주율은 64.6%로 1위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충북 21.7%, 강원 21.1%, 제주 20.9%로 3위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는 제주지역 남녀 월간음주율이 각각 78.4%, 44.2%로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음주율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1%, 여성 9.5%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3.5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3-4〉 2014년 제주지역 남녀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단위: %)

	남	여
월간 음주율	78.4	44.2
고위험 음주율	31.1	9.5

- 같은 자료에서 연간 음주폐해 경험(타인의 음주로 인하여 소란, 폭행, 성추행, 작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 음주운전 사고)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5.0%로 남성은 6.0%, 여성은 4.0%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간 음주운전 경험(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률은 전체 16.8%에서 남성 23.0%, 여성 7.1%로 남성들이 3배정도 더 많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제주지역의 경우 음주시작연령은 전체 21.3세이며, 성별로 남성은 19.6세, 여성은 24.4세로 나타남
- 2014년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의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사망수준 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 관련성」에 의하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음주기인 사망자 수는 33.8명(2009)에서 37.6명(2012)으로 증가함. 전국 31.5명(2009)에서 29.0명(2012)으로 줄어들음
 - 성별로 인구 10만명 당 음주기인 사망자 수는 제주와 전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정도 많음. 특히, 제주 남성 51.3명(2009)에서 61.6명(2012)으로 증가함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전체 사망자 3,189명 가운데 1,326명(42%)은 음주관련 질환 사망자임. 10명중 4명이 간암 등 술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음
- 2015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의하면 2013년 제주지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3,236억원으로 전국(21조 3,399억원)의 1.52%로 추정하고 있음
 - 2013년 제주지역의 음주로 인한 1인당 경제적 비용은 68.7만원으로 전국 49.8만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생산성 손실비용 또한 52.8만원으로 전국 39.2만원보

다 많음

- 제주지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3,236억원으로 매일 음주자 생산성 손실비중이 49.6%, 조기사망비중이 25.1%, 교통사고 재산손실비중이 10.3%, 자동차 보험지출분비중 6.4%, 직접의료비비중이 3.8%, 입원내원진료 생산성 손실비중이 2.2%, 화재사고 재산 손실비중이 1.1%, 간병비·교통비비중 0.9%, 산재보험지출분 비중 0.6%로 나타남

〈표 3-5〉 2013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비중(제주)

(단위: %)

전체	매일 음주자 생산성 손실	조기사망	교통사고 손실	자동차보험지출분	직접 의료비	원입내원 진료 생산성 손실	화재사고 재산손실	간병비·교통비	산재보험 지출분
3,236억원 (100.0)	49.6	25.1	10.3	6.4	3.8	2.2	1.1	0.9	0.6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관련 조례는 없으며 도민의 건강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2007년에 제정했으며,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지사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필요한 사항을 표기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2006년에 제정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 증진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제공·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가정의 안정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2013년에 제정했으며,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향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⁷⁾

-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 관련 정책은 크게, 예방사업인 절주(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관리)홍보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관리(절주)사업

- 보건소 중심의 절주 교육 및 홍보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절주교육 및 홍보의 경우 사업유형을 교육 및 홍보와 조기선별 및 상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교육 및 홍보: 사업주체는 보건소이며, 협력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단체, 학교이며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청소년, 임산부, 직장인, 노인) 등 대상자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조기선별 및 상담: 사업주체는 보건소이며 협력기관은 지역병원(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며 대상은 지역사회 고위험음주자로 조기발견 및 상담 등 개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알코올중독 문제 관리를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치료 및 재활)

- 음주 및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의 경우 도에서는 광역단위 중독관리사업을 추진

7)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기초단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연강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단위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제주·서귀포시 : 기초단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예산 : 개소당 141,050,000원(기금50%, 도비50%)
- 사업대상 : 알코올 의존자, 문제음주자, 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중독자관리사업 : 중독 대상자를 발견하여 등록 및 연계, 위기개입,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회복을 돕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지원
 - 중독자가족 지원사업 :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지원
 -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과 건전한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제공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약물오남용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연계하여 주취피의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활프로그램 및 치료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월간음주율과 고위음주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관련 정책으로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알코올 중독자가족 중심의 자조모임운영, 원하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음주예방교육실시 등 소극적인 음주관련 예방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건전한 음주환경조성과 과음과 폭음을 줄여 도민의 건강한 음주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음주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 음주행태
4. 음주상황
5. 음주결과
6. 절주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향
7. 음주에 대한 인식
8.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 「제주지역 남녀음주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조사모집단으로 함

○ 조사 대상 선정

-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 ‘가구’는 통계청 가구 정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 각 읍면동 지역 조사지점(읍·면·동·리 사무소 기준)에서 왼쪽으로 매 5번째 가구방문
 - . 해당가구 유효응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사당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 선정

나. 표본설계

○ 표집방법은 지역(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할당 표집을 이용하였음

- 읍면동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인구의 성,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층화할당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표본이 모집단인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함
- 2014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수는 <표 4-1>과 같음

〈표 4-1〉 제주지역 읍·면·동, 성, 연령별 만 19세 이상 모집단 인구분포(2014. 12.) (단위: 명)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478,491	42,096	37,922	43,723	41,664	56,813	51,639	47,600	45,150	47,227	64,597
제주시 전체	350,075	31,946	28,810	33,229	32,525	42,040	39,614	34,035	32,709	31,770	43,397
한림읍	16,237	1,307	1,026	1,212	1,066	2,016	1,417	1,774	1,485	1,989	2,945
애월읍	25,539	1,891	1,599	2,274	1,960	3,213	2,399	2,698	2,194	3,056	4,255
구좌읍	13,865	995	864	1,088	797	1,579	951	1,447	1,185	1,878	3,081
조천읍	16,606	1,395	1,179	1,311	1,124	1,982	1,536	1,733	1,507	2,046	2,793
한경면	7,170	437	403	539	356	836	494	760	613	1,049	1,683
추자면	1,839	128	72	142	89	218	91	230	156	307	406
우도면	1,441	109	96	123	65	168	88	148	131	182	331
일도동(건입동)	39,208	3,860	3,435	3,468	3,363	4,184	4,207	4,025	4,199	3,683	4,784
이도동	44,104	4,424	4,358	4,483	4,618	4,945	5,255	4,014	4,326	3,360	4,321
삼도동	19,002	1,709	1,524	1,756	1,630	2,114	2,008	1,821	1,856	1,944	2,640
용담동	20,193	1,916	1,668	1,843	1,634	2,227	1,998	1,996	1,940	2,145	2,826
아라·오라동	23,123	2,068	1,855	2,571	2,543	2,919	2,680	2,134	1,986	1,915	2,452
연동	33,465	3,517	3,196	3,344	3,747	3,824	4,459	3,175	3,439	2,137	2,627
노형동	38,127	3,777	3,487	3,484	4,020	5,370	6,027	3,396	3,459	2,170	2,937
화북동	18,801	1,790	1,689	1,941	1,960	2,294	2,387	1,842	1,673	1,363	1,862
삼양·봉개동	13,591	1,222	1,073	1,599	1,440	1,620	1,446	1,258	1,130	1,197	1,606
이호·외도·도두동	17,764	1,401	1,286	2,051	2,113	2,531	2,171	1,584	1,430	1,349	1,848
서귀포시 전체	128,416	10,150	9,112	10,494	9,139	14,773	12,025	13,625	12,441	15,457	21,200
대정읍	14,068	1,024	892	1,043	877	1,604	1,243	1,504	1,306	1,862	2,713
남원읍	15,072	1,192	1,049	1,108	910	1,692	1,243	1,642	1,410	2,035	2,791
성산읍	11,855	859	698	826	657	1,312	861	1,483	1,186	1,661	2,312
안덕면	8,125	645	508	635	511	984	638	862	734	1,047	1,561
표선면	9,300	702	653	717	554	1,082	836	1,013	932	1,186	1,625
송산·영천·효돈동	12,219	930	839	934	733	1,354	1,031	1,391	1,185	1,650	2,172
정방·중앙·천지동	9,547	724	603	762	635	1,002	925	1,064	1,202	1,140	1,490
동홍동	16,313	1,391	1,354	1,460	1,574	2,056	2,149	1,537	1,541	1,366	1,885
서홍·대륜동	15,457	1,308	1,267	1,530	1,383	1,781	1,554	1,484	1,437	1,629	2,084
대천·중문·예래동	16,460	1,375	1,249	1,479	1,305	1,906	1,545	1,645	1,508	1,881	2,567

주: 지역별 표본할당 시 해당 읍면동의 인구가 너무 적어 각 표본할당(성, 연령) Cell이 1명 미만인 할당되는 경우 '선거
구획정 방식'을 준용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표본수를 선정함

○ 최종 할당된 조사표본은 <표 4-2>와 같음

<표 4-2> 조사표본

(단위: 명)

구분	총계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1,000	89	79	91	86	118	109	100	95	98	135
제주시	730	67	60	69	67	87	83	72	68	66	91
한림읍	34	3	2	3	2	4	3	4	3	4	6
애월읍	54	4	3	5	4	7	5	6	5	6	9
구좌읍	29	2	2	2	2	3	2	3	3	4	6
조천읍	34	3	2	3	2	4	3	4	3	4	6
한경면	16	1	1	1	1	2	1	2	1	2	4
일도동(건입동)	82	8	7	7	7	9	9	8	9	8	10
이도동	93	9	9	10	10	11	11	8	9	7	9
삼도동	40	4	3	4	3	4	4	4	4	4	6
용담동	42	4	4	4	3	5	4	4	4	4	6
아라·오라동	48	4	4	5	5	6	6	5	4	4	5
연동	71	7	7	7	8	8	9	7	7	5	6
노형동	80	8	7	7	9	11	13	7	7	5	6
화북동	41	4	4	4	4	5	5	4	4	3	4
삼양·봉개동	29	3	2	3	3	3	3	3	2	3	4
이호·외도·도두동	37	3	3	4	4	5	5	3	3	3	4
서귀포시	270	22	19	22	19	31	26	28	27	32	44
대정읍	30	2	2	2	2	3	3	3	3	4	6
남원읍	32	3	2	2	2	4	3	3	3	4	6
성산읍	26	2	1	2	1	3	2	3	3	4	5
안덕면	16	1	1	1	1	2	1	2	2	2	3
표선면	19	1	1	2	1	2	2	2	2	3	3
송산·영천·효돈동	26	2	2	2	2	3	2	3	2	3	5
정방·중앙·천지동	20	2	1	2	1	2	2	2	3	2	3
동홍동	34	3	3	3	3	4	5	3	3	3	4
서홍·대륜동	32	3	3	3	3	4	3	3	3	3	4
대천·중문·예래동	35	3	3	3	3	4	3	4	3	4	5

주: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도면, 추자면 제외함

다.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 면접원에 의한 가구 방문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1일 ~ 5월 8일임
-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4-3>와 같음

<표 4-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고향, 직업, 개인소득,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가구구성, 종교, 건강상태
음주행태	음주율(월간, 연간, 평생, 고위험 등)
	음주량(폭음, 과음, 주량, 만취 정도)
	음주횟수(음주차수)
	음주시작 연령(나이, 음주시작 이유)
	음주습관(한달 술값, 누구와 어디서 먹는지, 주간적 생각)
	객관적 음주습관 평가(알코올 사용 선별검사도구 AUDIT-K)
	여성음주습관(임신 중 술을 마신 경험)
음주의 영향	개인 경험(문제음주 진입단계, 가족문제, 경제적 손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사건사고 경험)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경험(공공장소에서의 문제, 가정폭력, 가족경제의 어려움, 가족해체의 위기, 자녀양육의 어려움)
	음주원인(가족친밀도, 우울, 자살, 스트레스, 회식문화, 가족력, 상담경험, 친구, 주변인, 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정책 서비스 경험여부)
	음주이유(마시는, 끊지 못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음주피해에 대한 인식)
음주관련 정책	정책인지도(관련 법인식, 관련 서비스인식 등)
	정책수요(조례제정 , 예방교육강화, 복지강화 등)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4>와 같음

○ 행정구역별 분포

- 응답자의 행정구역별 분포는 제주시 730명(73%), 서귀포시 270명(27%)임. 2015년 8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인구는 제주시 348,486명(72.9%), 서귀포시 129,322명(27.1%)(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으로, 응답자의 행정구역별 분포는 도 인구분포와 비례함
- 응답자의 분포를 읍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 지역 563명(56.3%), 제주시 읍면 지역 167명(16.7%), 서귀포시 동 지역 147명(14.7%), 서귀포시 읍면 지역 123명(12.3%)임. 읍면지역별 인구 역시 2015년 8월 기준 도내 만 19세 이상 인구의 읍면동 지역 인구분포와 비례함⁸⁾

○ 성별 분포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96명(49.6%), 여성 504명(50.4%)임. 2015년 8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인구의 성별분포는 남성 236,917명(49.6%), 여성 240,891명(50.4%)임(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도 성별분포와 비례함

○ 연령별 분포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168명(16.8%), 30대 178명(17.8%), 40대 228명(22.8%), 50대 195명(19.5%), 60대 이상 231명(23.1%)임. 조사대상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모집단인 도내 만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비례함⁹⁾

8) 2015년 8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만19세 이상 인구의 읍면동 지역별 분포는 제주시 동 지역 294,075명(61.5%), 제주시 읍면 지역 54,411명(11.4%), 서귀포시 동 지역 89,741명(18.8%), 서귀포시 읍면 지역 39,581명(8.3%)임(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9) 2015년 8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만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72,661명(15.2%), 30대 85,374명(17.9%), 40대 110,230명(23.1%), 50대 94,144명(19.7%), 60대 이상 115,399명(24.1%)임

〈표 4-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지역	제주시 동	563	56.3	직업	전문/관리직	98	9.8
	제주시 읍면	167	16.7		사무직	126	12.6
	서귀포시 동	147	14.7		서비스/판매직	350	35.0
	서귀포시 읍면	123	12.3		농림어업직	97	9.7
성별	남성	496	49.6		기능/기계/조립	58	5.8
	여성	504	50.4		단순노무	43	4.3
연령	20대	168	16.8		무직/기타	228	22.8
	30대	178	17.8	월 가구 소득	소득없음	18	1.8
	40대	228	22.8		100만원미만	96	9.6
	50대	195	19.5		100-199만원	142	14.2
	60대 이상	231	23.1		200-299만원	216	21.6
혼인 상태	미혼	222	22.2		300-399만원	246	24.6
	기혼	676	67.6		400-499만원	141	14.1
	이혼	30	3.0		500-599만원	53	5.3
	사별	72	7.2		600-699만원	29	2.9
학력	초졸이하	108	10.8		700만원이상	59	5.9
	중졸	65	6.5	맞벌이	맞벌이	435	43.5
	고졸	401	40.1		외벌이	263	26.3
	대졸	400	40.0		합계	698	69.8
	대학원	26	2.6	가구 구성	1인가구	105	10.5
고향	제주	828	82.8		부부 가구	97	9.7
	비제주	172	17.2		부부+미혼자녀	517	51.7
종교	없음	471	47.1		부/모+미혼자녀	105	10.5
	개신교	97	9.7		부부+자녀+부모	47	4.7
	천주교	119	11.9		조부모+손자녀	11	1.1
	불교	313	31.3		기타	8	0.8

○ 혼인상태별 분포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222명(22.2%), 기혼 676명(67.6%), 이혼 30명(3.0%), 사별 72명(7.2%)임

○ 학력별 분포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173명(17.5%), 고졸 401명(40.1%), 대졸 400명(40.0%), 대학원 이상 26명(2.6%)임.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도내 6세 이상 졸업상태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39,315명(12.4%), 중학교 졸업생은 34,759명(11.0%), 고등학교 졸업생은 114,516명(36.1%), 대학교졸업생은 120,308명(38.0%), 대학원졸업생은 7976명(2.5%)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와 유사함

○ 고향여부

- 응답자의 고향여부는 제주 828명(82.8%), 비제주 172명(17.2%)으로 나타남

○ 직업별 분포

- 응답자의 직업은 전문/관리직 98명(9.8%), 사무직 126명(12.6%), 서비스/판매직 350명(35.0%), 농림어업직 97명(9.7%), 기능/기계/조립 58명(5.8%), 단순노무 43명(4.3%), 무직/기타 228명(22.8%)임

○ 월평균 가구소득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없음 18명(1.8%), 100만원미만 96명(9.6%), 100-199만원 142명(14.2%), 200-299만원 216명(21.6%), 300-399만원 246명(24.6%), 400-499만원 141명(14.1%), 500-599만원 53명(5.3%), 600-699만원 29명(2.9%), 700만원 이상 59명(5.9%)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

- 응답자 중 기혼의 경우 맞벌이 여부를 조사하였음. 맞벌이 435명(43.5%), 외벌이 263명(26.3%)로 나타남

○ 가구구성

- 응답자의 가구를 살펴본 결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517명(51.7%), 부부 가구 207명(20.7%), 1인 가구 105명(10.5%), 한부모 가구 105명(10.5%), 3대가 함께 사는 가구 47명(4.7%), 조손가구 11명(1.1%), 기타 8명(0.8%)로 나타남

○ 종교여부

- 응답자의 종교는 없음 471(47.1%), 불교 313(31.3%), 천주교 119(11.9%), 개신교 97(9.7%)임

3. 음주행태

가. 음주율

1) 성별 음주율

-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월간 음주율은 63.7%, 연간 음주율 80.3%, 평생 음주율 89.8%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나타난 월간 음주율 61.1%, 연간 음주율 74.8%, 평생 음주율 85.4%보다 높게 나타남
- 월간 음주율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77.4%, 여성 50.2%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수 이상이 한달 이내에 한번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 성별차이는 27.2%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간 음주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3%, 여성 72.4%로 최근 1년 동안 한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 성별차이는 15.9%로 나타남
- 평생 음주율은 과거에는 마셨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 경우로 남성 95.6%, 여성 84.1%임. 성별차이는 11.5%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평생 음주율에 따른 성별차이(11.5%)보다 월간 음주율에 따른 성별차이(27.2%)가 더 높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현재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성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χ^2
월간 음주율	77.4	50.2	63.7	80.107***
연간 음주율	88.3	72.4	80.3	39.897***
평생 음주율	95.6	84.1	89.8	35.703***

***p<.001

2) 연령별 음주율

- 연령별 월간 음주율은 40대 75.9%, 30대 74.2%, 20대 73.2%, 50대 62.6%, 60대 이상 37.7% 순으로 나타남
- 연간 음주율은 20대 89.9%, 30대 89.4%, 40대 87.7%, 50대 83.6%, 60대 이상 56.3% 순으로 나타남
- 평생 음주율은 40대 96.0%, 30대 95.6%, 20대 95.3%, 50대 93.3%, 60대 이상 72.3%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40대, 30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의 경우 연간 음주율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40대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대의 음주문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4-6〉 연령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χ^2
월간 음주율	73.2	74.2	75.9	62.6	37.7	97.454***
연간 음주율	89.9	89.4	87.7	83.6	56.3	112.45***
평생 음주율	95.3	95.6	96.0	93.3	72.3	101.42***

***p<.001

3) 지역별 음주율

- 지역별 월간 음주율은 제주시 동지역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53.7%로 가장 낮았음
- 연간 음주율도 제주시 동지역이 84.8%로 가장 높았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65.9%로 가장 낮았음
- 평생 음주율도 제주시 동지역이 92.6%로 가장 높았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83.0%로 가장 낮았음
- 제주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지역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제주시 동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동	서귀포시 읍면	χ^2
월간 음주율	67.7	60.5	60.5	53.7	10.590*
연간 음주율	84.8	76.7	79.5	65.9	24.650***
평생 음주율	92.6	89.9	84.9	83.0	14.604**

*p<.05, **p<.01, ***p<.001

4) 교육수준별 음주율

- 교육수준별 월간 음주율은 대학원졸이 88.5%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74.8%, 고졸 66.6%, 중졸 36.9%, 초졸이하 22.2%순으로 나타남
- 연간 음주율도 대학원졸(100.0%)이 가장 높았으며, 초졸이하(41.6%)로 가장 낮았음
- 평생 음주율도 대학원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통해 학력이 높을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 학력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χ^2
월간 음주율	22.2	36.9	66.6	74.8	88.5	129.96***
연간 음주율	41.6	58.4	83.1	90.3	100.0	154.81***
평생 음주율	62.0	72.2	92.6	96.8	100.0	139.87***

***p<.001

5) 직업별 음주율

- 직업별로 월간 음주율은 전문/관리직 86.7%, 사무직 74.6%, 기능/기계/조립 70.7%, 단순노무직 69.8%, 서비스/판매직 68.3%, 농림어업직 48.5%, 무직/기타 44.3% 순으로 나타남
- 연간 음주율은 전문/관리직 97.9%, 사무직 88.9%, 서비스/판매직 85.4%, 기능/기계/조립 84.5%, 단순노무직 79.1%, 농림어업직 68.1%, 무직/기타 64.5% 순으로 나타남
- 평생 음주율은 전문/관리직 99.9%, 기능/기계/조립 98.3%, 사무직 95.2%, 서비스/판매직 94.0%, 단순노무직 86.1%, 무직/기타 79.9%, 농림어업직 77.4%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를 통해 다른 직업보다 전문/관리직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며, 농림어업직에서 가장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직업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립	단순노무	무직/기타	χ^2
월간 음주율	86.7	74.6	68.3	48.5	70.7	69.8	44.3	37.571***
연간 음주율	97.9	88.9	85.4	68.1	84.5	79.1	64.5	40.213***
평생 음주율	99.9	95.2	94.0	77.4	98.3	86.1	79.9	52.424***

***p<.001

6) 가구별 음주율

- 가구별 월간 음주율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구성된 핵가족이 70.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한부모 가구 69.5%, 3대가 함께 사는 가구 68.1%, 부부가구 50.7%, 1인 가구 50.5%, 조손가구 45.5%, 기타 37.5% 순으로 나타남
- 연간 음주율은 한부모 가구 88.5%로 가장 높았음
- 평생 음주율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구성된 핵가족이 94.6%로 가장 높았음

〈표 4-10〉 가구별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율, 평생 음주율

(단위: %)

	1인가구	부부	부부+미혼 자녀	부/모+미 혼자녀	부부+자녀 +부모	조부모+손 자녀	기타	χ^2
월간 음주율	50.5	50.7	70.8	69.5	68.1	45.5	37.5	40.151***
연간 음주율	64.8	69.1	87.2	88.5	80.9	54.6	50.0	62.011***
평생 음주율	81.9	80.2	94.6	94.2	93.7	63.7	87.5	52.242***

***p<.001

7) 고위험 음주율

- 고위험 음주율 34.8%로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21.7%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35.1%, 여성의 경우는 8.1%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4.5배 더 높음
- 조사결과, 남성(35.1%)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에서 나타난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 31.0%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8.1%)의 경우는 같은 자료에서 나타난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9.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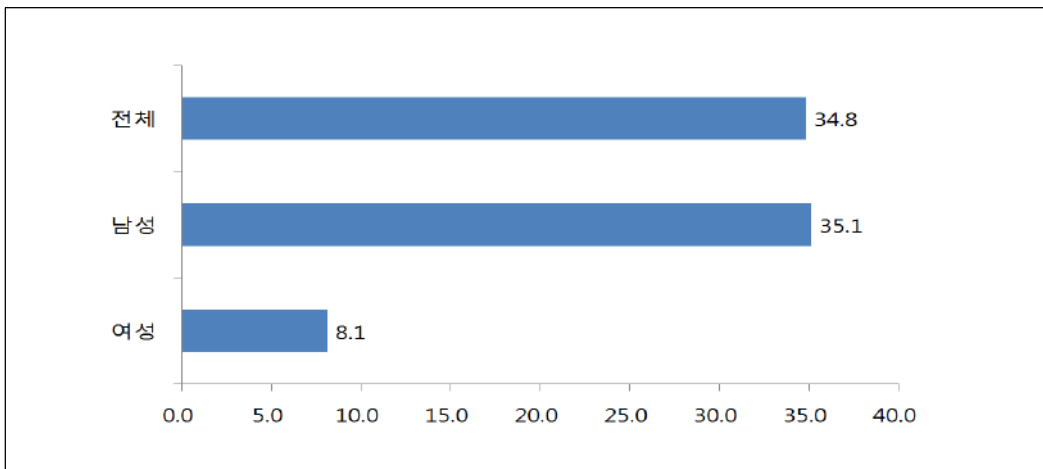
〈표 4-11〉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34.8
성별	남성	35.1
	여성	8.1

〈그림 4-1〉 고위험 음주율

(단위: %)



- 음주율 조사결과 월간 음주율이 63.7%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나타난 전국의 월간 음주율 중앙값 6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율도 조사결과 34.8%로 전국의 고위험 음주율 중앙값 18.7%보다 높게 나타남.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월간 음주와 고위험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음주량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7-9잔이 19.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마시지 않음 18.7%, 3-4잔 17.3%, 1-2잔 16.9%, 5-6잔 15.2%, 10잔 이상 12.0%순으로 나타남

1) 성별 음주량

- 성별로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의 32.7%가 7-9잔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27.6%는 1-2잔이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은 47.1%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3.6%로 나타남
- 성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성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2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성별	남성	6.0	12.1	17.3	32.7	21.0	10.9	496	265.54**
	여성	27.6	22.4	13.1	7.3	3.2	26.4	504	

**p<.01

2) 연령별 음주량

-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대 25.0%가 5-6잔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7%는 7-9잔으로 가장 많았음. 40대 23.2%는 7-9잔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9.0%는 각각 1-2잔과 3-4잔으로 가장 많았음. 반면, 60대 이상 42.0%는 마시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연령대는 20대·30대·40대이며, 50대 이상은 5잔 미만 또는 마시지 않음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음주량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연령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 ²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연령	20대	11.3	16.7	25.0	20.2	16.7	10.1	168	148.70**
	30대	13.5	19.1	14.6	28.7	14.6	9.6	178	
	40대	18.4	19.7	13.6	23.2	13.2	11.8	228	
	50대	19.0	19.0	16.4	17.9	12.8	14.9	195	
	60대 이상	20.3	12.6	9.1	11.3	4.8	42.0	231	

**p<.01

3) 지역별 음주량

-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시 동지역(24.2%)이 7-9잔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마시지 않음(22.2%)이 가장 많았음. 서귀포시 동지역(23.8%)은 1-2잔이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는 마시지 않음(33.3%)이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지역은 제주시 동(52.5%), 제주시 읍면(48.6%), 서귀포시 동(37.4%), 서귀포시 읍면(32.5%)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지역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 ²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지역	제주시 동	15.8	17.8	15.5	24.2	12.8	14.0	563	49.404**
	제주시 읍면	15.6	13.8	21.0	17.4	10.2	22.2	167	

	서귀포시 동	23.8	18.4	12.9	12.9	11.6	20.4	147	
	서귀포시 읍면	15.4	18.7	8.9	12.2	11.4	33.3	123	

**p<.01

4) 학력별 음주량

-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초졸이하 57.4%는 마시지 않음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 40.0%도 마시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 고졸 19.2%는 각각 3-4잔, 7-9잔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 27.0%는 7-9잔이 가장 많음. 대학원졸의 경우 26.9%가 7-9잔으로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학력은 대학원졸 (69.2%), 대졸(58.3%), 고졸(49.4%), 초졸이하(13.0%), 중졸(12.3%)순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학력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학력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 ²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학력	초졸이하	22.2	7.4	5.6	3.7	3.7	57.4	108	208.49**
	중졸	21.5	26.2	4.6	4.6	3.1	40.0	65	
	고졸	16.0	19.2	18.7	19.2	11.5	15.5	401	
	대졸	16.3	16.3	15.8	27.0	15.5	9.3	400	
	대학원	7.7	23.1	19.2	26.9	23.1	0.0	26	

**p<.01

5) 직업별 음주량

-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관리직

(29.6%)은 7-9잔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26.2%)도 7-9잔이 가장 많았음. 서비스/판매직(21.4%)도 7-9잔이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직(29.9%)은 마시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 기능/기계/조립(36.2%)은 7-9잔이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23.3%)도 7-9잔이 가장 많았음. 무직/기타는 마시지 않음(34.6%)이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직업은 기능/기계/조립(70.7%), 전문/관리직(69.4%), 사무직(52.4%), 서비스/판매직(50.9%), 단순노무직(48.9%), 농림어업직(34.0%), 무직/기타(28.1%)순으로 나타남. 기술·전문·사무직에서 음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직업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직업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2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직업	전문/관리직	13.3	15.3	19.4	29.6	20.4	2.0	98	142.15**
	사무직	18.3	19.0	16.7	26.2	9.5	10.3	126	
	서비스/판매직	16.9	18.6	16.6	21.4	12.9	13.7	350	
	농림어업직	21.6	14.4	12.4	11.3	10.3	29.9	97	
	기능/기계/조립	5.2	10.3	8.6	36.2	25.9	13.8	58	
	단순노무	4.7	27.9	18.6	23.3	7.0	18.6	43	
	무직/기타	21.1	16.2	12.7	8.8	6.6	34.6	228	

**p<.01

6) 가구별 음주량

-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 가구별로 살펴본 결과 1인가구는 마시지 않음(32.4%)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가구도 마시지 않음(30.0%)이 가장 많았음. 부부와 미혼자녀가구(23.8%)는 7-9잔이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구의 19.0%는 각각 3-4잔과 7-9잔이 가장 많았음. 3세대가구는 23.4%가 1-2잔이 가장 많았으며 조손가구는 마시지 않음(45.5%)이 가장 많았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가구(53.6%), 3세대가구(51.0%), 한부모 가구(50.4%), 1인가구(38.1%), 부부가구(33.8%), 조손가구(27.3%)순으로 나타남.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음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가구별 음주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 가구별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안마심	N	χ^2
전 체		16.9	17.3	15.2	19.9	12.0	18.7	1000	
가구 구성	1인가구	17.1	12.4	11.4	18.1	8.6	32.4	105	99.959**
	부부	19.8	16.4	13.5	14.0	6.3	30.0	207	
	부부+미혼자녀	14.9	19.7	16.8	23.8	13.0	11.8	517	
	부/모+미혼자녀	18.1	19.0	13.3	19.0	18.1	12.4	105	
	부부+자녀+부모	23.4	8.5	17.0	14.9	19.1	17.0	47	
	조부모+손자녀	27.3	0.0	0.0	0.0	27.3	45.5	11	
	기타	0.0	0.0	37.5	12.5	0.0	50.0	8	

**p<.01

- 음주량 조사결과 한 번 술을 마실 때 음주량은 7-9잔이 1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 7-9잔(32.7%), 여성 1-2잔(2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2010)에 나타난 전국의 음주량은 3-4잔이 24.0%로 가장 많았으며 7-9잔은 17.2%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 7-9잔 23.5%, 여성 1-2잔 38.2%임.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한 번 술을 마실 때 더 많은 잔을 마시며, 성별로 남성의 경우는 한번에 7-9잔을 전국보다 제주지역 남성이 더 많이 마시며, 여성의 경우는 한번에 1-2잔을 전국보다 제주지역 여성이 더 적게 마심을 알 수 있음

다. 음주빈도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월1회미만이 26.4%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월2-4회가 26.2%, 전혀 마시지 않음 19.6%, 주2-3회 19.2%, 주4회이상 8.6%순으로 나타남

1) 성별 음주빈도

- 성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 29.0%가 주2-3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2-4회 28.6%, 월1회미만 15.5%, 주4회이상 15.1%, 전혀 마시지 않음 11.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월1회미만 3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혀 마시지 않음 27.4%, 월2-4회 23.8%, 주2-3회 9.5%, 주4회이상 2.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성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2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성별	남성	11.7	15.5	28.6	29.0	15.1	496	175.90**
	여성	27.4	37.1	23.8	9.5	2.2	504	

**p<.01

2) 연령별 음주빈도

- 연령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20대는 36.9%가 월2-4회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도 28.1%가 월2-4회로 가장 많았음. 40대도 30.3%가 월2-4회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28.7%가 월1회미만으로 가장 많았음. 60대이상은 전혀 마시지 않음이 43.3%로 가장 많았음

-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20대 7.1%, 30대 7.9%, 40대 11.0%, 50대 8.7%, 60대 7.8%로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연령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2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연령	20대	10.7	28.6	36.9	16.7	7.1	168	129.72**
	30대	10.1	27.5	28.1	26.4	7.9	178	
	40대	13.2	24.1	30.3	21.5	11.0	228	
	50대	15.4	28.7	24.6	22.6	8.7	195	
	60대 이상	43.3	24.2	14.3	10.4	7.8	231	

**p<.01

3) 지역별 음주빈도

- 지역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제주시 동지역은 월2-4회(27.7%)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은 각각 월2-4회(22.8%), 전혀 마시지 않음(22.8%)이 가장 많았음
- 서귀포시 동지역은 월1회미만(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전혀 마시지 않음(35.0%)이 가장 많았음
-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제주시 동지역 8.3%, 제주시 읍면지역 7.8%, 서귀포시 동지역 9.5%, 서귀포시 읍면지역 9.8%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지역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 ²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지역	제주시 동	15.3	27.2	27.7	21.5	8.3	563	34.630**
	제주시 읍면	22.8	26.3	22.8	20.4	7.8	167	
	서귀포시 동	19.7	31.3	26.5	12.9	9.5	147	
	서귀포시 읍면	35.0	17.1	23.6	14.6	9.8	123	

**p<.01

4) 학력별 음주빈도

- 학력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초졸이하 전혀 마시지 않음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도 전혀 마시지 않음이 40.0%로 가장 많았음. 고졸은 월2-4회(28.9%)가 가장 많았으며, 대졸도 월2-4회(29.3%)가 가장 많았음. 대학원은 월1회미만이 3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초졸이하 3.7%, 중졸 4.6%, 고졸 8.5%, 대졸 10.5%, 대학원 11.5%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자주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학력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 ²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학력	초졸이하	59.3	23.1	9.3	4.6	3.7	108	165.08**
	중졸	40.0	26.2	16.9	12.3	4.6	65	
	고졸	16.0	25.9	28.9	20.7	8.5	401	
	대졸	10.3	27.3	29.3	22.8	10.5	400	
	대학원	3.8	34.6	30.8	19.2	11.5	26	

**p<.01

5) 직업별 음주빈도

- 직업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전문/관리직은 월2-4회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은 월1회미만이 30.2%로 가장 많았음. 서비스/판매직은 월2-4회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직은 전혀 마시지 않음이 30.9%로 가장 많았음. 기능/기계/조립은 주2-3회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은 월2-4회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기타는 36.4%가 전혀 마시지 않음으로 나타남
-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문/관리직 15.3%, 사무직 4.8%, 서비스/판매직 8.6%, 농림어업직 10.3%, 기능/기계/조립 22.4%, 단순노무직 11.6%, 무직/기타 3.1%로 다른 직업보다 기능/기계/조립에서 더 자주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직업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2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직업	전문/관리직	3.1	20.4	37.8	23.5	15.3	98	139.39**
	사무직	11.9	30.2	28.6	24.6	4.8	126	
	서비스/판매직	14.0	26.9	28.6	22.0	8.6	350	
	농림어업직	30.9	27.8	15.5	15.5	10.3	97	
	기능/기계/조립	13.8	13.8	19.0	31.0	22.4	58	
	단순노무	18.6	16.3	39.5	14.0	11.6	43	
	무직/기타	36.4	30.7	20.2	9.6	3.1	228	

**p<.01

7) 가구별 음주빈도

- 가구별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1인가구는 전혀 마시지 않음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가구도 전혀 마시지 않음이 30.0%로 가장 많았음. 부

부와 미혼자녀가구는 월2-4회가 29.8%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구는 월1회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음. 3세대가구는 월2-4회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가구와 기타는 전혀 마시지 않음이 각각 54.5%와 50.0%로 가장 많았음

○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1인가구 7.6%, 부부가구 8.7%,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8.1%, 한부모가구 13.3%, 3세대가구 8.5%, 조부모가구와 기타는 0.0%로 다른 가구보다 한부모가구에서 더 자주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별 음주빈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 가구별 음주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이상	N	χ ²
전 체		19.6	26.4	26.2	19.2	8.6	1000	
가구 구성	1인가구	36.2	19.0	15.2	21.9	7.6	105	87.730**
	부부	30.0	26.6	22.2	12.6	8.7	207	
	부부+미혼자녀	12.4	26.7	29.8	23.0	8.1	517	
	부/모+미혼자녀	13.3	32.4	26.7	14.3	13.3	105	
	부부+자녀+부모	17.0	27.7	36.2	10.6	8.5	47	
	조부모+손자녀	54.5	27.3	0.0	18.2	0.0	11	
	기타	50.0	12.5	12.5	25.0	0.0	8	

**p<.01

□ 음주빈도 횟수 조사결과 월1회 미만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주 2-3회(29.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1회 미만(37.1%)이 가장 많았음. 반면, 전국의 음주빈도도 월1회 이하(41.6%)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 월 2-4회 43.3%, 여성 월1회 이하(57.0%)가 가장 많이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월1회 미만 음주횟수가 낮고, 성별로도 남성의 경우는 전국보다 제주지역 남성이 더 자주 마시며, 여성의 경우는 월1회 이하 음주빈도수가 제주지역 여성이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라. 폭음율

□ 성별 폭음율

- 남성과 여성의 폭음¹⁰⁾을 조사한 결과 폭음자는 381명(38.1%)으로 남성 285명(57.5%), 여성 96명(19.0%)로 나타남

〈표 4-24〉 성별 폭음빈도 및 폭음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81	(38.1)
성별	남성	285	(57.5)
	여성	96	(19.0)

□ 연령별 여성의 폭음율

- 여성의 경우 연령별로 20대 폭음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30대 24.1%, 40대 21.9%, 50대 20.0%, 60세 이상 3.8%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25〉 연령별 여성 폭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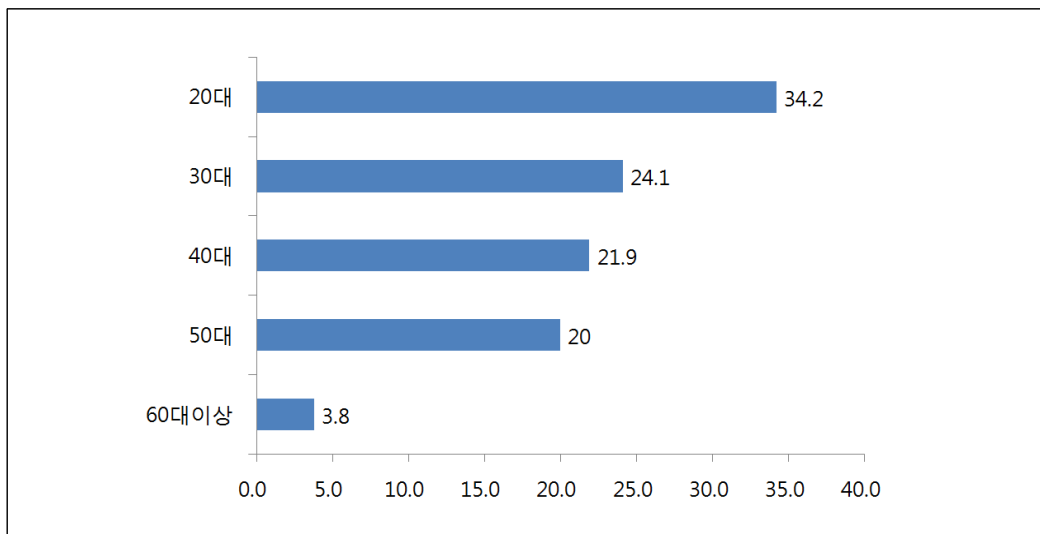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여성	96	(19.0)
연령	19-29세	27	(34.2)
	30-39세	21	(24.1)
	40-49세	24	(21.9)
	50-59세	19	(20.0)
	60세 이상	5	(3.8)

10) 최근 1년(365일) 동안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1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

〈그림 4-2〉 여성의 연령별 폭음율

(단위: %)



□ 연령별 남성의 폭음율

- 남성의 경우 연령별 폭음율이 40대(44.9%), 30대(40.7%), 50대(35.0%), 60대(30.6%), 20대(21.3%)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40대 폭음율이 가장 높으며 20대 폭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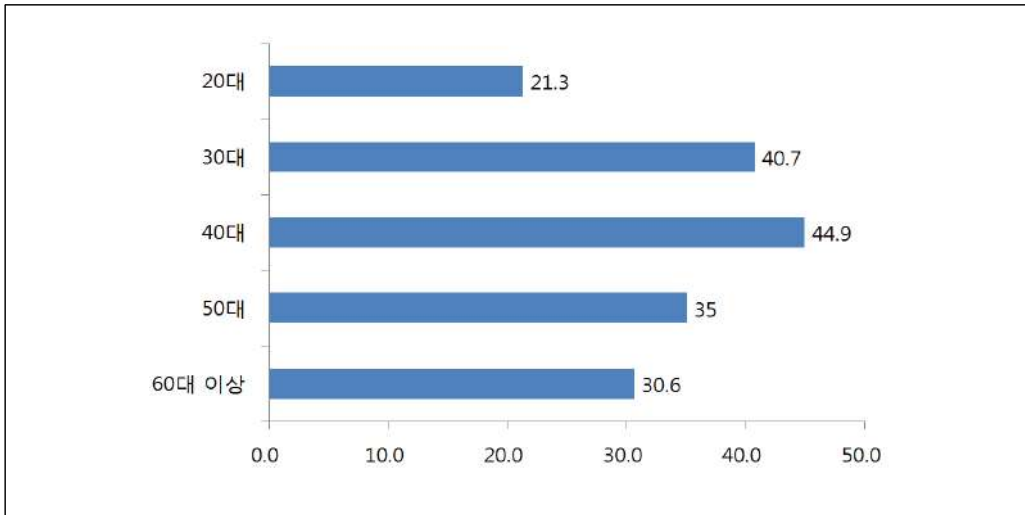
〈표 4-26〉 연령별 남성 폭음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285	(57.5)
연령	19-29세	42	(21.3)
	30-39세	63	(40.7)
	40-49세	74	(44.9)
	50-59세	58	(35.0)
	60세 이상	48	(30.6)

〈그림 4-3〉 남성의 연령별 폭음율

(단위: %)



○ 조사결과, 폭음을 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음,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남성의 경우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폭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폭음을 조사결과 응답자의 38.1%가 폭음을 하며, 남성(57.5%)이 여성(1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폭음율은 27.6%로 성별로 남성 41.9%, 여성 12.5%임(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폭음율도 높으며 남녀모두 폭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20대 폭음율이 34.2%로 전국 20대 여성의 폭음율 15.9%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 음주상황

가. 음주시작연령

○ 지금까지 한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 13명을 제외한 응답자 897명의 최초음주 나이는 평균 21.9세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지역사회 건강통계」 최초음주 나이 평균 21.3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최초음주 나이 평균은 19.8세이며, 여성의 경우는 최초음주 나이 평균이 24.3세로 나타남. 남성은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이후 여성은 대학졸업이후 처음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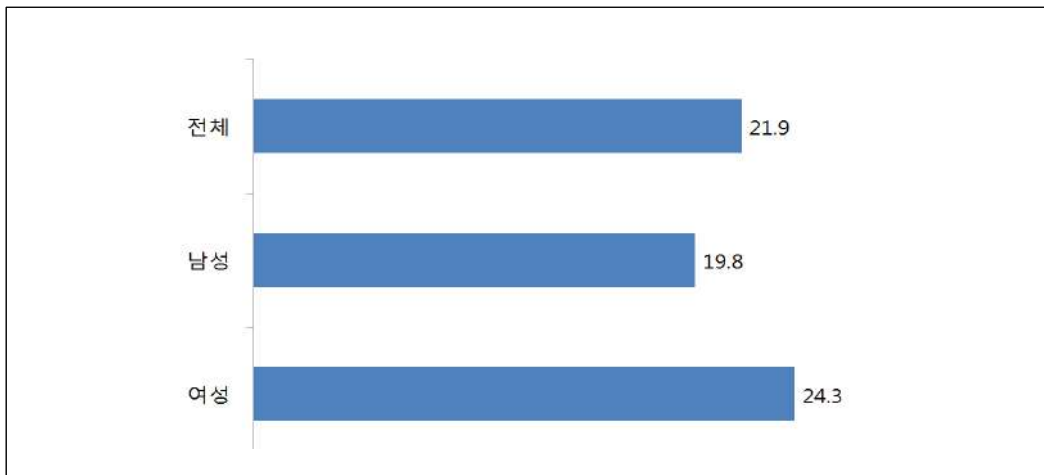
〈표 4-27〉 최초음주 시작연령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N	F
전 체		21.9	897	
성별	남성	19.8	473	7.663**
	여성	24.3	424	

**p<.01

〈그림 4-4〉 최초음주 시작연령



(단위: %)

- 최초음주 나이는 조사결과 평균 21.9세이며, 남성 만 19.8세, 여성 만 24.3세 나타남. 전국 최초음주나이는 19.76세이며, 성별로 남성 17.83세, 여성 21.73세임(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최초음주나이가 높으며 남녀모두 음주를 늦게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최초음주동기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최초음주를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또래집단의 영향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28.1%, 호기심 16.2%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성은 또래집단의 영향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32.9%로 가장 많았음

○ 성별 최초음주동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 성별 최초음주동기

(단위: %)

구분	또래 집단의 영향	호기심	술을 마시는 분위기 여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것 같아	가족의 영향	학교 선배의 권유	회식	기타	안마심	N	χ^2
전체	28.8	16.2	28.1	2.8	4.3	6.3	1.2	1.9	10.4	1000	
성 별	남성	38.1	21.6	23.2	2.4	2.0	5.8	0.6	1.6	496	103.10**
	여성	19.6	10.9	32.9	3.2	6.5	6.7	1.8	2.2	504	

**p<.01

□ 최초음주동기 조사결과 또래단의 영향이 가장 많은 것(28.8%)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05)에서도 최초음주동기가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30.0%로 가장 많았음. 제주지역의 경우도 처음 음주를 접하는 동기가 비공식적인 또래집단인 친구로 나타나 10대부터 건전한 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다. 음주 상대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주로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보면, 1위는 ‘친구/동창’ (38.8%)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직장동료’ (14.6%), ‘배우자 외 가족/친지’ (13.1%), ‘무응답’ (11.1%), ‘배우자’ (7.6%), ‘혼자’ (5.7%), ‘고객/업무상 상대자’ (5.3%), ‘기타’ (2.3%), ‘애인’ (1.8%)순으로 나타남

〈표 4-29〉 음주 상대

(단위: 명, %)

음주 상대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혼자	46	4.6	67	6.7	113	5.7
친구/동창	574	57.4	202	20.2	776	38.8
애인	4	0.4	32	3.2	36	1.8
직장동료	114	11.4	177	17.7	291	14.6
배우자	60	6.0	91	9.1	151	7.6
배우자 외 가족/ 친지	63	6.3	198	19.8	261	13.1
고객/ 업무상 상대자	22	2.2	83	8.3	105	5.3
기타	12	1.2	33	3.3	45	2.3
무응답	105	10.5	117	11.7	222	11.1
계	1000	100.0	1000	100.0	2000	100.0

- 음주상대 조사결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1위는 친구/동창(38.8%)이며, 전국조사결과도 ‘친구’ (56.8%)가 가장 많았음. 그러나 전국의 경우 배우자/애인이 17.3%로 3위인(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배우자(7.6%)와 애인(1.8%)이 5위, 9위로 나타나 배우자·애인과 음주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라. 음주장소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주로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

-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보면, 1위는 ‘식당’ (37.6%)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술집’ (28.1%), ‘집’ (18.3%), ‘노래방’ (1.9%), ‘야외(공원, 해수욕장)’ (1.3%), 일하는 곳(사무실)’ 과 ‘일반가게(편의점)’ 이 각각 0.9%, ‘나이트클럽’ (0.2%), ‘기타’ (0.1%)순으로 나타남

〈표 4-30〉 음주 장소

(단위: 명, %)

음주 상대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집	165	16.5	200	20.0	365	18.3
일터 또는 일하는 곳(사무실)	11	1.1	6	0.6	17	0.9
식당	495	49.5	257	25.7	752	37.6
일반가게(편의점)	5	0.5	13	1.3	18	0.9
야외 (공원,해수욕장)	4	0.4	21	2.1	25	1.3
나이트클럽	1	0.1	2	0.2	3	0.2
노래방	3	0.3	35	3.5	38	1.9
술집	211	21.1	350	35.0	561	28.1
기타	0	0	2	0.2	2	0.1
안마심	105	10.5	114	11.4	219	11.0
계	1000	100.0	1000	100.0	2000	100.0

- 음주장소 조사결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1위는 식당(37.6%)임. 전국조사결과도 ‘식당’ (50.2%)이 가장 많았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대체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경향이 전국이나 제주지역 모두 높음을 알 수 있음

마. 음주차수

- 조사결과 1차가 37.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2차 34.2%로 나타남

□ 성별 음주차수

- 성별로 남성은 2차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1차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1〉 성별 음주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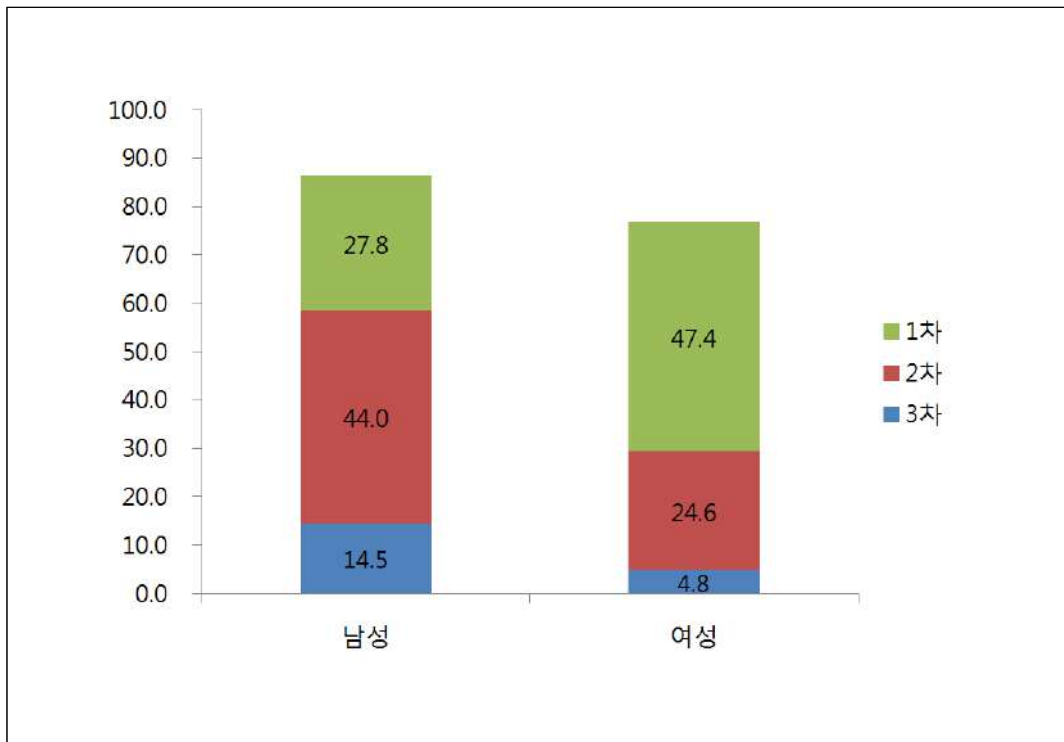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이상	전혀 안마심	N	χ^2
전체	37.7	34.2	9.6	1.9	16.6	1000	
성별							
남성	27.8	44.0	14.5	3.4	10.3	496	113.350**
여성	47.4	24.6	4.8	0.4	22.8	504	

**p<.01

〈그림 4-5〉 성별 음주차수

(단위: %)



□ 연령별 음주차수

-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는 2차가 많으며, 50대, 60대로 갈수록 1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44.0%)의 경우는 40대(39.5)보다 2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2〉 연령별 음주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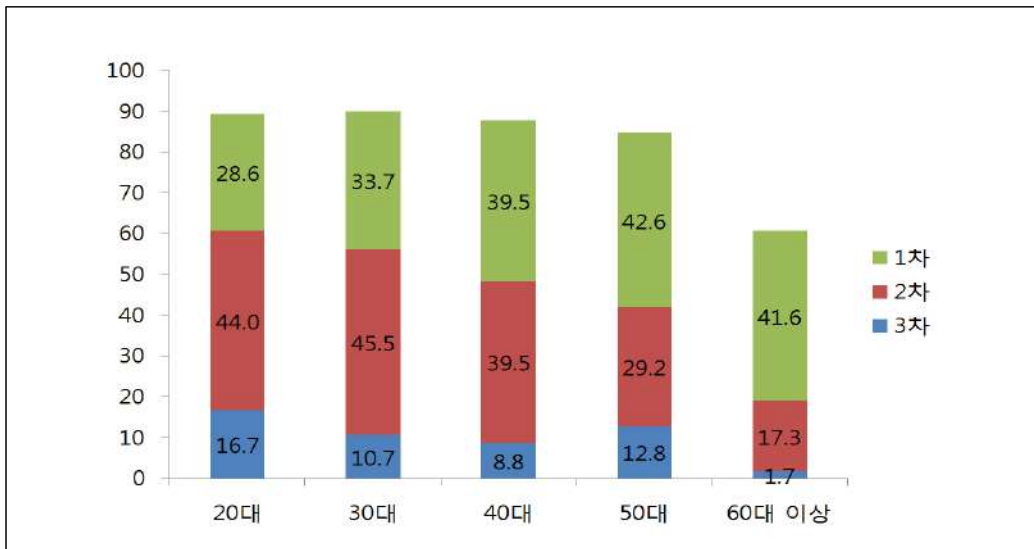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이상	전혀 안마심	N	χ^2
전체		37.7	34.2	9.6	1.9	16.6	1000	
연령	만19~29세	28.6	44.0	16.7	1.8	8.9	168	162.21**
	만30~39세	33.7	45.5	10.7	2.2	7.9	178	
	만40~49세	39.5	39.5	8.8	3.5	8.8	228	
	만50~59세	42.6	29.2	12.8	1.0	14.4	195	
	만60세 이상	41.6	17.3	1.7	0.9	38.5	231	

**p<.01

〈그림 4-6〉 연령별 음주차수

(단위: %)



□ 음주차수 조사결과 1차가 37.7%로 가장 많으며 성별로 남성 2차 44.0%, 여성 1차 47.4%로 나타남. 전국조사결과도 1차가 62.3%로 가장 많았음(남성 51.1%, 여성 73.6%)(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 남성의 경우 전국 남성보다 음주차수가 더 높고 2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한번 술을 마실 때 술값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물어본 결과

-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41,15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성은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48,40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평균 31,52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20대는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29,85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44,496원, 40대는 47,619원, 50대는 48,369원, 60대 이상은 31,881원으로 나타남

〈표 4-33〉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단위: 원, 명)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N	F
전 체		1,300	300,000	41,153	796	
성별	남성	1,300	300,000	48,407	454	133.31**
	여성	2,000	200,000	31,523	342	
연령 대	20대	2,000	150,000	29,853	153	21.373**
	30대	1,300	200,000	44,496	160	
	40대	1,500	200,000	47,619	197	
	50대	2,000	300,000	48,369	156	
	60대 이상	1,500	100,000	31,881	130	

**p<.01

-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조사결과 한번 마실 때 술값은 평균 41,153원이며, 성별로 남성 평균 48,407원, 여성 평균 31,52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국조사 결과는 평균 91,000원이며, 성별로 남성 139,000원, 여성 43,000원임(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지역의 경우 한 번 마실 때 지출하는 평균 술값이 전국보다 낮고, 남녀모두 전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5. 음주결과

가. 음주 관련 문제

-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음주를 통제할 수 없었던 횟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음주 시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혀없음 375명(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1회 274명(27.4%), 월1회 미만 163명(16.3%), 월1회 135명(13.5%), 거의매일 53명(5.3%)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주1회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전혀없음(54.0%), 월1회미만(23.0%)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30대·40대는 주1회가 각각 30.4%, 36.5%, 29.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60세 이상은 전혀없음이 각각 38.5%, 64.5%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 순으로는 주1회가 각각 25.1%, 18.2%로 나타남
 - 조사결과 전혀없음을 제외한 625명의 응답자들은 술을 마시면 1주일에 한번정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며 여성보다 남성들이 그러한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별로 30대·20대·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1주일에 한번정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4> 1년간 음주 시 통제불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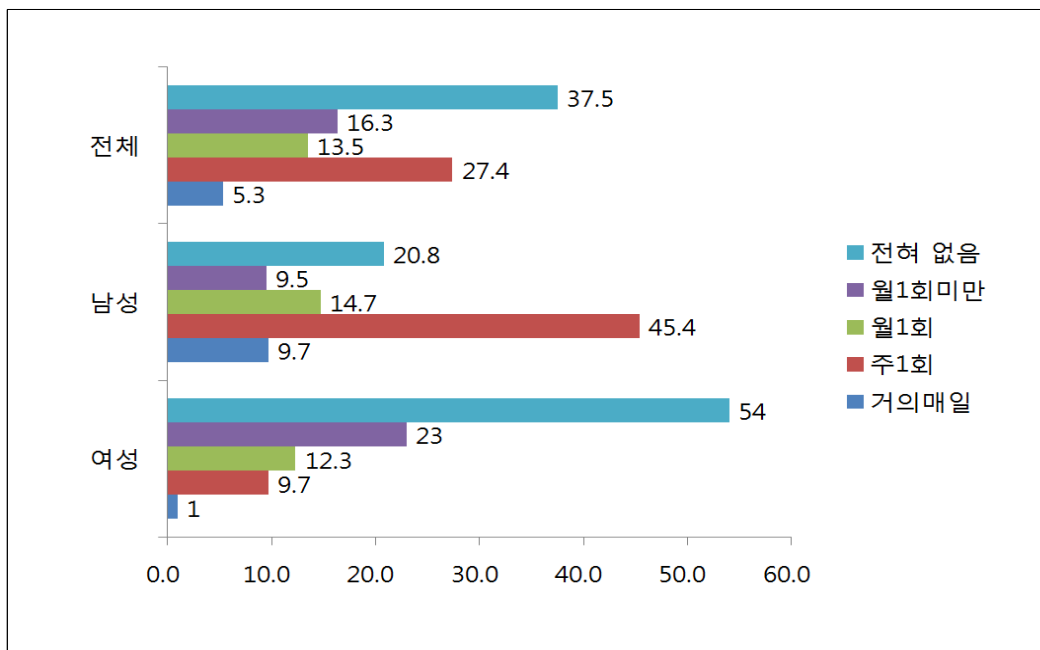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음	월1회미만	월1회	주1회	거의매일	N	χ^2
전체	375(37.5)	163(16.3)	135(13.5)	274(27.4)	53(5.3)	1000	
성별							84.135**
남성	208	9.5	147	45.4	9.7	496	
여성	540	230	123	9.7	1.0	504	
연령							32.316**
만19~29세	244	17.3	232	30.4	4.8	168	
만30~39세	253	16.3	163	36.5	5.6	178	
만40~49세	285	21.5	140	29.4	6.6	228	
만50~59세	385	19.0	11.3	25.1	6.2	195	
만60세 이상	645	8.2	5.6	18.2	3.5	23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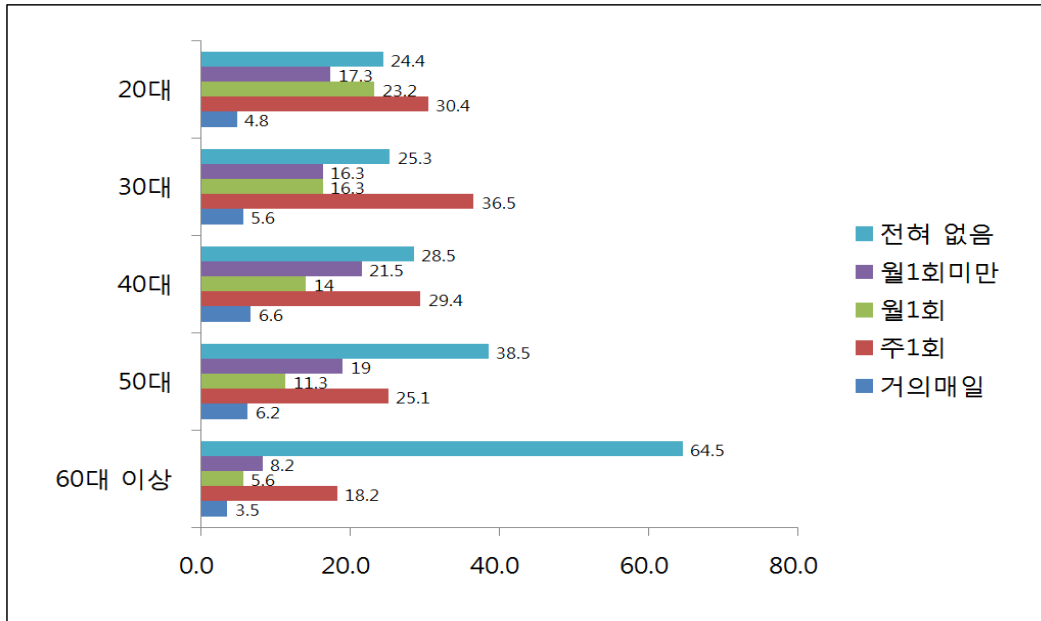
<그림 4-7> 성별 1년간 음주시 통제불가 횟수

(단위: %)



〈그림 4-8〉 연령별 1년간 음주시 통제불가 횟수

(단위: %)



□ 음주로 인해 일을 중단한 횟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혀없음 822명(8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1회 미만 99명(9.9%), 월1회 59명(5.9%), 주1회 15명(1.5%), 거의매일 5명(0.5%)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모두 전혀없음이 71.0%와 93.3%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월1회미만이 각각 15.7%, 4.2%로 나타남
- 조사결과 평소에 하던 일을 음주로 인해 못한 경우는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일 중단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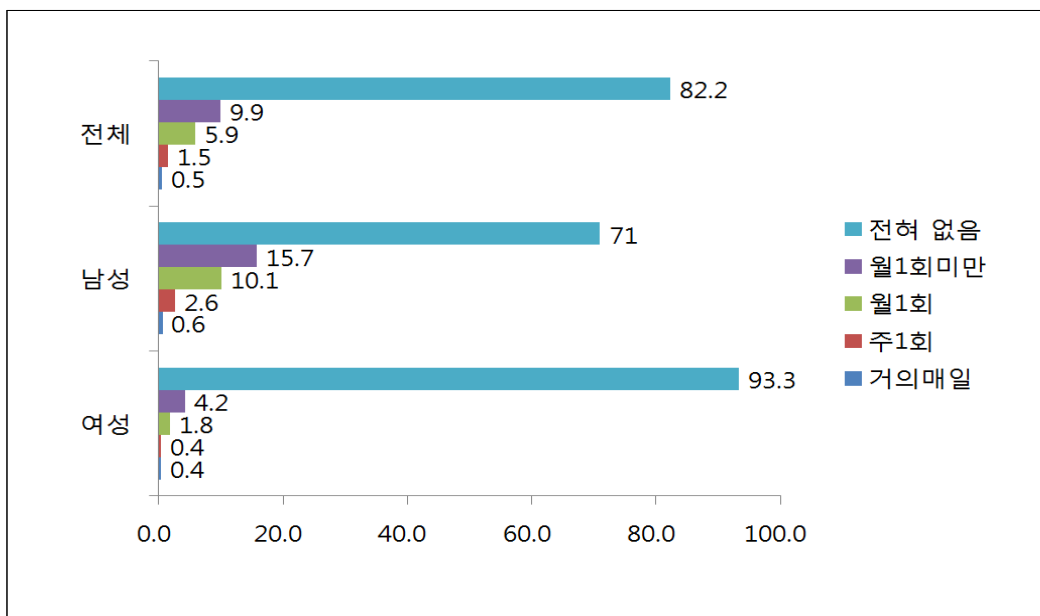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음	월1회미만	월1회	주1회	거의매일	N	χ^2
전체	822(82.2)	99(9.9)	59(5.9)	15(1.5)	5(0.5)	1000	

성별	남성	71.0	15.7	10.1	2.6	0.6	4.96	86.457**
	여성	93.3	4.2	1.8	0.4	0.4	5.04	

**p<.01

〈그림 4-9〉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일 중단 횟수

(단위: %)



□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¹¹⁾ 횟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를 물어본 결과 전혀없음 779명(7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1회 미만 127명(12.7%), 월1회 58명(5.8%), 주1회 19(1.9%), 거의매일 17명(1.7%)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모두 전혀없음이 64.9%와 90.7%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월1회미만이 각각 20.8%, 4.8%로 나타남
- 조사결과 남성의 35.1%는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6%는 거의매일 ‘블랙아웃’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11) 음주 때문에 전날 밤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경우

〈표 4-36〉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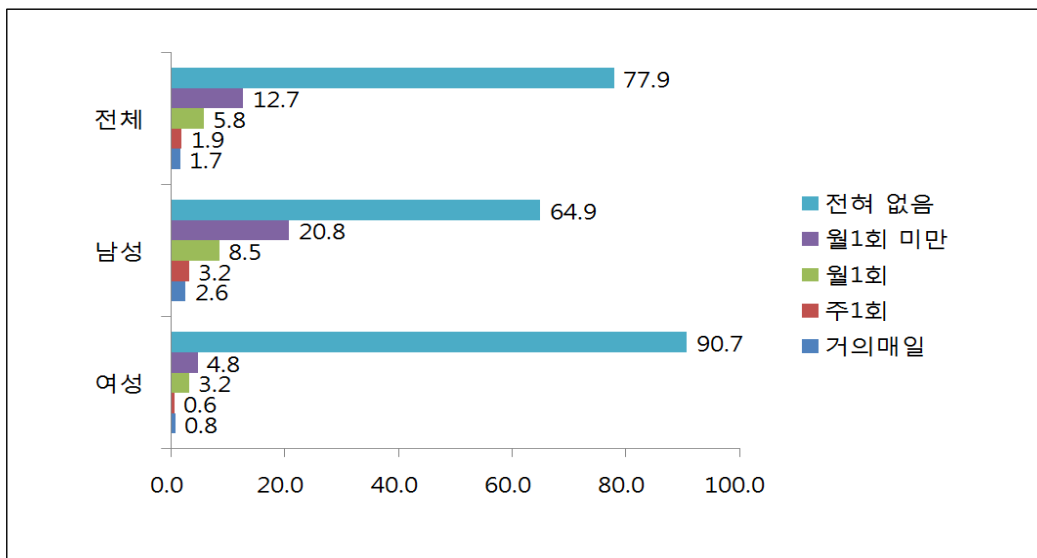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음	월1회미만	월1회	주1회	거의매일	N	χ^2
전체	779(77.9)	127(12.7)	58(5.8)	19(1.9)	17(1.7)	1000	
성별							
남성	64.9	20.8	8.5	3.2	2.6	496	97.794**
여성	90.7	4.8	3.2	0.6	0.8	504	

**p<.01

〈그림 4-10〉 성별 1년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

(단위: %)



□ 음주로 인한 음주걱정, 금주권유경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없음 829명(8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간 있었음 120명(12.0%), 있지만 1년간은 없었음 51명(5.1%)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전혀없음이 71.4%와 94.2%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1년간 있었음이 각각 21.0%, 3.2%로 나타남

- 조사결과 남성의 28.6%는 음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5.8%는 음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성별 음주걱정 및 금주 권유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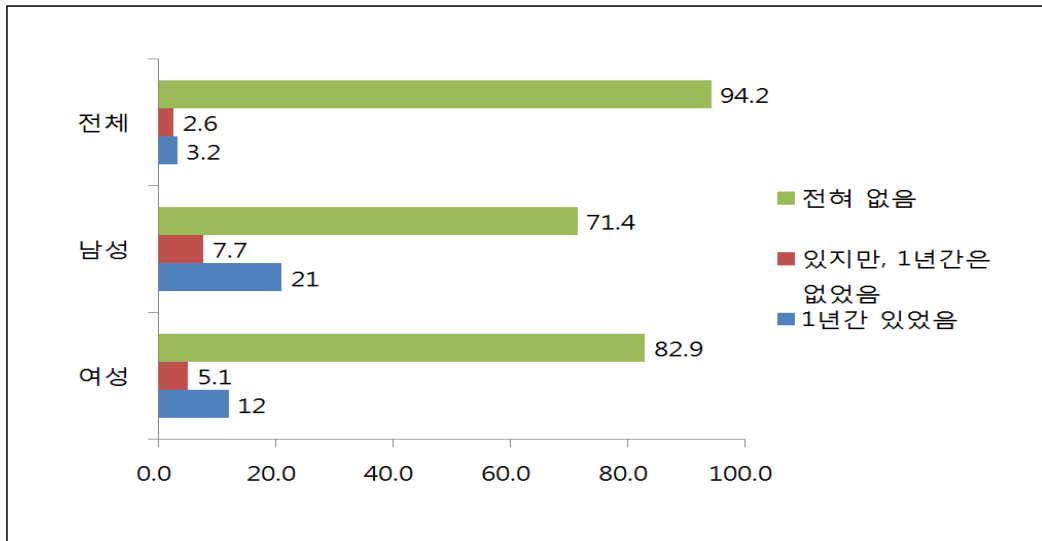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음	있지만, 1년간은 없었음	1년간 있었음	N	χ^2
전체	829(82.9)	51(5.1)	120(12.0)	1000	
성별					94.391**
남성	71.4	7.7	21.0	496	
여성	94.2	2.6	3.2	504	

**p<.01

〈그림 4-11〉 성별 음주걱정 및 금주 권유 경험

(단위: %)



나. 음주행동 결과

- 응답자 1000명에게 지난 1년간 자신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 행한 음주행동 결과를 노상취침, 성적행동, 치료·약물 장기복용, 부부싸움 또는 갈등, 자녀와 갈등, 가정

생활위기, 직장생활문제발생, 하는 일에 문제발생, 실직경험, 카드·현금·지갑분실, 사회생활·친구 간 문제발생, 타인과의 언쟁, 기물파손, 음주운전으로 나누어 조사함

1) 성별 음주행동 결과

□ 경험율

-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본인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음주행동 결과 중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41.5%, 여성 12.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8〉 성별 음주행동결과 경험율

(단위: 명, %)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N	χ^2
전체	267(26.7)	733(73.3)	1000	
성별				110.624***
남성	41.5	58.5	496	
여성	12.1	87.9	504	

***p<.001

□ 개인안전 및 건강 피해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마신 술로 인해 노상취침을 한 경험이 있는지, 성적으로 과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 노상취침경험의 경우 ‘아니오’가 98.3%로 나타남
- 성적으로 과한 행동은 ‘아니오’가 99.5%로 나타남
-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험은 99.1%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노상취침의 경우 여성은 없지만, 남성의 3.4%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적으로 과한 행동도 여성은 없지만, 남성의 1.0%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험은 남성의 1.2%, 여성의 0.6%는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한 가지 경우라도 개인안전 및 건강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7%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특히, 노상취침과 성적으로 과한행동은 남성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부장제사회의 영향이 음주행동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9〉 성별 지난 1년간 개인안전 및 건강피해 경험 여부
(노상취침/성적행동/치료,약물 장기복용)

(단위: %)

구분	N	노상취침			성적행동			치료, 약물 장기복용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체	1000	1.7	98.3		0.5	99.5		0.9	99.1	
성별	남성	496	3.4	96.6	17.573**	1.0	99.0	5.106*	1.2	98.8
	여성	504	0.0	100.0		0.0	100.0		0.6	99.4

*p<.05, **p<.01

□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마신 술로 인해 부부싸움/갈등, 자녀갈등,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 지난 1년간 부부싸움/갈등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3.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갈등도 전체 응답자의 4.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위기도 전체 응답자의 3.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지난 1년간 부부싸움/갈등경험은 남성의 경우 22.0%, 여성의 경우 4.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갈등은 남성의 경우 8.3%, 여성의 경우 1.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위기는 남성의 경우 7.1%, 여성의 경우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후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 중 부부싸움과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부싸움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며 부부싸움과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40〉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부부싸움또는갈등/자녀와 갈등/가정생활위기)

(단위: %)

구분		부부싸움 또는 갈등			자녀와 갈등			가정생활 위기			
		N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체		1000	13.1	86.9		4.9	95.1		3.9	96.1	
성별	남성	496	22.0	78.0	68.104**	8.3	91.7	23.930**	7.1	92.9	26.161**
	여성	504	4.4	95.6		1.6	98.4		0.8	99.2	

**p<.01

□ 직장생활 피해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마신 술로 인해 직장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지, 실직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 직장생활문제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하는 일에 문제발생도 전체 응답자의 6.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직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0.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직장생활문제경험은 남성의 경우 5.6%, 여성의 경우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하는 일에 문제발생은 남성의 경우 12.5%, 여성의 경우 1.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직경험은 남성의 경우만 1.0%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후 직장생활문제는 ‘하는 일에 문제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은 없지만, 남성의 경우 실직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1〉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직장생활 문제발생/하는 일에 문제발생/실직경험)

(단위: %)

구분		N	직장생활 문제발생			하는 일에 문제발생			실직경험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체		1000	3.2	96.8		6.7	93.3		0.5	99.5	
성별	남성	496	5.6	94.4	18.95*	12.5	87.5	52.90*	1.0	99.0	5.106*
	여성	504	0.8	99.2		1.0	99.0		0.0	100.0	

*p<.05, **p<.01

□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마신 술로 인해 카드·현금을 분실한 적이 있는지,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타인과 언쟁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 카드·현금을 분실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 발생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타인과의 언쟁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카드·현금을 분실한 경험은 남성의 경우 14.5%, 여성의 경우 2.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 발생은 남성의 경우 10.9%, 여성의 경우 1.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타인과의 언쟁경험은 남성의 경우 8.5%, 여성의 경우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후 경제적 손실과 사회관계의 어려움 중 ‘카드·현금을 분실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2〉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카드, 현금, 지갑 분실/사회생활, 친구 간 문제/타인과의 언쟁)

(단위: %)

구분		카드, 현금, 지갑 분실			사회생활, 친구 간 문제발생			타인과의 언쟁			
		N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체		1000	8.5	91.5		6.0	94.0		4.6	95.4	
성별	남성	496	14.5	85.5	45.78**	10.9	89.1	41.65**	8.5	91.5	33.57**
	여성	504	2.6	97.4		1.2	98.8		0.8	99.2	

**p<.01

□ 사건·사고경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마신 술로 인해 가정·사업장·공공장소의 기물파손과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 가정·사업장·공공장소의 기물파손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음주운전은 전체 응답자의 12.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가정·사업장·공공장소의 기물파손 경험은 남성의 경우 2.8%, 여성의 경우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음주운전은 남성의 경우 18.8%, 여성의 경우 5.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후 사건·사고 경험 중 남녀모두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3〉 성별 지난 1년간 음주의 영향 경험 여부 (기물파손/음주운전)

(단위: %)

구분		N	기물 파손			음주운전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 체		1000	1.8	98.2		12.0	88.0	
성별	남성	496	2.8	97.2	5.822*	18.8	81.3	42.461**
	여성	504	0.8	99.2		5.4	94.6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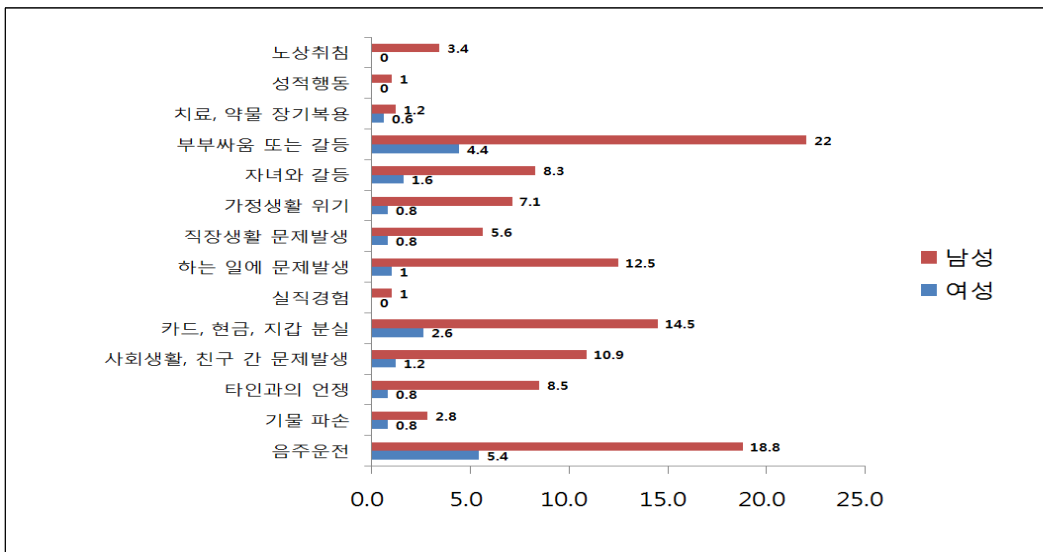
□ 성별 음주행동 결과

○ 지난 1년간 자신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 행한 음주행동 결과를 성별로 종합분석 한 결과

- 남성의 경우는 부부싸움 또는 갈등(22.0%)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 다음이 음주운전(18.8%), 카드·현금·지갑분실 14.5%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음주운전(5.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부싸움 또는 갈등(4.4%), 자녀와의 갈등(1.6%)으로 나타남

〈그림 4-12〉 성별 지난 1년간 음주 결과

(단위: %)



- 자신의 음주로 인한 음주행동 조사결과 응답자의 26.7%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41.5%, 여성 12.1%로 나타남.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조사결과에서는 전체 35.6%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48.4%, 여성 22.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 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자신의 음주로 인한 음주관련 문제경험이 적으며, 남녀모두 전국보다 적음을 알 수 있음

다. 음주로 인한 피해

1) 공공장소에서의 피해

- 응답자 1000명에게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음주행동과 관련해 노상에서 취침을 하는 사람이나 성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음주를 한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조사함

□ 경험을

- 응답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음주행동으로 인해 경험한 피해가 한번이라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72.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78.2%, 여성 67.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성별 공공장소에서의 피해 경험율

(단위: 명, %)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N	χ^2
전체	726(72.6)	274(27.4)	1000	
성별				15.658***
남성	78.2	21.8	496	
여성	67.1	32.9	504	

***p<.001

□ 노상취침과 성적행동 목격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의 노상취침과 성적행동을 목격했는지

조사한 결과

- 노상취침자 목격은 전체 응답자의 69.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적행동 목격은 전체 응답자의 21.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노상취침자 목격은 남성의 경우 74.4%, 여성의 경우 64.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적행동 목격은 남성의 경우 27.0%, 여성의 경우 16.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의 노상취침과 성적행동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5〉 성별 지난 1년간 타인의 음주 행태 목격 경험 여부
(노상취침자 목격/ 성적행동 목격)

(단위: %)

구분		노상취침자 목격				성적행동 목격		
		N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 체		1000	69.2	30.8		21.8	78.2	
성별	남성	496	74.4	25.6	12.462**	27.0	73.0	15.707**
	여성	504	64.1	35.9		16.7	83.3	

**p<.01

□ 언어폭력과 성희롱 경험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 언어폭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9.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언어폭력의 경우 남성 38.3%, 여성 21.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의 경우 남성 2.8%, 여성 5.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성은 언어폭력을 여성은 성희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6〉 성별 지난 1년간 타인의 음주 행태 목격 경험 여부
(언어폭력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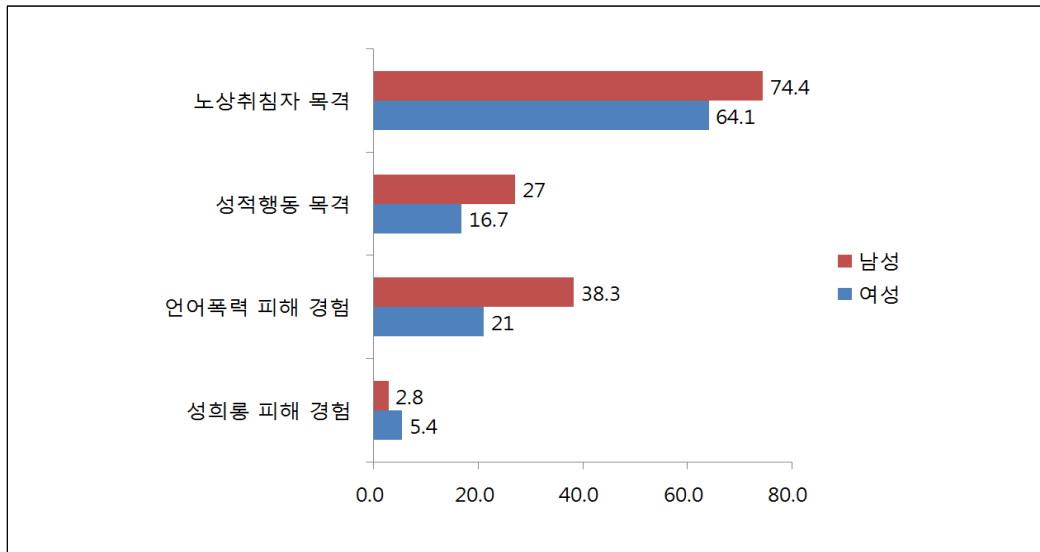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N	언어폭력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경험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 체		1000	29.6	70.4		4.1	95.9	
성별	남성	496	38.3	61.7	35.799**	2.8	97.2	4.084*
	여성	504	21.0	79.0		5.4	94.6	

*p<.05, **p<.01

〈그림 4-13〉 지난 1년간 공공장소에서의 피해경험

(단위: %)



2) 가정에서의 피해

- 응답자 1000명에게 지난 1년간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 가정 폭력, 경제적 어려움,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위기, 자녀와의 갈등·관계에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조사함

□ 경험율

- 응답자에게 가정에서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음주행동으로 인해 경험한 피해가 한번이라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3.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12.7%, 여성 14.9%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7〉 성별 가정에서의 피해 경험율

(단위: 명, %)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N	χ^2
전체	138(13.8)	862(86.2)	1000	
성별				0.998
남성	12.7	87.3	496	
여성	14.9	85.1	504	

□ 배우자의 성관계강요·가정폭력·경제적 곤란함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음주로 강제적 성관계 경험, 가정폭력, 경제적 곤란함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 강제적 성관계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은 전체 응답자의 5.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곤란함은 전체 응답자의 4.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강제적 성관계 경험은 남성의 경우 2.6%, 여성의 경우 6.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은 남성의 경우 5.8%, 여성의 경우 5.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곤란함은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여성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 가족의 음주행태 경험여부
(배우자의 성관계강요/가정폭력발생/경제적곤란함)

(단위: %)

구분		배우자의 성관계 강요				가정폭력 발생			경제적 곤란 발생 경험		
		N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 체		1000	4.7	95.3		5.7	94.3		4.5	95.5	
성별	남성	496	2.6	97.4	9.497**	5.8	94.2		4.2	95.8	
	여성	504	6.7	93.3		5.6	94.4		4.8	95.2	

**p<.01

□ 가정·결혼생활 위기와 자녀와의 갈등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의 음주로 인해 가정·결혼생활의 위기와 자녀와의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 가정·결혼생활의 위기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갈등도 전체 응답자의 5.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가정·결혼생활의 위기는 남성의 경우 6.5%, 여성의 경우 5.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갈등은 남성의 경우 5.8%, 여성의 경우 5.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결혼생활의 위기와 자녀와의 갈등을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9〉 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 가족의 음주행태 경험여부
(가정·결혼생활 위기/자녀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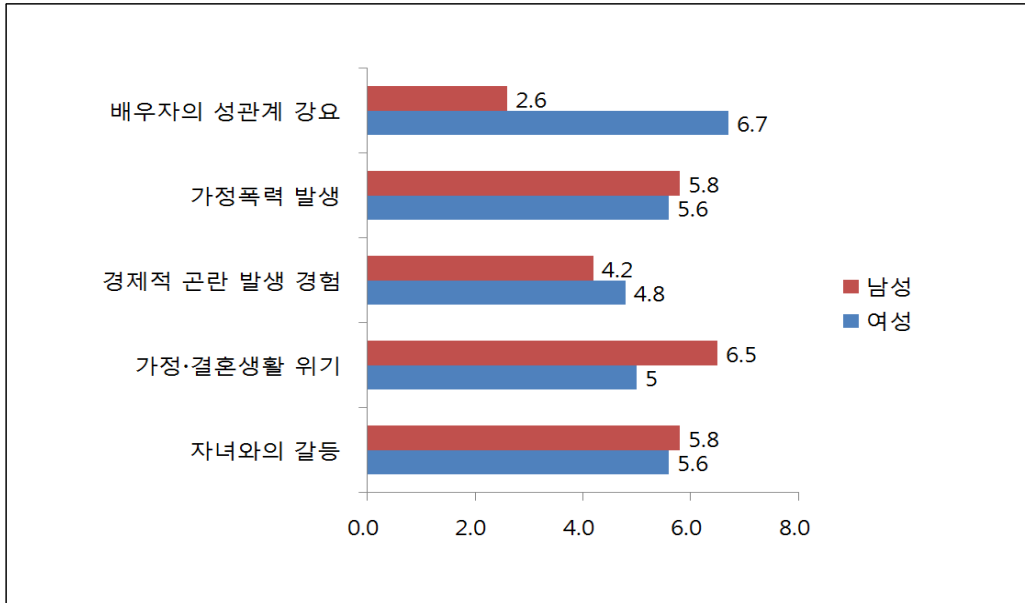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정·결혼생활 위기		자녀와의 갈등	
	N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1000	5.7	94.3	5.7	94.3

성별	남성	496	6.5	93.5	5.8	94.2
	여성	504	5.0	95.0	5.6	94.4

〈그림 4-14〉 지난 1년간 가정에서의 피해경험

(단위: %)



□ 타인의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에서의 피해조사결과 응답자의 72.6%가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78.2%, 여성 67.1%로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정에서의 피해조사결과 응답자의 13.8%가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12.7%, 여성 14.9%로 나타남.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46%가 타인으로부터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했으며, 성별로 남성 56.7%, 여성 35.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공공장소에서의 피해경험은 제주지역이 전국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마. 음주 이유

□ 음주를 마실 때의 상황

○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어떤 상황일 때 음주를 마셨는지를 조사한 결과

- 회식이 있을 때가 전체 응답자의 30.4%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19.2%, 마사지 않음을 제외하고 노동 등 육체적일로 힘들 때 11.1%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과 여성 모두 ‘회식이 있을 때’가 각각 29.0%, 31.7%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기분이 안 좋을 때 19.4%, 노동 등 육체적 일 힘들 때 15.7%,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14.3%, 마사지 않음 11.7%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마사지 않음 25.4%, 기분이 안 좋을 때 19.0%, 기분 좋을 때 9.5% 순임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회식’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들보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의 고단함을 음주로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여성의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좋아도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술이 여성들의 기분전환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50〉 성별 지난 1년간 음주를 마실 때의 상황

(단위: %)

구분		기분이 안 좋을 때(답답, 우울, 화 등)	직장에서 스트레스 있을 때	노동 등 육체적 일 힘들 때	실직 및 경제적 어려울 때	회식이 있을 때	기타	기분 좋을때	안마심	N	χ^2
전 체		19.2	9.4	11.1	0.3	30.4	3.3	7.7	18.6	1000	
성 별	남성	19.4	14.3	15.7	0.4	29.0	3.6	5.8	11.7	496	75.175**
	여성	19.0	4.6	6.5	0.2	31.7	3.0	9.5	25.4	504	

**p<.01

□ 모임 및 단체 내 회식

○ 응답자에게 모임 및 단체 내 회식을 10번 정도 할 때 음주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 9-10회가 전체 응답자의 30.5%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거의 없다 22.3%, 1-2회 20.8%, 3-4회 10.5%, 5-6회 8.8%, 7-8회 7.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의 경우 9-10회가 49.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 순으로 1-2회 12.4%, 5-6회 10.0%, 거의 없다 10.0%, 7-8회 9.5%, 3-4회 8.2%임
- 여성의 경우는 거의 없다 34.6%, 1-2회 29.1%, 3-4회 12.8%, 9-10회 11.3%, 5-6회 7.6%, 7-8회 4.7% 임

○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30.5%는 모임이나 단체의 ‘회식’ 이 있을 때 마다 음주를 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도 11.3%는 모임이나 단체의 ‘회식’ 이 있을 때 마다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1〉 성별 모임 또는 단체 내 회식 시 음주빈도

(단위: %)

구분		거의 없다	1-2회	3-4회	5-6회	7-8회	9-10회	N	χ ²
전 체		22.3	20.8	10.5	8.8	7.1	30.5	761	
성별	남성	10.0	12.4	8.2	10.0	9.5	49.9	379	181.03**
	여성	34.6	29.1	12.8	7.6	4.7	11.3	382	

**p<.01

□ 음주를 하는 주된 이유

○ 응답자에게 보통 음주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 술 마시는 문화가 전체 응답자의 27.8%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직장회식 21.0%, 전혀 마시지 않음 19.8%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의 경우 술 마시는 문화가 28.0%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 순으로 직장회식 22.8%, 전혀 마시지 않음 11.7%임
- 여성의 경우는 전혀 마시지 않음 27.8%, 술 마시는 문화 27.6%, 직장회식 19.2%임

○ 조사결과 전혀 마시지 않음을 제외한 남녀 모두는 술을 마시는 문화와 직장의 회식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성별 주된 음주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전혀 마시 지 않는 다	음주 하는 부모 보고 자라	접대 때문 에	직장 회식 때문 에	술 마시 는 문화	직장 스트 레스	가정 문제 스트 레스	술을 마셔 야 대화 잘되	하루도 술을 않먹 으면 안되	다른 여가활 동이 없어서	우울· 불안· 불면 때문 에	N	χ^2
전 체		19.8	2.8	3.0	21.0	27.8	6.5	2.3	7.6	0.4	8.0	0.8	1000	
성별	남성	11.7	2.2	4.4	22.8	28.0	9.3	2.2	9.1	0.8	8.5	1.0	496	61.475**
	여성	27.8	3.4	1.6	19.2	27.6	3.8	2.4	6.2	0.0	7.5	0.6	504	

**p<.01

□ 제주도민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

○ 응답자들에게 왜 제주도민들은 고위험 음주자와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율이 높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26.6%가 권당이라는 친밀한 문화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지역이 좁아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서 22.9%,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 13.9%,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11.3%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녀 모두 관광 친밀한 문화가 각각 24.4%, 28.8%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 순으로 남녀모두 지역 좁아 이동거리가 짧아서가 각각 24.0%, 21.8%,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가 각각 14.7%, 13.1%,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각각 12.5%, 10.1%임

○ 조사결과 관광의 친밀한 문화와 좁은 지역으로 인한 이동의 간편성, 다른 여가문화의 부재가 제주도민의 음주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53〉 성별 제주도민 음주를 높은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4.3 사건의 영향 때문에	관광 친밀한 문화 때문에	지역 좁아 이동거 리짧아	관광지 이기 때문에	1차산 업에 종사자 많아서	일자리 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남자가 많아서	다른 여가활 동이 없어서	기타	N
전 체		1.0	26.6	22.9	7.6	11.3	5.7	2.8	6.9	13.9	1.3	1000
성별	남성	1.4	24.4	24.0	7.3	12.5	6.3	2.6	5.6	14.7	1.2	496
	여성	0.6	28.8	21.8	7.9	10.1	5.2	3.0	8.1	13.1	1.4	504

□ 음주이유 조사결과 회식(30.4%)으로 음주를 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음주를 하는 주된 이유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27.8%로 가장 많았음. 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제주 지역의 음주원인은 회식 및 음주문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음

바. 직장인의 음주

□ 직장 내 회식

○ 응답자들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식을 10번 정도 할 때 음주를 몇 회 정도하는지 조사한 결과

- 9-10회가 전체 응답자의 33.8%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거의 없음 24.6%, 1-2회 13.8%, 5-6회 10.6%, 7-8회 10.2%, 3-4회 7.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의 경우 9-10회가 44.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 순으로 거의 없음 18.8%, 7-8회 11.2%, 5-6회 10.9%, 1-2회 9.8%, 3-4회 4.3%임
- 여성의 경우는 거의 없음 32.4%, 1-2회 19.1%, 9-10회 18.6%, 3-4회 10.8%, 5-6회 10.3%, 7-8회 8.8% 순임

○ 조사결과 직장인들의 33.8%는 ‘회식’ 이 있을 때 마다 음주를 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직장회식이 거의 없다는 경우도 남녀모두 각각 18.8%와 32.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4〉 성별 직장내 회식 시 음주빈도

(단위: %)

구분		9-10회	7-8회	5-6회	3-4회	1-2회	거의 없다	N	χ^2
전 체		33.8	10.2	10.6	7.1	13.8	24.6	480	
성별	남성	44.9	11.2	10.9	4.3	9.8	18.8	276	47.750**
	여성	18.6	8.8	10.3	10.8	19.1	32.4	204	

**p<.01

□ 직장 내 비즈니스 접대

- 직장 내 비즈니스 접대로 음주를 하는 정도를 조사함.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없다 ~ 5 매우 많다)를 사용함. 전혀없다가 60.6%로 가장 많았음.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1.60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비즈니스 접대 시 음주를 하는 정도에 있어 남성은 1.86이며, 여성은 1.26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직장인들의 비즈니스 접대 시 음주를 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성의 경우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5〉 성별 비즈니스 접대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평균	N	F
전 체		60.6	24.4	10.6	2.9	1.5	1.60	480	
성별	남성	46.0	32.2	14.5	4.7	2.5	1.86	276	60.853**
	여성	80.4	13.7	5.4	0.5	0.0	1.26	204	

**p<.01

- 제주지역 직장인의 음주빈도를 회식과 비즈니스 접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회식의 33.8%가 회식을 할 때마다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즈니스 접대로 인한 음주는 전혀 없다가 60.6%로 가장 많았음. 한국음주문화센터의 「직장인 음주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2002)에서도 우리나라 직장인의 음주이유는 직장 회식이 77.4%로 가장 많으며 비즈니스 접대는 24.2%로 직장회식이 중요한 음주원인임을 알 수 있음

6. 절주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향

- 응답자를 대상으로 절주의향과 절주의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이유, 음주문제발생시 관련 기관에서의 상담 의향을 조사하였음

□ 절주 의향

- 응답자들에게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별로 없다’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간 많다’ 26.3%, ‘전혀 없다’ 14.9%, ‘매우 많다’ 6.8%로 나타남. 즉 절주의향이 ‘없다’가 46.9%로 ‘있다’ 3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약간 많다’ 36.1%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별로 없다’ 31.9%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 절주의향을 ‘있다’와 ‘없다’로 살펴본 결과
 - 남성의 경우 절주의향이 ‘있다’ 45.4%가 ‘없다’ 43.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절주의향이 ‘없다’가 50.6%로 ‘있다’ 21.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20대는 ‘별로 없다’ 41.1%, 30대는 ‘별로 없다’와 ‘약간 많다’ 각각 34.3%, 40대는 ‘별로 없다’ 33.3%, 50대도 ‘별로 없다’ 33.8%, 60대 이상은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43.3%) 절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령별로 절주의향을 ‘있다’와 ‘없다’로 살펴본 결과
 - 20대는 절주의향이 ‘없다’가 57.8%로 ‘있다’ 30.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는 절주의향이 ‘없다’가 48.9%로 ‘있다’ 41.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절주의향이 ‘없다’가 47.8%로 ‘있다’ 3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는 절주의향이 ‘없다’가 51.2%로 ‘있다’ 3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절주의향이 ‘없다’가 32.9%로 ‘있다’ 23.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은 ‘별로 없다’ 32.7%, 제주시 읍면지역도 ‘별로 없다’ 31.1%, 서귀포시 동지역도 ‘별로 없다’ 37.4%,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35.8%) 절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지역별로 절주의향을 ‘있다’와 ‘없다’로 살펴본 결과
 - 제주시 동지역은 절주의향이 ‘없다’가 48.2%로 ‘있다’ 3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시 읍면지역은 절주의향이 ‘없다’가 43.1%로 ‘있다’ 3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동지역은 절주의향이 ‘없다’가 54.4%로 ‘있다’ 2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절주의향이 ‘없다’가 37.4%로 ‘있다’ 26.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6〉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절주의향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전혀 안 마심	N	χ^2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 체		46.9	14.9	32.0	33.1	26.3	6.8	20.0	1000	
성별	남성	43.2	11.1	32.1	45.4	36.1	9.3	11.5	496	89.928**
	여성	50.6	18.7	31.9	21.1	16.7	4.4	28.4	504	
연령 별	20대	57.8	16.7	41.1	30.4	24.4	6.0	11.9	168	115.43**
	30대	48.9	14.6	34.3	41.0	34.3	6.7	10.1	178	
	40대	47.8	14.5	33.3	39.0	28.9	10.1	13.2	228	
	50대	51.2	17.4	33.8	32.3	25.1	7.2	16.4	195	
	60대 이상	32.9	12.1	20.8	23.8	19.9	3.9	43.3	231	
지역 별	제주시 동	48.2	15.5	32.7	36.6	29.1	7.5	15.3	563	37.688**
	제주시 읍면	43.1	12.0	31.1	33.5	28.7	4.8	23.4	167	
	서귀포시 동	54.4	17.0	37.4	24.5	17.7	6.8	21.1	147	
	서귀포시 읍면	37.4	13.8	23.6	26.8	20.3	6.5	35.8	123	

**p<.01

□ 절주 의향이 없는 이유

○ 절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일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26.1%,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4.8%, ‘술이 좋아서’ 14.4%,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의 경우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20.7%, ‘술이 좋아서’ 18.0%, ‘적당히 마셔서’ 13.8%,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적당히 마셔서’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1.4%, ‘술이 좋아서’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 20대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2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27.6%,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7.3%, ‘술이 좋아서’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2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21.6%, ‘술이 좋아서’ 20.5%,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4.8%,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0대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2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28.7%,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4.8%,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3.9%, ‘술이 좋아서’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0대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19.8%,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6.8%, ‘술이 좋아서’ 12.9%,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적당히 마셔서’ 3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28.6%,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20.8%, ‘술이 좋아서’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적당히 마셔서’ 2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25.6%, ‘술이 좋아서’ 17.2%,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13.9%,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 27.4%, ‘술이 좋아서’ ·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각각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5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마셔서’와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각각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와 ‘적당히 마셔서’ 각각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20.0%, ‘술이 좋아서’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57〉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절주의향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술이 좋아서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스트레스 해소 다른 대안 없어서	사교 기회확장, 다른 대안 없어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	우울·불안·불면 때문에	기타	적당히 마셔서	N	χ^2
전 체		14.4	10.8	14.8	31.4	0.2	0.6	1.7	26.1	472	
성 별	남성	18.0	12.9	20.7	31.3	0.0	0.9	2.3	13.8	217	39.949**
	여성	11.4	9.0	9.8	31.4	0.4	0.4	1.2	36.5	255	
연 령 대	20대	14.3	4.1	17.3	29.6	1.0	1.0	5.1	27.6	98	46.168*
	30대	20.5	14.8	12.5	29.5	0.0	0.0	1.1	21.6	88	
	40대	11.1	14.8	13.9	29.6	0.0	0.0	1.9	28.7	108	
	50대	12.9	16.8	10.9	38.6	0.0	1.0	0.0	19.8	101	
	60대 이상	14.3	1.3	20.8	28.6	0.0	1.3	0.0	33.8	77	
지 역 별	제주시 동	17.2	11.7	13.9	25.6	0.0	1.1	2.6	27.8	273	36.159*
	제주시 읍면	13.7	13.7	13.7	30.1	0.0	0.0	1.4	27.4	73	
	서귀포시 동	7.4	7.4	16.0	51.9	1.2	0.0	0.0	16.0	81	
	서귀포시 읍면	11.1	6.7	20.0	31.1	0.0	0.0	0.0	31.1	45	

*p<.05, **p<.01

□ 음주문제 발생 시 상담 의향

- 전체 응답자들에게 만약 본인에게 음주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 의료기관,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 63.4%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58.5%, 여성 68.3%는 상담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있다’가 30대에서 6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68.9%), 20대(61.9%), 50대(61.5%), 60대 이상(55.8%)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있다’가 제주시 동지역에서 6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동지역(63.9%), 제주시 읍면지역(59.3%), 서귀포시 읍면(48.0%)순으로 나타남

〈표 4-58〉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상담의향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N	χ^2
전 체		63.4	36.6	1000	
성별	남성	58.5	41.5	496	89.928**
	여성	68.3	31.7	504	
연령 별	20대	61.9	38.1	168	12.074*
	30대	69.7	30.3	178	
	40대	68.9	31.1	228	
	50대	61.5	38.5	195	
	60대 이상	55.8	44.2	231	
지역 별	제주시 동	67.9	32.1	563	18.670**
	제주시 읍면	59.3	40.7	167	
	서귀포시 동	63.9	36.1	147	
	서귀포시 읍면	48.0	52.0	123	

*p<.05, **p<.01

- 절주의향조사결과 절주의향이 ‘없다’가 46.9%로 ‘있다’ 3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 31.0%로 가장 많았음. 절주의향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약간 많다’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별로 없다’가 31.9%로 가장 많았음. 전국의

경우도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절주할 생각이 없다’가 68.7%로 많았으며(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대체로 전국이 제주보다 절주의향이 없음을 알 수 있음

7. 음주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음주인식을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과 문제음주의 심각성, 본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함

□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

○ 조사결과,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42.3%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5.3%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 남성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47.4%)가 가장 많았음
- 여성들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8.7%로 가장 많았음

○ 조사결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9〉 성별 한국인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N	χ^2
전 체		5.3	42.3	52.4	1000	
성별	남성	6.7	47.4	46.0	496	17.172**
	여성	4.0	37.3	58.7	504	

**p<.01

□ 문제음주의 심각성

○ 문제음주의 심각성을 가족피해와 사회피해로 나누어 조사함

○ 가족피해 정도

- 가족피해 정도를 조사함. 조사척도는 4점 척도(1 매우 심각하다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사용함
- 조사결과, 약간 심각하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0으로 중앙값인 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여성(3.26)이 남성(3.13)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표 4-60〉 문제음주의 가족피해 심각성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N	F
전 체		1.3	13.8	48.8	36.1	3.20	1000	
성별	남성	1.8	15.5	50.2	32.5	3.13	496	7.901**
	여성	0.8	12.1	47.4	39.7	3.26	504	

**p<.01

○ 사회피해 정도

- 사회피해 정도를 조사함. 조사척도는 4점 척도(1 매우 심각하다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사용함
- 조사결과, 약간 심각하다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3으로 중앙값인 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여성(3.33)이 남성(3.13)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표 4-61〉 문제음주의 사회적 피해 심각성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N	F
전 체		1.2	11.8	49.7	37.3	3.23	1000	
성별	남성	1.8	14.3	52.6	31.3	3.13	496	19.782**
	여성	0.6	9.3	46.8	43.3	3.33	504	

**p<.01

□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

- 전체응답자의 음주습관을 살펴본 결과 77.8%가 자신의 음주습관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습관인식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 남성 고위험 음주자의 63.8%가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고위험 음주자의 73.2%도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62〉 성별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습관인식

(단위: 명, %)

구분	평소음주습관 정상인식		
	N	예	아니오
남성	174(100.0)	111(63.8)	63(36.2)
여성	41(100.0)	30(73.2)	11(26.8)

- 음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한국인의 음주행동에는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47.4%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8.7%로 가장 많았음. 전국 조사결과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

을 할 필요는 없다'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여성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가장 많아(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제주 지역이 전국보다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제주지역이나 전국이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대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가. 음주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 음주관련 정책을 절주 캠페인 경험 여부, 음주예방교육 경험여부, 알코올 관련 서비스기관 인지 여부로 나누어 조사함

□ 절주 캠페인 경험유무

○ 조사결과, '없다'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절주 캠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모두 '없다'가 각각 53.6%, 54.4%로 가장 많았음

○ 절주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63〉 성별 절주 캠페인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N
전 체		46.0	54.0	1000
성별	남성	46.4	53.6	496
	여성	45.6	54.4	504

□ 음주예방교육

- 조사결과, ‘없다’가 94.7%로 가장 많았으며,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모두 ‘없다’가 각각 94.0%, 95.4%로 가장 많았음

〈표 4-64〉 성별 음주관련 피해예방교육 경험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N
전 체		5.3	94.7	1000
성별	남성	6.0	94.0	496
	여성	4.6	95.4	504

□ 알코올 관련 서비스 및 기관인지여부

- 조사결과 〈표 4-65〉 참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모른다’가 79.5%로 나타남
 - 보건소의 경우는 ‘모른다’가 35.2%로 나타남
 - 알코올 남용, 의존자 관리서비스 내용의 경우는 ‘모른다’가 85.6%로 나타남

〈표 4-65〉 성별 알콜 관련 서비스 및 기관 인지여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상담,치료,재활)/ 알콜 남용,의존자 관리)

(단위: %)

구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상담,치료,재활)		알콜 남용,의존자 관리	
		N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전 체		1000	20.5	79.5	64.8	35.2	14.4	85.6
성별	남성	496	20.0	80.0	65.3	34.7	13.7	86.3
	여성	504	21.0	79.0	64.3	35.7	15.1	84.9

○ 조사결과 <표 4-66> 참조

- 알코올 관련 자조모임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모른다’가 82.9%로 나타남
-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의 경우 ‘모른다’가 73.2%로 나타남
-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 서비스 내용의 경우도 ‘모른다’가 78.4%로 나타남

**<표 4-66> 성별 알콜 관련 서비스 및 기관 인지여부 (알콜관련 자조모임 및 지원프로/
알콜문제 예방 및 교육/알콜 남용 및 의존자재활)**

(단위: %)

구분		알콜관련 자조모임 및 지원프로			알콜문제 예방 및 교육		알콜 남용 및 의존자 재활	
		N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전 체		1000	17.1	82.9	26.8	73.2	21.6	78.4
성별	남성	496	15.9	84.1	24.2	75.8	19.8	80.2
	여성	504	18.3	81.7	29.4	70.6	23.4	76.6

○ 남녀모두 알코올 관련 서비스와 기관인지여부에서 ‘모른다’가 ‘안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음주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절주 캠페인 경험 ‘없다’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녀 모두 절주 캠페인 경험 ‘없다’가 각각 53.6%, 54.4%로 나타남. 전국의 경우는 ‘없다’가 57.2%로 남성은 54.6%, 여성은 59.8%로 나타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전국이 제주지역보다 절주 캠페인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정책욕구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관련 정책욕구를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청소년 음주예방, 음주예방교육,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조사함

□ 건전한 음주환경조성 정책

- 조사결과,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27.6%,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공장소 지정 22.6%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7〉 성별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정책 1순위

(단위: %)

구분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공장소 지정	주취 행동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제도 도입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	과도한 음주피해로부터 도민 보호 법률제정	기업 및 공공기관부 사회식을 다른 문화활동으로 대체	N
전 체		22.6	35.2	27.6	7.6	7.0	1000
성별	남성	22.6	34.9	26.2	9.7	6.7	496
	여성	22.6	35.5	29.0	5.6	7.3	504

□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 조사결과,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않는 업소 처벌 강화’ 가 6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도내잡지, 신문, 방송, 옥외광고에 청소년의 음주를 유도·권장하는 광고규제’ 가 17.4%,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후원 금지’ 13.0%, ‘주류 판매시간을 제한한다’ 7.3% 순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8〉 성별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1순위

(단위: %)

구분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없는 업소처벌 강화	도내잡지, 신문, 방송, 옥외광고에 청소년의 음주유도 광고규제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후원 금지	주류 판매시간을 제한한다	N
전 체		62.3	17.4	13.0	7.3	1000
성별	남성	60.9	17.1	13.5	8.5	496
	여성	63.7	17.7	12.5	6.2	504

□ 음주예방교육 정책

○ 조사결과,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도민 참여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가 23.2%, ‘음주 예방교육내용에 스트레스해소 및 관리 프로그램 포함’ 21.1%, ‘도내 절주·음주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8.6% 순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9〉 음주예방교육 정책 1순위

(단위: %)

구분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도민 참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음주 예방교육내용 스트레스해소 및 관리 프로그램 포함	도내에 절주·음주예방교 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N
전 체		23.2	47.1	21.1	8.6	1000
성별	남성	25.2	44.4	23.0	7.5	496
	여성	21.2	49.8	19.2	9.7	504

□ 문제음주자 및 가족지원 정책

○ 조사결과,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 치료, 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가 4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문제음주자 가족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확대’가 19.8%,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 더욱 확대’ 19.4%,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10.9% 순임

○ 성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모두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 치료, 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가 가장 많았지만, ‘문제음주자 가족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확대’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으며,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 더욱 확대’와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0〉 문제음주자 및 가족위한 정책 1순위

(단위: %)

구분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 치료, 보호 통합적 지원마련	문제음주자 가족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N
전 체		49.9	19.8	19.4	10.9	1000
성별	남성	49.2	16.5	21.8	12.5	496
	여성	50.6	23.0	17.1	9.3	504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음주행태

□ 음주율

- 응답자의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은 각각 63.7%, 80.3%, 89.8%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들보다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현재 술을 더 많이 마신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 40대, 30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며 특히, 20대의 연간음주율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간음주율(67.7%), 연간음주율(84.8%), 평생음주율(92.6%)로 가장 높았으며,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아 도시에서 주류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이 더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다른 직업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별로는 월간음주율, 평생음주율은 핵가족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연간음주율은 한부모가구에서 높았음
- 고위험음주율은 34.8%로 남성 35.1%, 여성 8.1%로 남성이 여성보다 4.5배나 더 높게 나타남

□ 음주량

- 응답자들의 19.9%는 한 번에 술을 마실 때 7-9잔을 마시며 성별로 남성 32.7%가 7-9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들은 1-2잔이 27.6%로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7-9잔은 30대에서 28.7%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연령대는 20대·30대·40대들이며, 지역별로 보면, 한 번에 7-9잔을 마시는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마시지 않음’은 제주시 읍면지역(22.2%)과 서귀포시 읍면지역(33.3%)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7-9잔은 대졸에서 27.0%로 가장 높았고,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대학원졸(69.2%)이 가장 많아,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량도 많게 나타남

- 직업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기능/기계/조립직이 각각 36.2%, 70.7%로 가장 많았음. 종교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종교없음’ 이 각각 25.5%, 55.8%로 가장 많았음
- 가구별로 7-9잔과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핵가족·3세대가구·한부모가 구에서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음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음주빈도

- 응답자들이 음주를 하는 횟수는 월1회 미만(26.4%)이 가장 많았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2-3회(29.0%), 여성은 월1회 미만(37.1%)이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20대·30대·40대는 월2-4회가 각각 36.9%, 28.1%, 30.3%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40대(11.0%)가 타 연령들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이 월2-4회로 각각 27.7%, 22.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서귀포시 읍면지역(9.8%)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 월 2-4회(29.3%)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대학원(11.5%)이 가장 많았음.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 마심을 알 수 있음. 직업별로 월2-4회는 단순노무직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기능/기계/조립이 22.4%로 다른 직업에 비해 매일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음
- 가구별로 핵가족(29.8%)과 3세대가족(36.2%)은 월2-4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는 한부모 가구에서 13.3%로 가장 많았음

□ 폭음율

- 남성과 여성의 폭음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57.5%)이 여성(1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여성의 경우 20대의 폭음율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의 폭음율이 2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 고위험 음주율의 증가

- 조사결과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 고위험 음주율이 제주특별자치도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보다 증가함
 -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많이 더 자주 마시며, 고위험음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30대·40대의 음주율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연간음주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한 번에 5잔을 마시는 경우도 가장 높았음. 특히, 20대 여성들은 조사결과 폭음을 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량과 음주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들과 대학생들 대상의 절주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문직과 기능/기계/조립직의 음주율, 음주량, 음주빈도, 폭음을 높음
- 직업별로 전문직일수록, 생산현장의 기술직일수록 음주량과 음주빈도, 폭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실과 작업장에서의 개인 안전 확보 및 일의 능률을 위해 전문직과 생산직의 경우 절주교육이 필요하며 직장 내 음주문화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됨

나. 음주상황

□ 음주시작연령 및 최초음주동기

- 응답자의 최초음주 나이는 평균 21.9세이며, 남성은 만 19.8세, 여성은 만 24.3세
- 최초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많았음(28.8%). 남성의 경우는 또래집단의 영향(38.1%)이 여성의 경우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32.9%)로 가장 많았음

□ 음주상대와 음주장소

- 조사결과 응답자의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1위는 38.8%로 ‘친구/동창’ 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장소는 1위가 ‘식당’ (37.6%)으로 나타남

□ 음주차수 및 한번 마실 때 평균 술값

- 음주차수는 1차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남성은 2차(44.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1차(47.4%)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 20·30대·40대는 2차가 많으며 특히, 20대의 2차(44.0%)가 가장 많았음
- 한번 마실 때의 술값은 평균 41,153원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평균 48,407원을, 여성은 평균 31,523원을 지출함. 연령별로 50대가 48,369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고등학교 대상 음주문제예방교육 필요
 - 조사결과 제주지역 남성들의 음주량, 음주빈도, 고위험음주율이 여성보다 높음. 남성 응답자의 최초음주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로 나타남
 - 남성들의 최초음주동기 또한 또래집단의 영향이 높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 식당에서의 음주량 규제 필요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식당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1인이 1회당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을 규제함으로써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1차만 만시는 음주문화 조성 필요
 - 음주차수를 조사한 결과 남자들은 2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음주를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하는 20대·30대·40대도 2차가 가장 많았음

다. 음주결과

□ 음주행동 결과

- 음주관련 문제- 개인
 -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횟수의 경우 월1회 미만 127명(12.7%), 월1회 58명(5.8%), 주1회 19명(1.9%), 거의매일 17명(1.7%)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의 경우

월1회 미만인 20.8%로 여성(4.8%)보다 많았으며, 거의 매일도 남성(2.6%)이 여성(0.8%)보다 많았음

- 응답자의 12.0%는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가족, 친구, 의사에게 걱정 또는 술 끊기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28.6%가 여성은 5.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노상취침을 한 경험의 경우 ‘예’가 1.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남성은 3.4%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술로 인한 ‘카드·현금분실’ 경험은 응답자의 8.5%로 나타났으며, 남성 14.5%, 여성 2.6%로 나타남
- 술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 어려움 경험은 6.0%로 남성 10.9%, 여성 1.2%로 나타남

○ 음주관련 문제- 가족

- 지난 1년간 부부싸움/갈등 경험은 응답자의 13.1%로 남성은 22.0%가 여성은 4.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갈등도 응답자의 4.9%가 경험했으며 남성 8.3%, 여성 1.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 위기 경험도 응답자의 3.9%가 경험했으며, 남성 7.1%, 여성 0.8%로 나타남

○ 음주관련 문제- 직장생활

- 음주 때문에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응답자는 월1회 미만인 99명(9.9%), 월1회 59명(5.9%), 주1회 15명(1.5%), 거의 매일 5명(0.5%)으로 나타남. 성별로 월1회 미만의 경우 남성(15.7%)이 여성(4.2%)보다 많았음
- 지난 1년간 직장생활 문제발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직장생활문제를 경험했으며, 남성 5.6%, 여성 0.8%로 나타남. 실직경험은 0.5%가 경험했으며, 남성(1.0%)만 경험함

○ 음주관련 문제- 사회

- 지난 1년간 본인의 음주로 인한 타인과의 언쟁 경험을 조사한 결과 4.6%가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8.5%, 여성 0.8%로 나타남

- 본인의 음주로 가정·사업장·공공장소의 기물파손을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가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2.8%, 여성 0.8%로 나타남
- 음주운전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0%로 남성 18.8%, 여성 5.4%로 나타남

○ 성별 음주행동 결과

- 남성의 경우는 부부싸움 또는 갈등(22.0%)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 다음이 음주운전(18.8%), 카드·현금·지갑분실 14.5%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음주운전(5.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부싸움 또는 갈등(4.4%), 자녀와의 갈등(1.6%)로 나타남

□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 공공장소

- 응답자의 69.2%는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른 사람의 노상취침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성적행동의 경우는 21.1%가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언어폭력과 성희롱경험은 각각 29.6%, 4.1%로 나타남
- 성별로 노상취침은 남성 74.4%, 여성 64.1%가 목격함. 성적행동은 남성 27.0%, 여성 16.7%가 목격함. 언어폭력은 남성 38.3%, 여성 21.0%가 경험함. 성희롱은 남성 2.8%, 여성 5.4%경험함
- 공공장소에서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상취침과 성적행동을 남성이 더 많이 목격했으며 언어폭력은 남성들이 성희롱은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

- 응답자의 4.7%는 강제적 성관계, 가정폭력 5.7%, 경제적 곤란 4.5%, 가정·결혼생활 위기 5.7%, 자녀갈등 5.7%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강제적 성관계 경험은 남성 2.6%, 여성 6.7%,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 5.8%, 여성 5.6%, 경제적 곤란 남성 4.2%, 여성 4.8%, 가정·결혼생활 위기는 남성 6.5%, 여성 5.0%, 자녀와의 갈등은 남성 5.8%, 여성 5.6%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여성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정·결혼생활 위기와 자녀갈등도 남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개인의 음주문제로 개인의 건강문제, 가족갈등, 직장 내 어려움 경험

- 조사결과 17명의 응답자는 매일 ‘블랙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12%는 가족 또는 친구·의사에게 술 끊기를 권유받고 있음
- 응답자의 1.7%는 노상취침을 경험했으며, 카드와 현금을 도난(8.5%)당하기도 했으며 음주로 직장생활문제(3.2%)와 실직(0.5%)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로 인한 부부싸움/갈등/자녀갈등과 친구관계/타인과의 언쟁 등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부부싸움/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여성은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여성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가정·결혼생활의 위기를 응답자의 5.7%, 자녀와의 갈등 5.7%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문제자에 대한 치료 외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가족친밀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라. 음주원인

□ 마실 때의 상황

- 응답자들은 ‘회식’ (30.4%)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들보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의 고단함을 음주로 해소하고 있음. 반면, 여성의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좋아도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술이 여성들의 기분전환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

- 응답자의 음주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술 마시는 문화(27.8%), 직장회식(21.0%)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술 마시는 문화(28.0%), 직장회식(22.8%)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도 술 마시는 문화(27.6%), 직장회식(19.2%)으로 나타남

□ 제주도민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조사

- 응답자의 26.6%는 제주도민의 높은 음주율은 권당이라는 친밀한 문화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지역이 좁아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22.9%),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13.9%),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11.3%)로 응답함
- 권당의 친밀한 문화와 좁은 지역으로 인한 이동의 간편성, 다른 여가문화의 부재가 제주도민의 음주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술마시는 문화를 대체할 가족, 모임 등 유형별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필요
 - 조사결과 제주지역의 높은 음주율의 원인은 친밀한 권당문화, 좁은 이동거리,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로 나타남
 - 모임·단체 회식 때도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개발이 필요함
- 직장 내 회식 문화를 다른 여가 문화로 대체할 필요성 제기됨
 - 조사결과, 직장 내 회식의 경우 33.8%가 9-10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의 경우 44.9%가 9-10회로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음주를 마셨을 때의 상황도 ‘회식’ (30.4%)이 가장 많았음
 - 직장 내 회식문화를 다른 여가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마. 음주인식

□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관한 인식

- 조사결과, 한국인의 음주행동에는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2.4%로 가장 많았음

- 성별로 남성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47.4%)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들은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가 58.7%로 가장 많았음

☐ 문제음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

- 조사결과 문제음주로 인한 가족피해를 약간 심각하다(48.8%)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음.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0으로 나타남. 여성(3.26)이 남성(3.13)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 사회피해 정도도 약간 심각하다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4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3.23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3.33)이 남성(3.13)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 시사점

- 고위험음주자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남성 고위험 음주자(63.8%)와 여성 고위험 음주자(73.2%)도 본인의 음주습관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들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20대 여성들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필요
 - 특히, 고위험음주자의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을 남성보다 더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 여성들의 34.2%가 폭음을 하고 있음
 - 20대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바. 절주관련 정책인지도 및 정책욕구

☐ 홍보 및 예방교육 경험

- 응답자의 절반이상(54.0%)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절주 캠페인

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모두 절주 캠페인 경험 ‘없다’가 각각 53.6%, 54.4%로 나타남

- 절주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응답자의 94.7%가 예방교육 경험 ‘없다’로 나타나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서비스 이용경험 및 관련 기관 인지

- 조사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모른다’가 79.5%로 나타남. 보건소의 경우는 ‘모른다’가 35.2%, 알코올 남용·의존자 관리서비스 내용도 ‘모른다’가 85.6%로 나타남
- 알코올 관련 자조모임과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모른다’가 82.9%,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의 경우 ‘모른다’가 73.2%,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 서비스 내용의 경우도 ‘모른다’가 78.4%로 나타남. 관련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정책욕구

- 응답자들은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는 1순위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35.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27.6%),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공장소 지정’ (22.6%)을 원했음.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1순위로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않는 업소처벌 강화’ (62.3%), ‘도내잡지, 신문, 방송, 옥외광고에 청소년의 음주를 유도·권장하는 광고규제’ (17.4%),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후원 금지’ (13.0%)를 원했음
- 음주예방교육정책의 경우 응답자들은 1순위로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 (47.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도민 참여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23.2%), ‘음주 예방교육내용에 스트레스해소 및 관리 프로그램 포함’ (21.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정책의 1순위로 응답자들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치료·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 (49.9%), ‘문제음주자 가족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확대’ (19.8%),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 더욱 확대’ (19.4%),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10.9%)을 원했음

□ 시사점

○ 알코올 관련 기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 필요

-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54.0%)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절주 캠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79.5%가 모르고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는 3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코올 남용·의존자 관리서비스 내용(85.6%), 알코올 관련 자조모임과 지원 프로그램(82.9%),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73.2%),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 서비스 내용(78.4%) 등 응답자의 70%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

○ 예방교육의무화 필요

- 응답자의 94.7%가 예방교육 경험 ‘없다’ 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응답자들이 음주예방교육을 위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책은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 (47.1%)임
-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함

○ 건전 음주문화 조성 및 청소년·문제음주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응답자들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는 1순위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 도입’ (35.2%)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1순위로 ‘청소년보호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않는 업소처벌 강화’ (62.3%)를 가장 원했음

-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 정책으로는 1순위로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한 상담·치료·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 지원한다’ (49.9%)를 원했음

2. 개선방안

○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가. 인식개선 분야

1) 대중매체를 활용한 음주폐해에 대한 홍보 강화

- 음주결과를 통해 남녀 모두 노상취침, 카드와 현금 도난피해, 부부싸움/자녀와의 갈등,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실직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여성들의 폭음율이 가장 높고, 여성 고위험음주자가 본인의 음주습관 (73.2%)을 정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임. 본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한 음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전광판을 활용해 건강한 음주에 대한 홍보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개인, 가족, 사회 피해를 홍보함으로써 인식개선을 도모해야함

2) 음주관련 기관 및 지원 정책 홍보 확대

- 응답자들의 63.4%는 음주문제 발생시 보건소, 의료기관,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어 관련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언론매체를 활용한 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 홍보와 더불어 도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 은행, 공항 등에 음주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확대를 도모해야함

나. 절주홍보 및 예방분야

1) 사회지도층의 절주캠페인 참여를 통한 홍보강화

- 응답자의 절반이상(54.0%)이 절주캠페인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3.1%만 절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절주의향이 없는 이유는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음.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율, 평생음주율, 고위험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민들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지도층의 관심이 필요함
- SNS를 통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켰던 것처럼 사회지도층의 절주선언을 통해 절주문화를 확산해야함

2) 공공기관과 고등학교 내 절주 교육의무화

- 제주지역 남성들의 음주량, 음주빈도, 고위험음주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남성 응답자의 최초음주나이는 만 19.9세였음.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 20대 여성들의 34.2%가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응답자의 94.7%가 예방교육 경험 ‘없다’이며, 응답자들이 음주예방교육을 위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책이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 의무화’ (47.1%)였음
- 우선 공공기관과 고등학교만이라도 음주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함

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분야

1)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 현재 32개 시·도, 시·군·구 등 타지자체는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조례내용에는 금주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 및 표지판 부착, 절주교육 지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

한, 청소년 음주예방 및 교육·홍보관 설치, 알코올 사용 장애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 개최, 절주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율을 낮추고 건강한 음주문화와 건강한 가족관계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함

2)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소 연계방안 마련

- 조사결과 음주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술 마시는 문화(27.8%), 직장회식(21.0%)으로 나타났으며 ‘회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의 고단함을 음주로 해소하고 있었음
- 직장인들의 음주문화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 창구를 설치 운영해야함

3) 1차만 마시는 음주문화 조성

- 조사한 결과 남자들은 2차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보다 20대·30대·40대도 2차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음.
- 이들의 음주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1차만 하는 음주문화조성과 음주를 권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활성화되어야함

라. 문제음주자와 가족지원정책

1) 문제음주자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쉼터마련

-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여성들은 강제적 성관계를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 때문에 가정·결혼생활의 위기(5.7%), 자녀와의 갈등(5.7%)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음주자에 대한 치료와 문제음주자와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가족친밀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야하며 음주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마련(쉼터)이 필요함

2)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가족여가활동지원

- 조사결과 응답자의 음주상대는 ‘친구/동창’이 가장 많았으며, ‘회식’과 ‘모임’에서 음주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별로 핵가족, 한부모 가구, 3세대 가구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음주율, 음주량,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음주를 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이들이 개인 중심의 여가활동을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가족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나 부부중심의 가족도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함

참고문헌

- 김남초·박호란·이소영·유소영. 2004.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 관련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1):37-47
- 김상대·송석훈·이상진·하태영·Lin, Kuan-Pin. 2001. “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대책 비교연구(Ⅰ)”. 기초학문자료센터. 연구성과물검색
- 김성천·장승옥·이명숙·정슬기. 2005.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청소년위원회
- 김용석. 2001.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 음주문제 간의 관계-경인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 김혜련·최윤정. 2003. “여성 문제음주자 개입 전 사정틀 개발 및 사례적응: 4개 사례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 12(0): 65-98
- 류지수·강경화. 2012.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문제음주 영향 요인」.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백성희·김혜영·주민선·배정은·이혜련. 2002. “청년의 주관적 건강인지와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4(1): 26-35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OECD Health Data 2014」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_____. 2008-2014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_____. 2014 「지역사회건강조사」
- 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2009.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연구」.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양정선. 2012. “한국인의 음주문화 그리고 가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브리프 42(12-01)
- 우석균. 2012. “술 취한 음주정책? 대한민국의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김용익의원, 김현미의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 긴급토론회 자료집
- 우석균. 2013. “한국의 음주정책, 현 주소와 개선방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슈브리프(06-02)
- 유채영. 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변화전략 수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순환·김대우. 2004. 『한국의 여가문화』. 서울:일신사
- 이경상·김지연·최수미·이순래. 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

- 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욱. 2001. “문제음주자를 위한 해결중심 집단 상담의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06. “직장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113-136
- 이희종·제갈 정. 2002. 「직장인 음주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 조덕임. 2013. 「문제음주부모와 사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
- 장수미. 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8
- 장수미 외. 2010. 「가정폭력과 음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개발」. 여성가족부
- 정영호. 2014.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보건복지포럼」
- 정영호 외. 2012.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한국사회보건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2010-2014. 「지역사회 건강통계」
- 천성수. 2002. “대학생폭음의 원인파 음주관련문제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21-233
- 최운영. 2007. “알코올상담센터의 가족개입 서비스가 문제음주자 가족의 위기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정.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5-56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사망수준 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 관련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여성흡연음주 요인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제주지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및 평가”. 제주경제브리프(2015-8)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a.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_____. 2010b.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_____. 2002. 「직장인 음주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허은정·김명순·김광기. 2001.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202-215

- Bennett J. B.; Lehman W. E. K., 1998. "Workplace drinking, climate, stress and problem indicators; Assessing the influence of team work(group cohes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608-617
- Birch D.; Ashton H.; Kamali F., 1998. "Alcohol, drinking, illicit drug use, and stress in junior house officers in North East England". The Lancet, Sep(5): 785-786
- Black, Claudia. 1986. "The Interpersonal and Emotional Consequence of Being an Adult Child of an Alcohol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1(2): 213-231
- Conway T. L.; Vickers R. R.; Ward H. W.; Rahe R. H., 1981. "Occupational stress and variation in cigarette, coffee and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Albany). 22: 155-165
- Greenberg E.,S.;Grunberg L., 1995. "Work alienation and problem alcohol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83-101
- Perria, Krista M., Slon, Frank A., 2001. "Life events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mature adult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4)(July): 501-508
- Russell Marcia, Cooper M. Lynne, Frone Micheal R.,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stree, alcohol and blood pressure in community-based samples of blacks and non-black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3(4): 299-306
- Straus, R. 1984. "The need to drink too much". Journal of Drug Issues(Winter). pp 125-136
- Sweeny, M.L.(1998). "Will anything make alcohol abusers more willing to seek help?".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

지역사회건강통계 <http://chs.cdc.go.kr/chs/index.do>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부록

부록 「제주지역 남녀 음주 실태조사」 설문지

	제주지역 남녀 음주 실태조사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
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대비 고위험 음주율이 높으며,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음주
실태를 조사해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가족정책을 마련하고자 합
니다. 귀하의 응답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음주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개발
에 매우 소중한게 쓰일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제주도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
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4.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해 순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이연화 ☎ 064-710-4973

조사책임자: 미래 리서치 양진철 ☎ 064-755-0073

SQ 1) 거주지	☐ 1) 제주도 ☐ 2) 서귀포시	_____동/읍/면
SQ 2) 성별	☐ 1) 남성 ☐ 2) 여성	
SQ 3) 연령	만_____세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
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A. 음주행태

문1. 음주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성찬식, 제사 등에서 몇 모금 마신 것은 제외)

- 1) 지난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2) 지난 12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3) 과거에는 마셨지만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 4)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문2. 다음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정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남자의 경우 문 2-1번, 여자의 경우 문 2-2번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1.(남자)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거의 매일
- 2) 일주일에 2-3회 이상
- 3) 일주일에 1번 정도
- 4) 한 달에 1번 정도
- 5) 세 달에 1번 정도
- 6) 여섯 달에 1번 정도
- 7) 전혀 없다

문2-2.(여자)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거의 매일
- 2) 일주일에 2-3회 이상
- 3) 일주일에 1번 정도
- 4) 한 달에 1번 정도
- 5) 세 달에 1번 정도
- 6) 여섯 달에 1번 정도
- 7) 전혀 없다

※ 소주, 탁주, 맥주, 양주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그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소주 7잔은 소주 1병과 같습니다. 또한,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문3. 귀하는 보통 몇 잔 정도를 마시면 취한 느낌이 듭니까? _____잔

문4. 귀하는 보통 한 번 술을 마실 때 술값으로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한 번에 _____원

문5.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술을 드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혼자
- 2) 친구/동창
- 3) 애인
- 4) 직장동료
- 5) 배우자
- 6) 배우자 이외의 가족/친지
- 7) 고객/업무상 만나는 사람
- 8) 기타(_____)

문6. 귀하는 주로 어디서 술을 드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집
- 2) 일하는 곳(사무실)
- 3) 식당
- 4) 일반가게(편의점)
- 5) 야외(공원,해수욕장)
- 6) 나이트클럽
- 7) 노래방
- 8) 술집
- 9) 기타(_____)

문7. 귀하가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몇 살 때입니까? 만 _____ 세 때

문8. 귀하가 처음 음주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또래집단의 영향 2) 호기심 3) 술을 마시는 분위기여서 4)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5) 가족의 영향 6) 학교 선배의 권유 7) 기타(_____)

문9.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몇 차까지 술을 마셨습니까?

- 1) 1차 2) 2차 3) 3차 4) 4차 이상

문10. 귀하의 평소 음주습관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3) 기타(_____)

문11. (여성만) 귀하는 임신 중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2. 다음은 음주에 대한 귀하의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성의껏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1)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월 1회미만	월 2-4회	주 2-3회	주 4회이상
2)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정도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혀 없음	월1회 미만	월1회	주1회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월1회 미만	월1회	주1회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1	2	3	4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1	2	3	4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1	2	3	4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1	2	3	4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	있지만 자년년 간에는 없었다	-	자년년 간 있었다
10)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	있지만 자년년 간에는 없었다	-	자년년 간 있었다

B. 음주의 영향

문13. 다음은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 귀하가 마신 술로 인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①	아니오 ②
1) 술 때문에 노상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2) 술 때문에 성적으로 과한 행동(옷을 벗다, 나체 행위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3) 술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장기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4) 술 때문에 부부사이에 싸움이나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5) 술 때문에 자녀와 갈등, 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6) 술 때문에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7) 술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8) 술 때문에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9) 술 때문에 실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0) 술 때문에 카드·현금(지갑포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11) 본인의 술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12) 술을 마시고 모르는 사람과 심한 언쟁을 하거나 싸운 적이 있습니까?		
13) 술을 마시고 기물(가정, 사업장, 공공장소 등)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까?		
14)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14. 지난 1년간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음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1) 술을 마신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 술을 마신 사람이 성적으로 과한 행동(옷을 벗다, 나체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문15. 지난 1년간 귀하는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의 음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1) 술을 마신 배우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2) 가족구성원의 음주로 인해 우리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다		
3) 가족구성원의 음주로 인해 우리 집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다		
4) 가족구성원의 음주로 인해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5) 가족구성원의 음주로 인해 자녀와 갈등, 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문16. 귀하는 현재 가족과 함께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 1) 거의 나누지 않음 2) 별로 나누지 않음 3) 자주 나눔 4) 매우 자주 나눔

문17. 귀하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여가(최소 2명 이상 참가)를 보내시는 편입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8.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주로 어떤 상황일 때 술을 마셨습니까?

- 1) 기분이 안 좋을 때(답답, 우울, 화날 때 등) 2)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3) 노동 등 육체적 일이 힘들 때 4) 실직 및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5) 회식이 있을 때
6) 기타(_____)

문20. 귀하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음주 2) 흡연 3) 수면 4) TV시청, 라디오 청취
5) 운동 6) 취미생활 7) 인터넷·스마트 폰 사용 8) 기타(_____)

문21. (직장인만) 귀하의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심리상담 제공 2) 명상 프로그램 제공 3)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4)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5) 기타(_____)
6) 제공하지 않음

문22. (직장인만) 귀하는 직장 내 회식을 10번 정도 할 때 음주를 하는 경우가 몇 회 정도입니까?

- 1) 9-10회 2) 7-8회 3) 5-6회 4) 3-4회
5) 1-2회 6) 거의 없다

문23. (직장인만) 귀하는 비즈니스 접대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많다
5) 매우 많다

문24.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 단체나 조직은 몇 개입니까?

- 1) 없음☞문27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6) 5개
7) 6개 이상

문25. 귀하는 앞에서 응답한 모임, 단체나 조직에 참여하는 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한번 정도 3) 1달에 한번 정도 4) 2달에 한번 정도
5) 3-4달에 한번 정도 6) 6개월에 한번 정도 7) 1년에 한번 정도

문26. 귀하가 활동하는 모임 또는 단체 내 회식을 10번 정도 할 때 음주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입니까?

- 1) 거의 없다 2) 1-2회 3) 3-4회 4) 5-6회
5) 7-8회 6) 9-10회

문27. 귀하는 부모님 중 두 분 또는 한분 중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28. 귀하나 귀하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중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알코올 중독이란 술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본인	01) 예	02) 아니오
2) 가족 또는 친척	01) 예 (누구:_____)	02) 아니오

문29. 귀하나 귀하의 알코올 중독이었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음주문제로 보건소, 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1) 본인	01) 예	02) 아니오
2) 가족 또는 친척	01) 예	02) 아니오

문30. 귀하나 귀하의 알코올 중독이었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입니까?

1) 본인	0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0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0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04) 알코올 중독이었던 가족이나 친척(4촌 이내)이 거부해서 05) 기타(_____)
2) 가족 또는 친척	0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0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0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04) 알코올 중독이었던 가족이나 친척(4촌 이내)이 거부해서 05) 기타(_____)

문31. 귀하의 친구나 주변인 가운데 음주하는 사람은?

- 1) 거의 모두 또는 모두 2) 3/4 정도 3) 반 정도 4) 1/4 정도 5) 없음

문3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2)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3) 문제가 많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33. 일반적으로 문제음주가 가족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각하다 2) 약간 심각하다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34. 귀하는 문제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각하다 2) 약간 심각하다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35. 귀하는 절주할(마시는 술의 양을 줄임)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전혀 없다 ☞문36으로 2) 별로 없다 ☞문36으로 3) 약간 많다 ☞문37로
- 4) 매우 많다 ☞문37로 5) 전혀 마시지 않는다 ☞문37로

문36. 귀하가 절주할(마시는 술의 양을 줄임) 의향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술이 좋아서 2)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3)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어서
- 4) 사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 5)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6) 우울·불안·불면 때문에
- 7) 기타(_____)

문37. 만약 귀하에게 음주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 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38. 귀하는 최근에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통해 절주(마시는 술의 양을 줄임) 캠페인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39. 음주와 관련된 피해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40. 제주도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귀하는 왜 제주도민들의 음주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4.3 사건의 영향 때문에 2) 권당이라는 친밀한 문화 때문에 3) 지역이 좁아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
- 4) 관광지이기 때문에 5)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6)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 7) 미래가 밝지 않아서 8) 일하지 않고 노는 남자들이 많아서 9)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
10) 기타(_____)

문41. 귀하가 보통 음주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43로 2) 음주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서 3) 접대 때문에
4) 직장의 회식 때문에 5) 술 마시는 문화라서 6)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7) 가정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8) 술을 마셔야 대화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9)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 다른 여가활동이 없어서 11) 우울·불안·불면 때문에

문42. 귀하가 술을 끊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업무 때문에 2) 직장의 회식문화 등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3) 습관이 되어서
4) 어디서나 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5)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6) 술을 안 먹으면 우울·불안·초조해서

문43.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응답칸
	1	2	3	4	
1) 술을 계속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다					
2) 지나친 과음은 가족을 힘들게 한다					
3) 나의 음주습관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지나친 과음은 직장생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5)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예방교육은 음주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C. 음주관련 정책

문44. 다음은 알코올 관련 법 내용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 ①	모른다 ②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한다		
2) TV에 밤 10시 이전에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3)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인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문45. 다음은 알코올 관련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기관 및 관련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안다 ①	모른다 ②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관리)		
2) 보건소(알코올 상담 및 치료, 재활지원·관리)		
3)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서비스		
4) 알코올 관련 가족 자조모임 및 지원프로그램		
5) 알코올문제 예방 및 교육 서비스(알코올 중독 진단 척도 검사 실시 등)		
6)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재활서비스		

문46.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많은 관광객, 이주자,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2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46-1.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공장소(예: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를 지정한다
- 2)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를 도입한다
- 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한다
- 4)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로부터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 5)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서회식을 다른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는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해 준다

문46-2.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정책입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청소년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는 주류 판매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 2) 도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신문, 방송, 옥외광고에 청소년의 음주를 유도·권장하는 광고를 규제한다
- 3)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이나 주류회사의 후원행위를 금지한다
- 4) 주류 판매시간을 제한한다(예: 자정이후 판매 금지)

문46-3. 음주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입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도민 참여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지원 한다
- 2)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학교를 중심으로 음주관련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 3) 음주 예방교육내용에 도민의 스트레스해소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
- 4) 도내에 절주·음주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문46-4. 문제음주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입니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치료, 보호사업을 통합적으로 마련해 지원 한다
- 2) 문제음주자 가족들에게 개별상담·경제적 지원·보호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 3) 문제음주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재발예방 등 연계서비스를 더욱 확대 제공한다
- 4) 개인의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게 한다

문46-5. 그 외 본인이 제주도에 도입해야할 음주 관련 정책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

D. 개인 관련 사항

문47.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 1) 미혼 2) 기혼(현재 배우자가 있음) 3) 이혼 4) 사별

문48.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나 재학은 졸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초등(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 이상 6) 기타

문49. 귀하는 제주가 고향이십니까?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란 곳을 말합니다.)

- 1) 예 2) 아니오

문50. 귀하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상용근로자(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
4) 시간제 근로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일을 하고 있지 않음(☞ 문51로)

문50-1.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직 종사자 6) 농림 축련 종사자 7) 어업 축련 종사자 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단순노무 종사자 11) 기타(무엇: _____)

문50-2. 귀하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소득 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원-199만원 4) 200만원-299만원
5) 300만원-399만원 6) 400만원-499만원 7) 500만원 이상

문51.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소득은 함께 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1) 소득 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원-200만원 미만
4) 200만원-300만원 미만 5) 300-400만원 미만 6) 400-500만원 미만
7) 500-600만원 미만 8) 600만원-700만원 미만 9) 700만원 이상

문52. (기혼자만)귀하는 맞벌이 부부 이십니까?

- 1) 맞벌이임 2) 맞벌이 아님

문53. 현재 귀택의 가구구성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1인 가구 2) 부부 가구 3)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 4) 부 또는 모, 그리고 미혼자녀 가구 5) 부부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 가구
- 6)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7) 기타(무엇: _____)

문5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종교 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천주교
- 4) 불교 5) 기타(무엇: _____)

문55.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좋지 않음
- 5) 전혀 좋지 못함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보고서 2015-04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

발 행 일 2015년 10월 31일

발 행 인 현 해 순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 쇄 소 디자인 늘(☎064-758-3302)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954366-8-2